차　　례

제1과. 배움의 나라 4
제2과. 공부시간 7
제3과. 아이 10
제4과. 우리 누나 13
제5과. 들놀이 17
다시한번 익혀보자요(1과—5과) 21
제6과. 벼모 22
제7과. 염소목장 28
제8과. 콤퓨터 32
제9과. 고운 꿈 37
제10과. 통학뻐스 42
다시한번 익혀보자요(6과—10과) 46
제11과. 대동강 47
제12과. 텔레비죤 51
제13과. 찌꼴새 55
제14과. 창광원물놀이장 59
제15과. 홰불행진 63
다시한번 익혀보자요(11과—15과) 67

제16과. 누가누가 닮았나 69
제17과. 해돋이 73
제18과. 나는야 꽃봉오리 77
제19과. 하얗게 핀 서리꽃 81
제20과. 분배몫 85
다시한번 익혀보자요(16과—20과)........... 88
제21과. 고향집의 앉은책상 90
제22과. 복많은 나라 95
제23과. 붉은 흙 99
제24과. 젊어진대요 103
제25과. 열여덟살 107
다시한번 익혀보자요(21과—25과)........... 111
제26과. 백돐생일 112
제27과. 물길굴을 뚫어요 116
제28과. 시읊기 120
제29과. 곰은 왜 발바닥을 핥을가요 124
제30과. 세상에 부럼없어라 127
다시한번 익혀보자요(26과—30과)........... 131
제31과. 개학날 133
제32과. 빛나는 백두산 138

제33과. 아름다운 우리 나라 143
제34과. 연아연아 올라라 148
제35과. 사철 152
다시한번 익혀보자요(31과—35과).........158
제36과. 욕심 많은 개 159
제37과.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165
제38과. 고향의 봄 170
제39과. 공화국기발 175
제40과. 설명절 179
다시한번 익혀보자요(36과—40과).........186
제41과. 철이와 옥이 187
제42과. 어데까지 왔니 193
제43과. 동물원구경 197
제44과. 개미와 매미 203
제45과.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210
다시한번 익혀보자요(41과—45과).........219



제 1 과
배 움 의 나 라



그림을 보자요

❖ 오늘부터 배우는 과목의 이름은 《국어》입니다.

❖ 그림을 보고 대답해보세요.

그림에 누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뒤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동생이 손에 들고있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 재미나게 말해보세요.

학교에서 처음 공부하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기쁜 마음, 결의하는 마음을 말해보세요.

학급의 동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앞으로 동무들과 어떻게 지내려고 합니까? 솔직한 자기 마음을 말해보세요.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은 학교전
1년동안 유치원에서, 소학교학생들은 4년동안, 중학교
학생들은 6년동안 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형님, 누나, 오빠, 언니들은 희망에 따라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에서 누구나 마음껏 공부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큰소리로 읽고 곱게 쓰자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

② 자기 학교, 학급, 이름을 써보세요.

______ 학교 1학년 ____ 반 이름 ______

③ 학생은 커서 무엇이 되렵니까? 그림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는 돈 한푼 내지 않고 누구나 공부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배움의 나라입니다.

제 2 과
공 부 시 간



그림을 보자요

❖ 공부시간입니다.

❖ 그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공부시간에는 어떻게 앉아야 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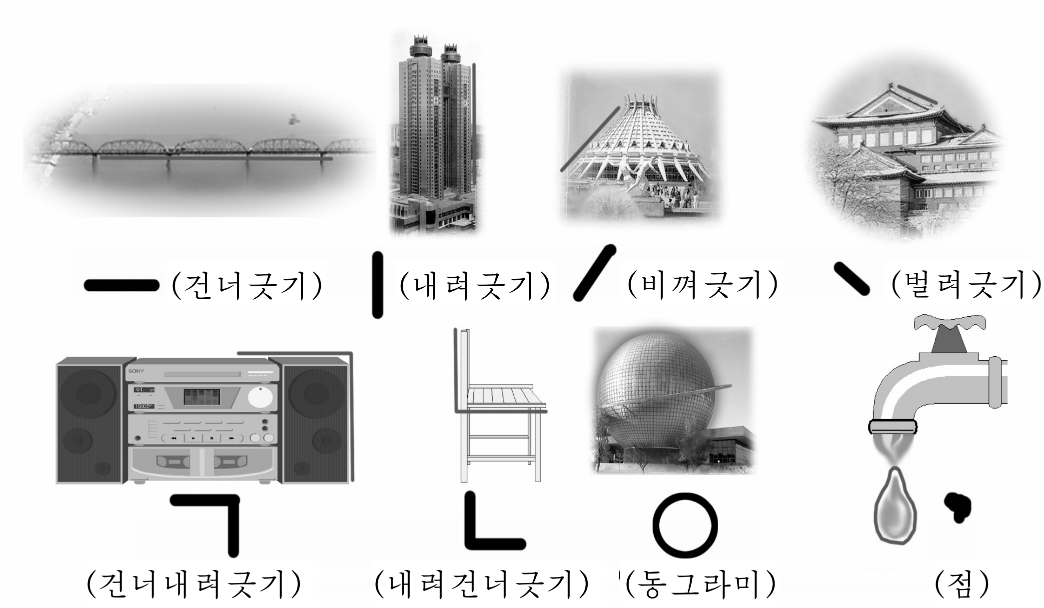
똑바로 앉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대로 앉아보자요.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하려면 손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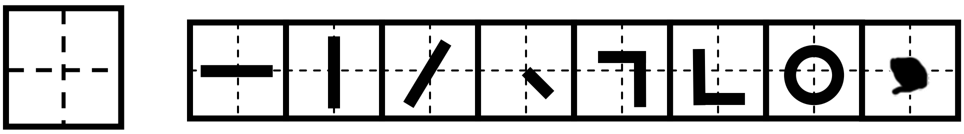


우리 글자의 획을 새기자요

❖ 어떤 획들이 있을가요?



❖ 획을 곱게 써보자요. 순서를 지켜 써야 해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의 축하를 받으며 학교에 들어올 때 학생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할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우리 글자의 획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어느 학생의 자세가 옳은가 살펴보세요.
(×, ○)로 표시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글자를 쓸 때 몸자세를 바로하여야 합니다.
글자는 글자획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3 과
아 이











새 글자를 배워요

◆ 바로 읽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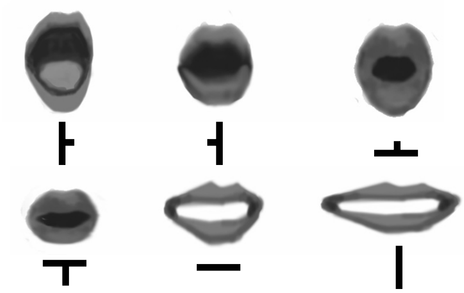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ㅏㅑ》줄의 앞에 《ㅇ》를 붙이면 소리가 달라질가요? 읽으면서 생각해보세요.

▶ 옆에 있는 학생과 한 글자씩 엇바꾸어 읽어보세요.

아	어	오	우	으
야	여	요	유	이

▶ 입모양에 따라
모음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
는가 보세요.



❖ 고운 글씨로 써보세요.

세운글자들

아	야	어	여	이

눕힌글자들

오	요	우	유	으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아이》는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을가요?

ㅇ, ㅏ ㅇ, ㅣ

❖ 읽고 곱게 써보세요.

아	이

❖ 그림을 보며 빈칸에 글자를 맞추어보세요.






오
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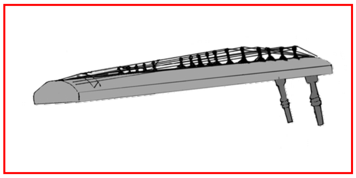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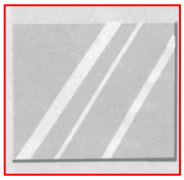
□
□ 이

□ 우
□

여 □
유

❖ 《아야》줄의 글자가 있는 단어찾기입니다.
《아야》줄의 순서대로 그림을 찾아 읽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쓸 때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ㅏ　　ㅓ　　ㅗ　　ㅜ

② 《아야》줄에서 다음단어들을 짚어보세요.

요,　야,　이,　우유

③ 받아쓰기하세요.

아이, 여우, 오이, 우유, 이, 요, 야

④ ◯ 안에《아야》줄의 글자맞추기입니다.

◯ 야 ◯ 여 오 ◯ ◯ 유 ◯ 이



꼭 새겨두자요

《ㅏ　ㅑ》줄의 글자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제 4 과

우 리 누 나



우리 누나 이겨요

새 글자를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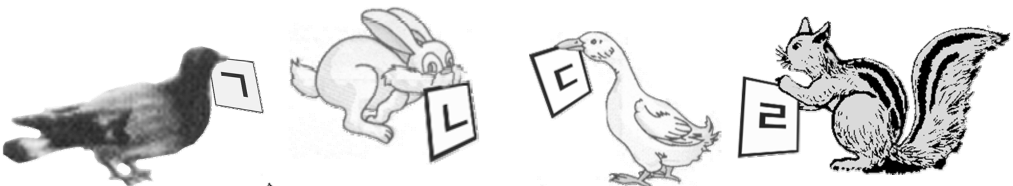
❖ 《누나》는 어떤 글자들로 되였을가요?
소리를 새겨들으며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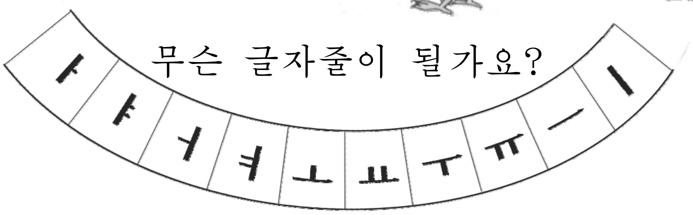
ㄴ, ㅜ   ㄴ, ㅏ

❖ 자음 《ㄱ, ㄴ, ㄷ, ㄹ》글자를 읽고 쓰세요.

ㄱ	ㄴ	ㄷ	ㄹ
(기윽)	(니은)	(디읃)	(리을)
그	느	드	르

❖ 자음 《ㄱ, ㄴ, ㄷ, ㄹ》에 《ㅏ ㅑ》줄을 붙여 읽어보세요.





❖ 빈칸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면서 곱게 쓰자요.

가			겨	고			구	그	
	나	너		노	뇨	누		느	니
다		더	뎌	도		두		드	
라	랴		려		료	루	류		리

❖ 자음글자의 모양이 몇가지인가 생각하세요.

가, 고, 너, 누, 디, 드, 려, 료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우리 누나》를 배운 글자줄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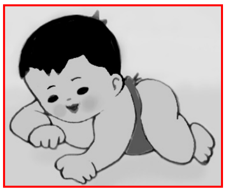
우	리		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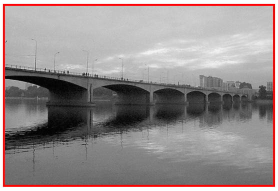
❖ 그림의 이름을 글자로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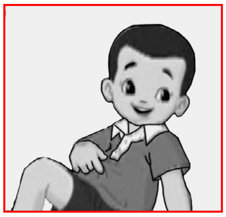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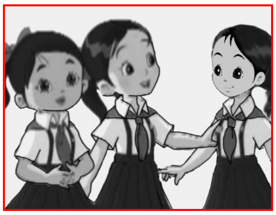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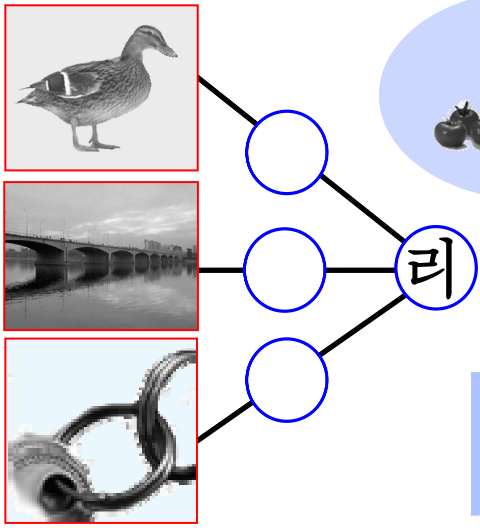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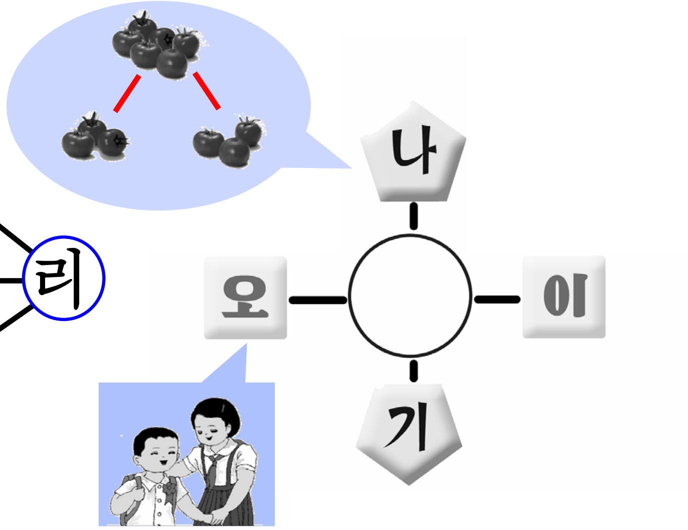






◆ ◯안에 무슨 글자를 써야 할가요?





◆ 가갸표에서 오늘 배운 단어글자를 소리내여 읽어보세요.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문장을 읽고 써보세요.

우	리		누	나		이	겨	요

◆ 빈칸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아		야		여		로		오		라



너도 도 다 로 가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학생에게는 누나가 있나요?

▶ 누나의 자랑을 말해보세요.

▶ 누나가 없는 학생은 친척누나의 자랑을 해도 좋아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가, 나, 다, 라》로 시작되는 말찾기내기를 해보세요.

② 다음의 글자를 가지고 물어보는 말을 만들어보세요.

어, 디, 요, 로, 가, 나

③ 받아쓰세요.

고기기르기, 다리로 가요, 오리야 어디로 가니, 아가야 여기로 오너라, 누가 누가 이기나, 우리 누나 이겨요



꼭 새겨두자요

정성옥누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며 달려 세계 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한 영웅입니다.

자음은 혀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입니다.

《ㄱ, ㄴ, ㄷ, ㄹ…》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제 5 과

들 놀 이



아이들이 들놀이 가요

새 글자를 배워요

❖ 《들놀이》를 이루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ㄷ ㅡ ㄹ, ㄴ ㅗ ㄹ, ㅇ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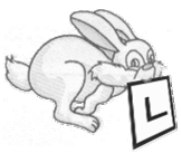
❖ 받침 《ㄱ, ㄴ, ㄹ》을 새로 배워요.

약 눈 들

❖ 받침글자를 붙여 읽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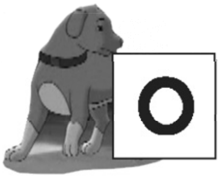
가 나 다 도 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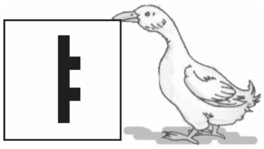






❖ 무슨 글자인지 읽어보세요.







❖ 고운 글씨로 쓰세요.

약		국		눈		굴		길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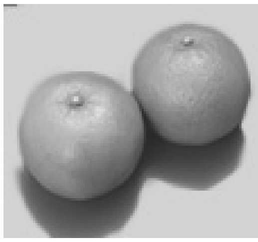
❖ 다음단어에 어떤 받침글자가 있습니까? 읽고 쓰세요.

들	놀	이

❖ 그림을 보면서 읽고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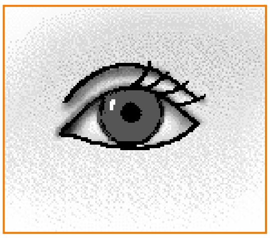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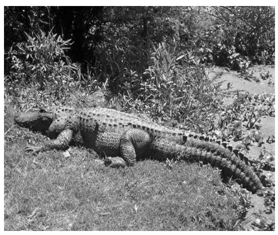


	들		눈길









			악어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문장을 읽고 쓰세요.

아이들이 들놀이를 가요

❖ □안에 글자를 찾아쓰고 크게 읽어보세요.



논을 □아요



□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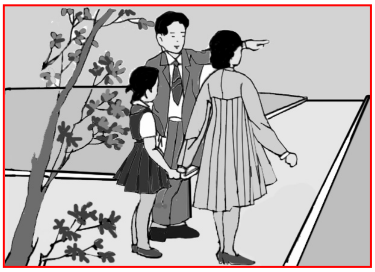


오늘은 □요□이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학생들이 들놀이 갔던 날에 있은 여러가지 일을 말해보세요. 누가 더 잘 말할수 있나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ㄱ》,《ㄴ》,《ㄹ》받침이 있는 하나의 글자로 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ㄱ — 곡　　ㄴ — 간　　ㄹ — 길

② 다음글자들을 읽을 때 받침소리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찾고 발음해보세요.

낙　　난　　날

③ 다음글자들에 《ㄹ》받침을 붙여쓰고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는껏 말해보세요.

가　도　아　구　고

④ 받아쓰세요.

오곡이 익는 가을이다	**눈이 오는 겨울**
논을 간다	**들놀이 가요**
륜을 돌려요	**눈길을 걸어요**
오늘은 일요일	**옥류교를 건느다**



꼭 새겨두자요

들놀이를 하면 몸도 튼튼해지고 자연지식도 많이 알게 됩니다.

모음밑에 쓰인 자음을 받침이라고 합니다. 《ㄱ,ㄴ,ㄹ》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잘 읽고 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과 — 5과)

① 《아야》줄에 《ㄱ, ㄴ, ㄹ》받침이 붙은 하나의 글자로 된 단어를 찾으세요.

② 다음의 단어들은 무슨 받침이 있는 글자들일가요?

약국　　들길　　곤난　　군인

③ 《아야》줄에서 찾아보세요.

▶ 입모양이 제일 커지는 글자

▶ 입모양이 동그랗게 되는 글자

▶ 입술을 약간 벌리게 되는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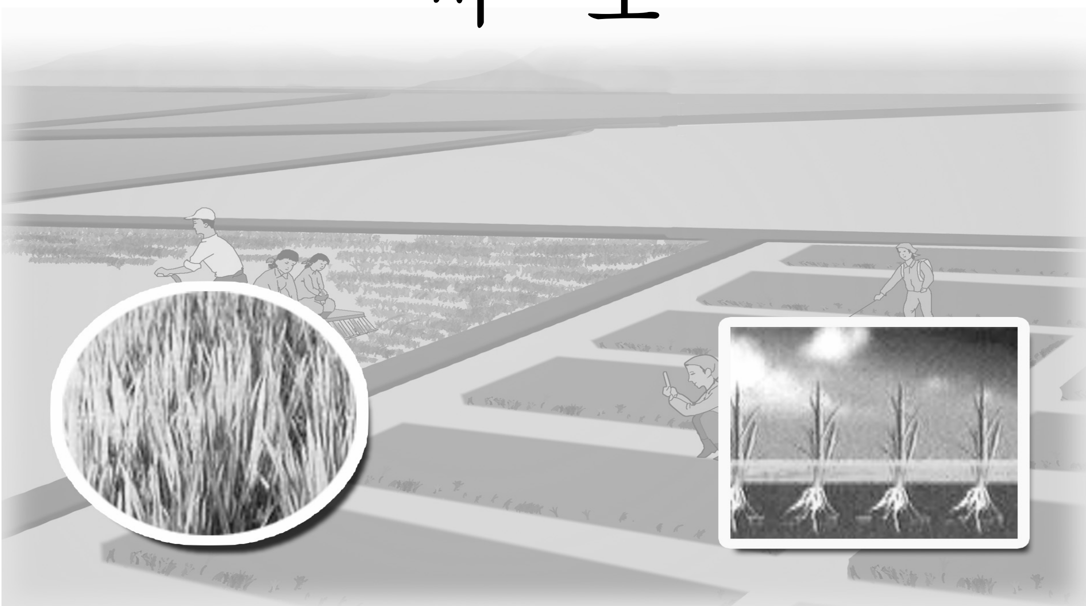
④ 받아쓰세요.

아이가 걸어가요	**여기가 어디냐**
우리 언니 이겨라	**너도나도 들놀이 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	**우리 나라 국기**
누나가 륜을 돌린다	**눈길로 걸어가요**

⑤ 다음글자들을 가지고 새로운 말을 5개 만들어보세요.

가, 우, 옥, 나, 누, 구, 교, 이, 류, 리, 기, 라

제 6 과
벼 모



벼모가 잘 자라요

새 글자를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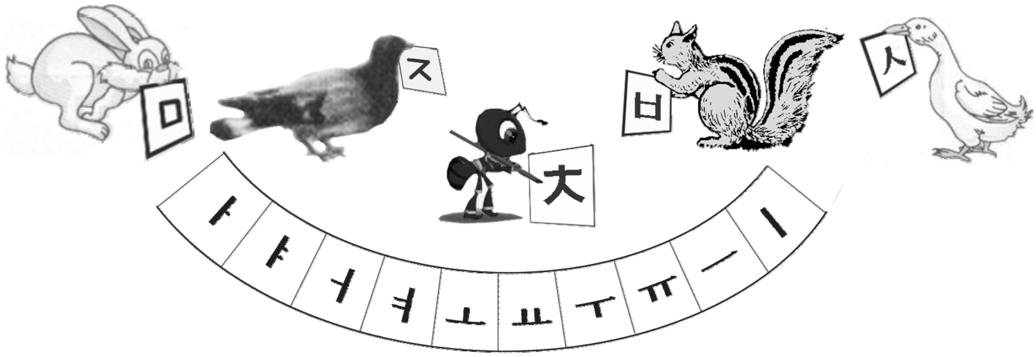
❖ 《벼모》를 이루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ㅂ, ㅕ　　　　ㅁ, ㅗ

❖ 자음 《ㅁ, ㅂ, ㅅ, ㅈ, ㅊ》글자를 읽고 쓰세요.

ㅁ	ㅂ	ㅅ	ㅈ	ㅊ
(미음)	(비읍)	(시읏)	(지읒)	(치읓)
므	브	스	즈	츠

◆ 자음에 《ㅏ ㅑ》줄을 붙여 읽고 쓰면서 새 글자를 기억하세요.



◆ 글을 곱게 쓰세요.

세 운 글 자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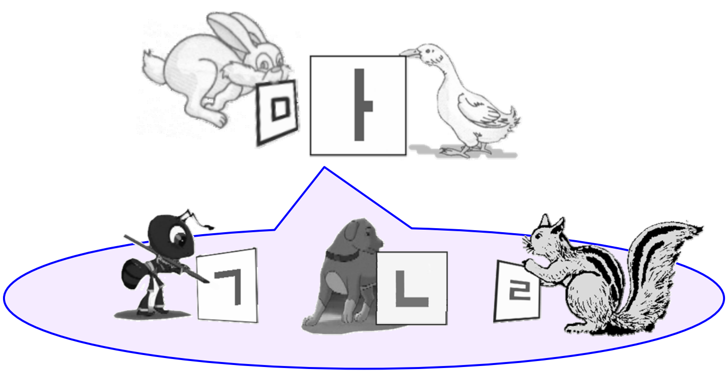
마				
	바			
		서		
			저	
				치

눕 힌 글 자 들

				므
			뷰	
		수		
	죠			
추				

◆ 자기가 쓴것을 읽어보세요.

◆ 받침 《ㄱ, ㄴ, ㄹ》을 붙여 읽어보세요.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쓰고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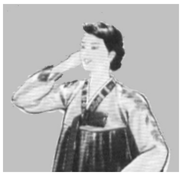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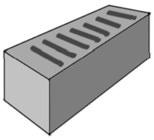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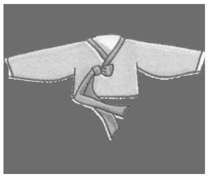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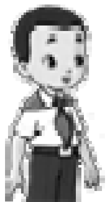
◈ 단어를 읽고 쓰세요.

벼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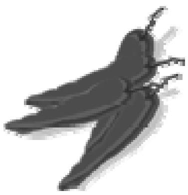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읽고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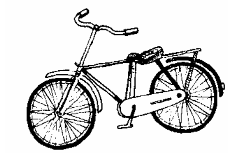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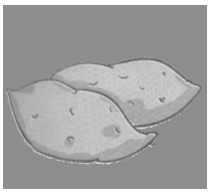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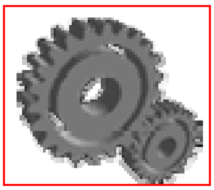
소년






줄말



치차



철길

❖ 글자를 알면 무슨 말이나 다 읽고 쓸수 있어요.

□안에 글자를 찾아 쓰고 아래로 옆으로 읽어보세요.

	천	
료	□	사
	마	

	불	
저	□	리
	기	

수		
□	□	도
물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어보세요.

모 / □ / □ / □ — 이

부 — 모 / □ / □ / □

소 — 년 / □□ / □□ / □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문장을 읽고 쓰자요.

벼	모	가		잘		자	라	요

❖ □안에 글자를 찾아쓰고 크게 읽어보세요.



오리가 먹이를 □어요



철□로 □차가 □려요



수도를 □아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교과서그림을 보면서 차례로 말해보세요.

▶ 모판에서 무엇이 자랍니까?

▶ 자란 벼모는 어디에 심을가요?

▶ 벼모가 자라면 무엇이 될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그림을 보면서 글자를 쓰고 끝말을 이어 말만들기하세요.







②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나는 우리 나라 글을 다 알아요

③ 받아쓰세요.

오리야 어서 먹이를 먹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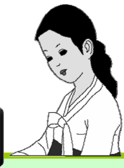
벼모가 잘 자라지요

렬차가 철길로 달려요
기중기가 벽돌을 나른다
고운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나거라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
우유주전자를 들고 간다
수수이삭이 익어요

④ 읽어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으	즈	츠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⑤ 모음 《ㅜ》가 두 글자에 다 쓰인 단어를 가갸표에서 5개 찾아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벼모를 잘 키워야 많은 쌀이 나옵니다.

자음 《ㅁ, ㅂ, ㅅ, ㅈ, ㅊ》에 모음 《ㅏ ㅑ》줄이 붙은 글자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7 과
염 소 목 장

염소들이 들로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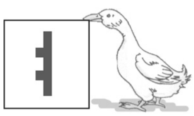
새 글자를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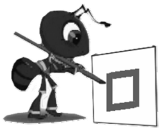
❖ 《염소》를 이루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ㅇ, ㅕ, ㅁ　　　ㅅ, ㅗ

▶ 새 받침글자는 어느 글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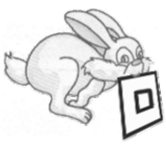
▶ 받침글자를 읽고 쓰세요.

ㅁ	ㅂ	ㅅ	ㅇ
(미음)	(비읍)	(시읏)	(이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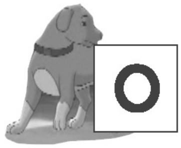
《ㅂ》,《ㅅ》은 읽을 때 소리가 막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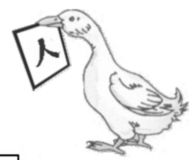
《ㅁ》,《ㅇ》은 코안을 울리면서 막힘소리를 내야 합니다.

❖ 아래의 받침들을 글자들에 붙여서 읽고 써보세요.









마		가		고		다	

❖ 곱게 쓰세요.

강		감		갑		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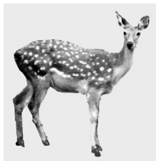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염	소	목	장

❖ 그림을 보면서 □안에 글자를 쓰고 읽으세요.













접시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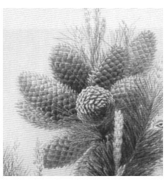












잣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문장을 읽고 쓰세요.

염소들이 들로 나갑니다

❖ □안에 글자를 찾아쓰고 크게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을 □니다



□으로 머리□ □자요



□을 잘 차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교과서그림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 염소는 왜 풀판에서 기를가요?

▶ 염소를 많이 기르면 왜 좋을가요?

▶ 염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것은 어떤 짐승들일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두 글자가 다 《ㅇ》받침이 들어간 단어를 찾아 읽고 쓰세요.

실례: **영웅**

②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쓰세요.

길이	**입습니다**
빙상무용을	**건너갑니다**
강을	**짓습니다**
옷을	**봅니다**
엿을	**좁다**
집을	**먹는다**

③ 받아쓰세요.

염소는 수염이 길어요
곰은 무엇을 먹을가요
고운 아가는 당실당실 춤을 춥니다
집짓기놀이가 신나요
자동차가 오는가 보고 길을 건너가자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에 많이 건설된 염소목장들에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마음써오신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

《가갸》줄부터 《차챠》줄까지의 글자들에 《ㅁ, ㅂ, ㅅ, ㅇ》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8 과

콤 퓨 터



학생들이 콤퓨터를 다룹니다

지난날 배우지 못하여 자기 나라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콤퓨터를 다룰줄 모르는 사람을 콤맹자라고 합니다.

새 글자를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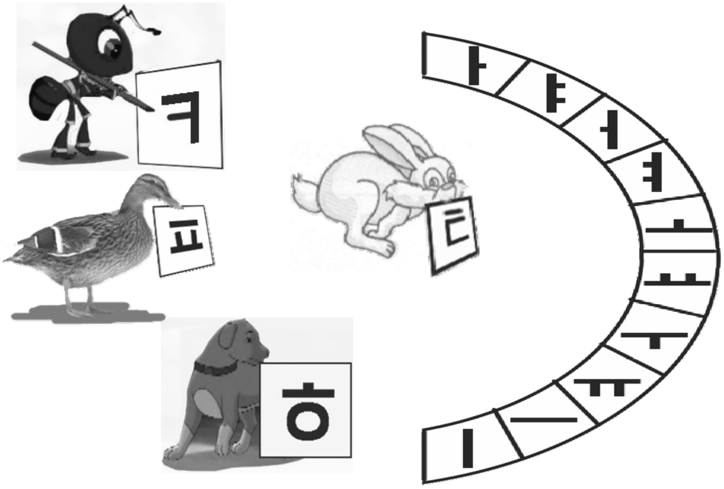
❖ 《콤퓨터》는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졌습니까?

ㅋ, ㅗ, ㅁ　ㅍ, ㅠ　ㅌ, ㅓ

❖ 자음 《ㅋ, ㅌ, ㅍ, ㅎ》글자를 읽고 쓰자요.

ㅋ	ㅌ	ㅍ	ㅎ
(키윽)	(티읕)	(피읖)	(히읗)
크	트	프	흐

◆ 《ㅏ ㅑ》줄에 맞추어 읽어보세요.



◆ 곱게 쓰세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 받침 《ㄱ, ㄴ, ㄹ, ㅁ, ㅂ, ㅅ, ㅇ 》을 붙여 읽어보세요.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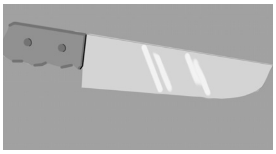
탁 탄 탈 탐 탑 탓 탕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콤	퓨	터

❖ 그림을 보면서 ☐안에 글자를 쓰고 읽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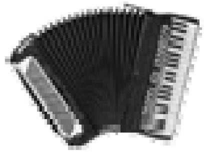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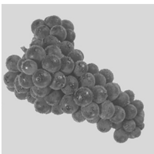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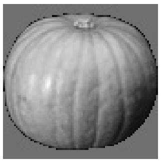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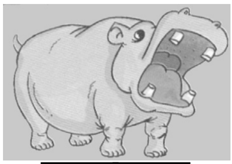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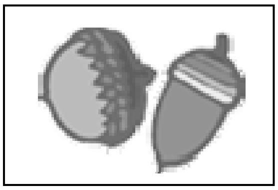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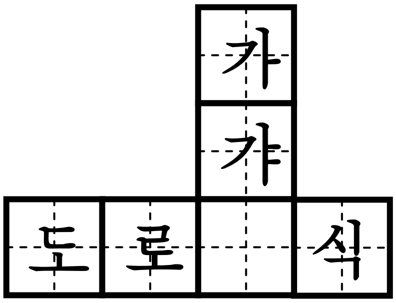
❖ 그림을 보고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쓰고 아래로, 옆으로 읽어보세요.



도		도
리		사











가갸표

모음/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문장을 읽고 쓰세요.

학생들이 콤퓨터를 다룹니다

❖ □안에 글자를 찾아 쓰고 읽어보세요.



영희는 □□□를 다룬다



옥이는 가야금을 □니다



누나는 □□□를 잘 □니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교과서그림을 보면서 대답해보세요.

▶ 학생은 콤퓨터를 다룰줄 압니까?

▶ 콤퓨터로 어떤것을 해보았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카캬》줄, 《타탸》줄, 《하햐》줄에 배운 받침글자들을 붙여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을 찾아 써보세요. (5개이상)

② 《하햐》줄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3개이상 만들어쓰세요.

실례: **호호호**

③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고사□병　　글작□　　□장국　　석□

④ 받아쓰세요.

누구나 콤퓨터를 다룰줄 알아야 합니다

포알이 날아간다

누나는 가야금을 타고 형님은 피아노를 칩니다

콩알이 정말 크지요

마우스를 움직이다

⑤ 《가갸표》를 만들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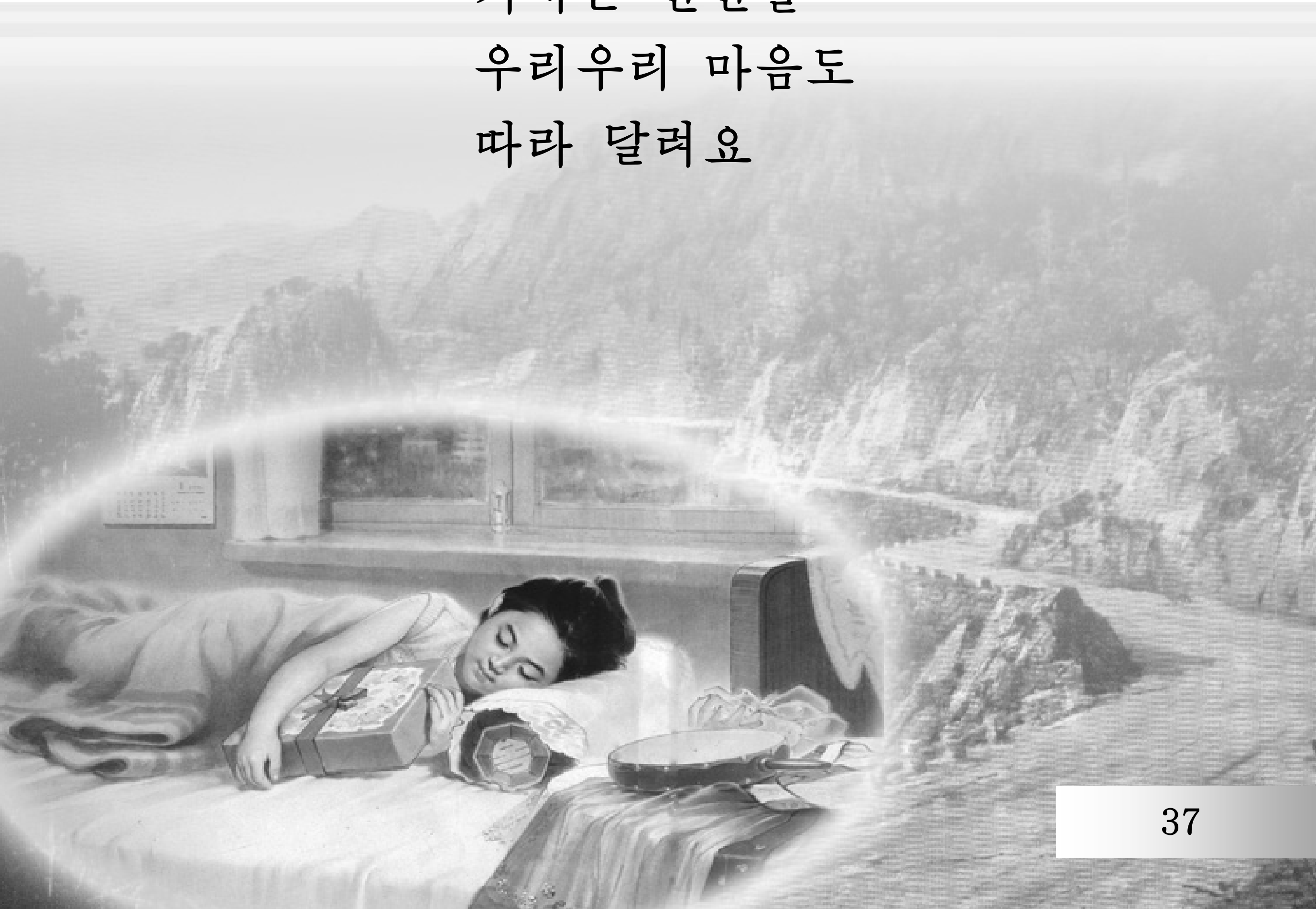
동무들은 앞으로 콤퓨터를 척척 다룰줄 알아야 합니다.

자음《ㅋ, ㅌ, ㅍ, ㅎ》이《ㅏ ㅑ》줄과 합쳐진 글자들을 잘 읽고 써야 합니다.

제 9 과
고 운 꿈

우리우리 고운 꿈
지켜주시려
오늘도 머나먼 길
가고가셔요

김정은선생님
가시는 전선길
우리우리 마음도
따라 달려요



새 글자를 배워요

❖ 《꿈》은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졌는가 찾아보세요.

ㄲ, ㅜ, ㅁ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자음 《ㄲ, ㄸ》을 읽고 쓰세요.

▶ 읽기

ㄲ	ㄸ
(된기윽)	(된디읃)
(끄)	(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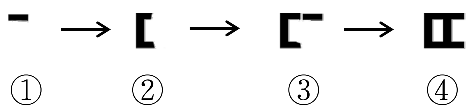
▶ 쓰기

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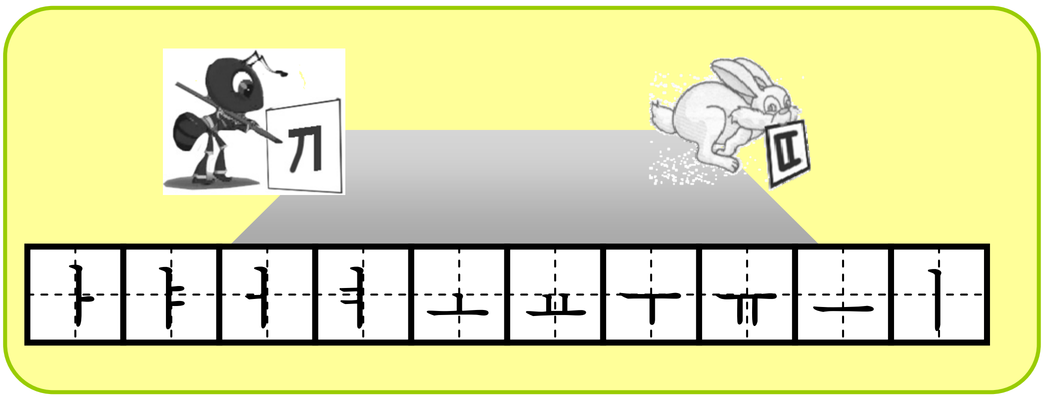
쓰기순서 ㄱ → ㄲ
① ②

ㄸ

쓰기순서



❖ 배운 자음을 《ㅏ ㅑ》줄에 붙여 읽어보세요.



❖ 《까꺄》줄, 《따땨》줄에 배운 받침글자를 붙여 읽어보세요.

까	꺄	꺼	껴	꼬	꾜	꾸	뀨	끄	끼

ㄱ ㄴ ㄹ ㅁ ㅂ ㅅ 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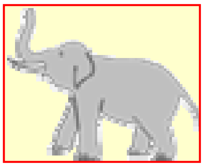
따	땨	떠	뗘	또	뚀	뚜	뜌	뜨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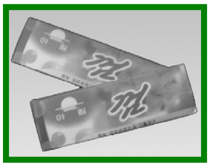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고운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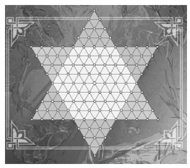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안의 글자를 찾아 읽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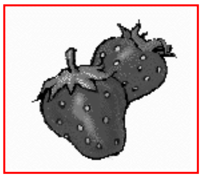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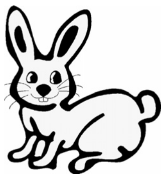




꼬마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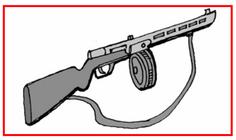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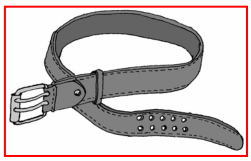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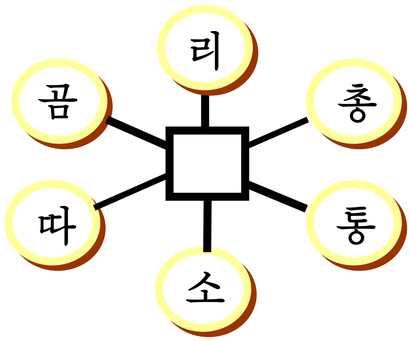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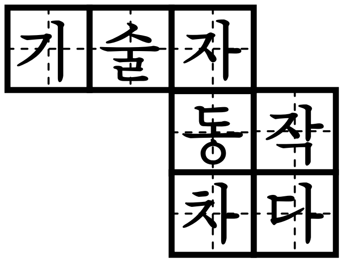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한줄씩 읽어 보세요.



❖ 옆으로, 아래로 읽고 써보세요.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읽고 쓰세요.

❖ 본문을 따라 읽어보세요.

❖ 어려운 글자를 새기면서 자체로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은 어떻게 읽을가요? 읽으면서 글자를 새겨보세요.

고운 꿈, 전선길, 마음도, 따라 걸어요, 지켜주시려

❖ 크게 읽으면서 《고운 꿈》을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우리우리 고운 □ 지켜주시려
김정은선생님 가시는 전선길
우리우리 마음도 □라 달려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들의 꿈은 어떤 꿈이라고 하였습니까?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단어를 이어보세요. 어떤 말이 될가요?

꿈을 〈 꾸다 / 가지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까, 따》로 시작하는 단어를 3개씩 찾아 쓰세요.

까— 까부시다

따— 따라가다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우리우리 고운 □
김정은선생님 가시는 전선□
우리우리 마□도 □라 달려요
□치가 날아난다
□을 씹으면 이발을 보호합니다

❖ 받아쓰세요.

우리 고운 꿈을 지켜주시는분
오또기가 오뚝오뚝
땀을 흘려요
훌륭한 딸을 축하해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지켜주시려고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십니다.

자음 《ㄲ, ㄸ》을 모음 《ㅏ ㅑ》줄에 붙여 잘 읽고 써야 합니다.

제 10 과
통 학 빼 스

통학빼스 씽씽
신이 나서 빵빵
짜락짜락 손벽치며
우리모두 타고가요

장군님 사랑안고
신이 나서 빵빵
기쁨넘친 우리 모습
자랑하며 빵빵



새 글자를 배워요

❖ 《통학빼스》를 읽고 새 글자를 찾아보세요.
❖ 자음 《ㅃ, ㅆ, ㅉ》을 읽고 쓰세요.

▶ 읽기

ㅃ	ㅆ	ㅉ
(된비읍)	(된시읏)	(된지읒)
쁘	쓰	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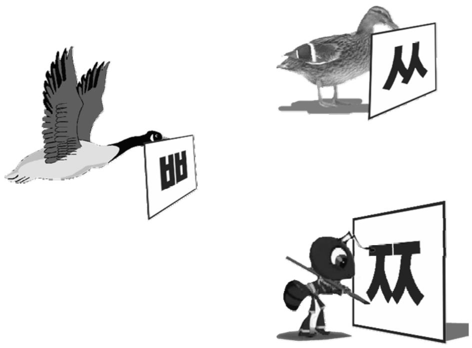
▶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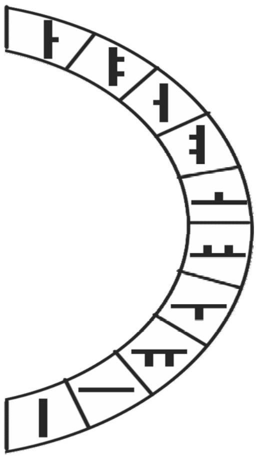
쓰기순서를 지켜쓰세요.



❖ 모음 《ㅏ ㅑ》줄을 붙여 읽고 쓰세요.

▶ 읽어보세요.





▶ 곱게 쓰세요.

세 운 글 자 들

빠				삐
	싸			
		쩌		

눕 힌 글 자 들

	뽀			쁘
		쑤		
쪼			쮸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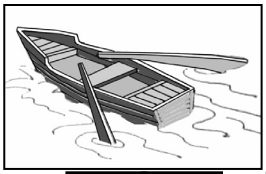
❖ 단어를 읽고 쓰세요.

통	학	빠	스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읽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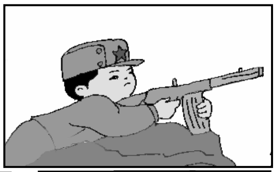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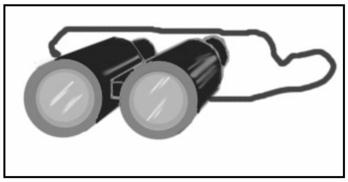
한□두뿜



총□기



□□



□□□



□각□



사진□기



□□



사슴□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생각하고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를 똑바로 읽으며 쓰세요.

손벽치며, 짜락짜락, 사랑안고, 신이 나서,
빵빵, 씽씽, 우리 모습

❖ 혼자서 읽으면서 본문을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보세요.

통학뻐스가 □씽 달려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통학뻐스는 어떤 뻐스일가요?
- 통학뻐스는 무엇을 자랑하며 빵빵 달릴가요?
- 통학뻐스를 배우면서 학생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본문을 자체로 크게 읽어보세요.

② 다음의 단어들을 바르게 읽고 쓰세요.

손벽, 기쁨넘치다, 통학뻐스 빵빵, 우리 모습

③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쓰세요.

빵을	**빵빵**
쌍안경으로	**만듭니다**
뻐스가	**뻐꾹뻐꾹**
뻐꾸기가	**봅니다**
딸기단물을	**먹습니다**

④ 받아쓰세요.

통학뻐스 씽씽 달려요.　　**씨름경기를 합니다.**

고운 천을 짤깍짤깍 짭니다.　　**너무 기뻐 손벽을 칩니다.**

고뿌로 콩우유를 마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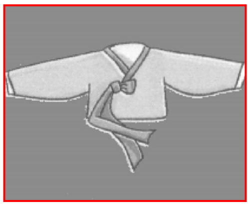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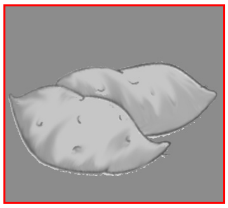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은정속에 학교길이 먼 학생들은 통학뻐스를 타고 다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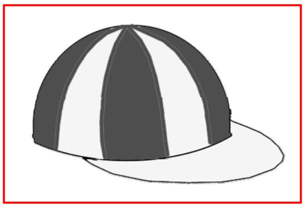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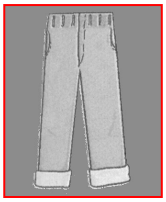
자음 《ㅃ, ㅆ, ㅉ》을 모음 《ㅏ ㅑ》줄에 붙여 막힘없이 읽고 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6과 — 10과)

① 그림의 이름을 써보세요.







② 그림들중에서 《바뱌》줄에 있는 글자들로 시작된 그림이름만 짚어보고 쓰세요.

③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눈사□을 만든다, 감□ 먹습니다, 수도를 □습니다, 여우가 □아난다, □님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④ 받아쓰세요.

축구열풍이 일다, 방직공누나들이 고운 천을 짭니다, 지금은 봄철입니다, 미국놈을 쳐부시며 꼬마땅크 나간다

⑤ 세 글자에 다 《ㄴ》받침이 있는 말을 5개 찾으세요.

실례: **인민군**

⑥ 곱게 쓰세요.

토	끼		딱	따	구	리

제 11 과
대 동 강



대동강 푸른 물 무얼 싣고 흐르나
아름다운 우리 평양 비껴안고 흐르지

대동강 푸른 물 무얼하며 흐르나
아름다운 우리 평양 노래하며 흐르지

얘들아, 대동강물 어디로 갈가
우리 나라 자랑안고 바다로 가지

새 글자를 배워요

❖ 《대동강》을 읽어보세요. 새 글자는 어느 글자일가요?

ㄷ ㅐ, ㄷ ㅗ ㅇ, ㄱ ㅏ ㅇ

❖ 모음 《ㅐ, ㅒ》를 읽고 쓰세요.

▶ 《ㅐ, ㅒ》는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졌을가요?

ㅏ + ㅣ = ㅐ　　　ㅑ + ㅣ = ㅒ

▶ 《애기》, 《얘들아》를 발음해보세요.

《ㅐ》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 달라집니까?

《ㅒ》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 어떻게 될가요?

소리내보세요.

▶ 읽으면서 쓰세요. 내리금의 길이를 잘 생각하며 쓰세요.

ㅣ ① ㅏ ② ㅐ ③ → ㅐ

ㅣ ① ㅏ ② ㅑ ③ ㅒ ④ → ㅒ

❖ 자음에 모음《ㅐ》를 붙여 읽어보세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 곱게 쓰세요.

개	내				새		채	
캐		패	깨	빼		째		
걔	얘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대	동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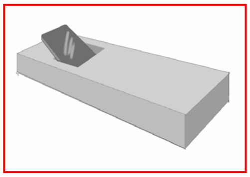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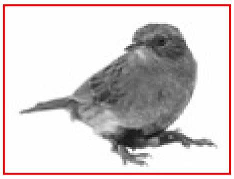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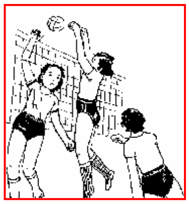

□□□


□


□□


□카


참□


□□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새기고 다시한번 읽고 쓰세요.

❖ 다음단어를 바로 읽고 곱게 쓰세요.

대동강, 얘들아, 아름다운, 비껴안고, 노래하며

❖ 밑줄을 그은 글자발음에 주의를 돌리면서 읽어보세요.

대동강 푸른 물
무얼 하며 흐르나
아름다운 우리 평양
노래하며 흐르지

❖ 본문을 읽으며 쓰세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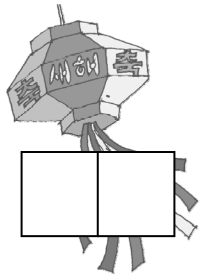
❖ 대동강 푸른 물은 어떻게 흐를가요? 본문에서 찾아 말해보세요.

❖ 대동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그림을 보고 말끄리잇기를 하세요.







새 → □□ → □□□

❖ 아래로, 옆으로 읽어보세요.

개	나	리		염
암		발	전	소
			가	

❖ 받아쓰세요.

래일 우리는 만경대견학을 갑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며 꽃이 피지요

얘들아, 백두산으로 어서 오르자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읽고 쓰세요.

대□강 푸른 물
비□안고 흐르지
□얼하며 흐르나
□들아, 어디로 갈가

□선문이 어디냐
진달□가 곱□ 핀 봄날
□가 쨍쨍 비쳐요
짜락□락 손벽치는 아이들



꼭 새겨두자요

대동강은 우리 평양의 자랑을 안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합친모음 《ㅐ, ㅒ》와 결합된 글자들을 막힘없이 읽고 쓸줄 알아야 합니다.

제 12 과
텔 레 비 죤



모두모두 오세요
텔레비죤 보자요
언제나 기다리는
보도시간이예요

들을수록 새힘 솟는
김정은선생님 소식
전선길 새 소식
정말정말 기쁜 소식

텔레비죤보도시간에는 온 나라, 온 세계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새 글자를 배워요

❖ 《텔레비죤》을 읽고 새로 배우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 모음 《ㅔ, ㅖ》를 읽고 쓰세요.

▶ 《ㅔ, ㅖ》는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졌을가요?

ㅓ + ㅣ = ㅔ　　　　ㅕ + ㅣ = ㅖ

▶ 읽어보세요.

《ㅔ》소리는 《어디에》를 발음할 때 《에》와 같은 소리입니다.
《ㅖ》소리는 《예》 하고 대답할 때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 글씨를 곱게 쓰세요.

ㆍ ㅓ ㅔ → ㅔ
① ② ③

ㆍ ㅑ ㅕ ㅖ → ㅖ
① ② ③ ④

❖ 자음에 모음 《ㅔ》, 《ㅖ》를 붙여 읽어보세요.



▶ 소리를 내여 읽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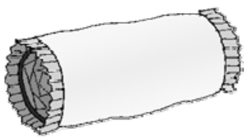
게					베				체
케			헤	께				쩨	
	계	례	예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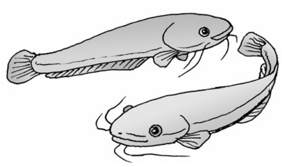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텔	레	비	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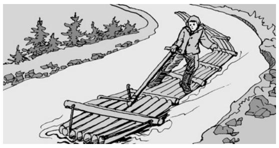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으세요.



□	□□	□□□	□기









□엽　□□　□□　□□

◈ 아래로 옆으로 읽고 쓰세요.

메 □ □ / 계 □ 기

□ 제 / 세 □ □ □ / 레 에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 읊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정확히 소리를 내면서 읽고 쓰세요.

전선길, 보도시간이예요, 오세요, 언제나,
기쁜 소식, 텔레비죤

◈ 자체로 읊으면서 본문을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텔□비죤보도시간은 우리들이 □일 기다리는 시간이□요

학생은 언제나 □절을 잘 지켜야 해요

김정은선생님의 은□로운 사랑속에 우리는 행복해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텔레비죤보도시간은 몇시인가요?

◈ 왜 텔레비죤보도시간을 기다릴가요?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 소식을 들으면 어떻다고 하였나요? 학생의 생각을 함께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헤》와 《혜》가 들어간 말을 2개이상씩 찾아보세요.

헤— 헤염, 헤치다, 헤가르다

혜— 은혜, 혜산

② 어제 텔레비죤보도시간에 들은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③ 문장이 되게 줄을 긋고 쓰세요.

교실은	**기릅니다**
언니는	**키웁니다**
해바라기를	**깨끗합니다**
양떼를	**예술인입니다**
게사니를	**봅니다**
베개를	**만듭니다**

④ 받아쓰면서 배운 글자를 새겨보세요.

강성부흥 내 나라 노래해요

텔레비죤에서는 이름난 체육인을 소개해요

류벌공이 떼목을 타고 물흐름을 따라내립니다

재간둥이 어린이들의 무대에요



꼭 새겨두자요

텔레비죤은 우리들에게 기쁜 새 소식도 전해주고 재미난 영화도 보여줍니다.

자음에 모음 《ㅔ, ㅖ》가 결합된 글자들을 잘 알고 읽고 써야 합니다.

제 13 과



꾀 꼴 새

꾀꼴꾀꼴 꾀꼴새가 노래불러요
아름다운 자기 노래 제일이라고
지저귀며 꾀꼴꾀꼴 노래불러요

꾀꼴새야 네 노래가 아름답다고
꾀꼴꾀꼴 우리에게 뽐내지 말아
희망넘친 우리 노래 제일이란다

새 글자를 배워요

❖ 《꾀꼴새》를 읽고 새로 배우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 모음 《ㅚ, ㅟ, ㅢ》를 읽고 쓰세요.

▶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보세요.

ㅚ → ㅗ, ㅣ　　ㅟ → ㅜ, ㅣ

ㅢ → ㅡ, ㅣ

▶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가요? 따라 읽어보세요.

《ㅚ》는 아래입술을 동그랗게 하면서 단번에 소리냅니다.

《ㅟ》는 웃입술을 동그랗게 오물면서 소리냅니다.

《ㅢ》는 입술을 옆으로 벌려《으》할 때와 같이 하였다가 더 힘을 주며 옆으로 벌려야 합니다.

▶ 곱게 쓰세요.

ㅣ ①　ㅗ ②　ㅚ ③ → ㅚ 외

ㅡ ①　ㅜ ②　ㅟ ③ → ㅟ 위

ㅡ ①　ㅢ ② → ㅢ 의

❖ 자음글자와 모음《ㅚ, ㅟ, ㅢ》가 결합된 글자를 읽고 쓰세요.

괴	뇌	되	뢰	뫼	뵈	뢰	쇠	외	죄	최	쾨	퇴	회	꾀
귀	뉘	뒤					쉬	위	쥐	취		튀	휘	뛰
	늬							의				틔	희	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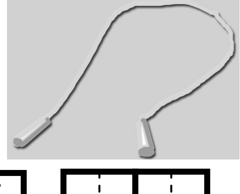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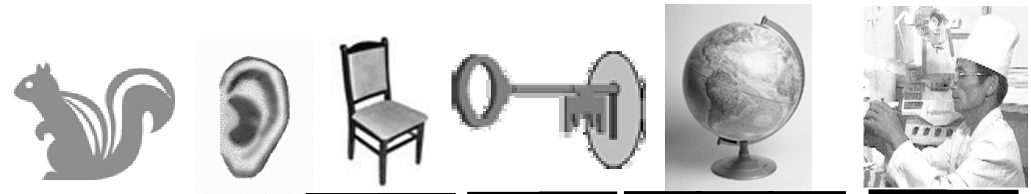
꾀꼴새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으세요.




□□		□□		□	국	□	람		□□		□□



□□□ □ □□ 열□ □□□ □□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삼촌, □생검열, □우등생, 바□, 참□, 지구□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따라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새겨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면서 읽고 쓰세요.

찌꿀찌꿀, 지저귀며, 희망넘친, 찌꿀새

❖ 자체로 읊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위, 희, 뛰, 뉘, 최, 띄》에서 찾으세요.

□가 든든해요

모두가 □우등생이 되자요

□여쓰기를 잘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우치다

복도에서 □여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의 □망은 무엇인가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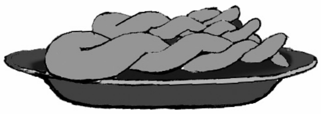
❖ 찌꿀새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일가요?

▶ 왜 우리의 노래가 제일이라고 하였을가요?

▶ 자기 생각을 함께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그림을 보고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기름□기　　□날리다　　□험

② 모음 《ㅚ, ㅟ, ㅢ》를 바로 읽으세요.

난 의사가 될테야　　**참외를 먹어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휘거경기가 재미나요**

③ 받아쓰세요.

꾀꼴새가 꾀꼴 우릴 반겨요　　**새들이 지저귀다**

의사선생님이 오시다　　**뛰줄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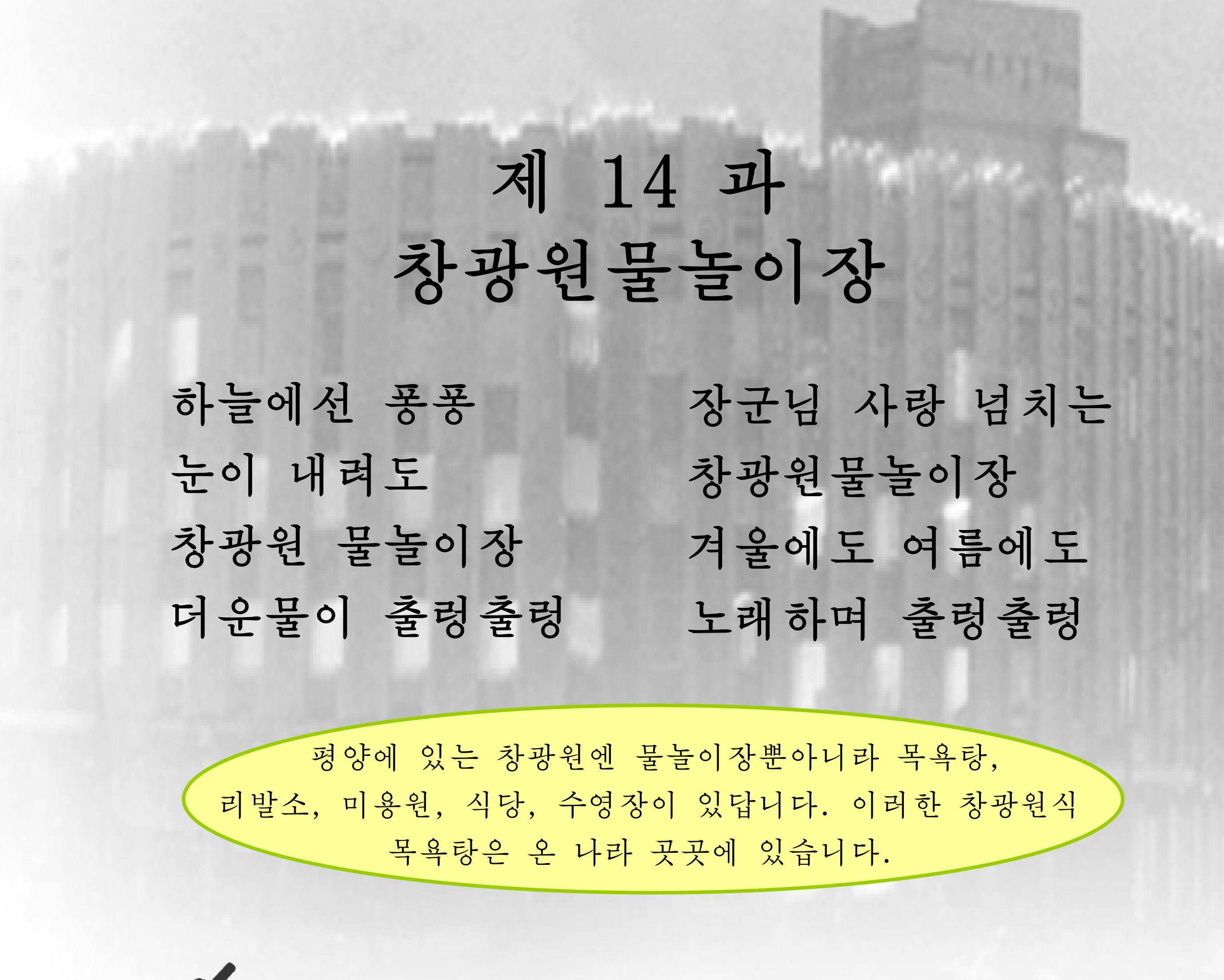
기차바퀴　　**고운 무늬천**



꼭 새겨두자요

꾀꼴새가 우는 소리도 곱지만 희망넘친 우리의 노래가 더 아름답습니다.

자음에 모음 《ㅚ, ㅟ, ㅢ》가 결합된 글자들을 잘 읽고 써야 합니다.



제 14 과
창광원물놀이장

하늘에선 퐁퐁
눈이 내려도
창광원 물놀이장
더운물이 출렁출렁

장군님 사랑 넘치는
창광원물놀이장
겨울에도 여름에도
노래하며 출렁출렁

평양에 있는 창광원엔 물놀이장뿐아니라 목욕탕, 리발소, 미용원, 식당, 수영장이 있답니다. 이러한 창광원식 목욕탕은 온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새 글자를 배워요

❖ 《창광원물놀이장》을 읽고 새로 배우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 모음 《ㅘ, ㅝ》를 읽고 쓰세요.

모음 《ㅘ, ㅝ》는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나요?

▶ 어떻게 소리내야 할가요?

《ㅘ》는 《와르릉》하고 소리낼 때 입모양과 같이 입술을 동그랗게 오무렸다가 벌리며 소리냅니다.

《ㅝ》는 입술을 오무렸다가 조금 내밀어 벌리며 소리냅니다.

▶ 어떤 순서로 쓸가요?

ㅗ + ㅏ = ㅘ,　ㅜ + ㅓ = ㅝ

❖ 자음에 모음 《ㅘ, ㅝ》를 붙이면 어떤 글자가 될가요? 글자를 새기며 읽고 써보세요.

과	놔	봐	솨	와	좌	촤	콰	화	꽈	똬	쏴
궈	눠	둬	뭐	워	줘	춰	쿼	훠	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창	광	원	물	놀	이	장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으세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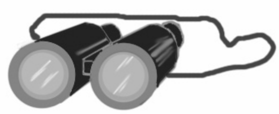
	영	기



	투		갑







망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 읊어보세요.

❖ 어려운 글자를 바로 읽고 쓰세요.

퐁퐁, 창광원, 더운물, 출렁출렁, 사랑넘치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 자체로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 소리내여 읊으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나라의 □은 우리 어린이들이예요

하늘로 □□ 날아가는 새

□산에서는 쇠돌을 캐지요

대동강□수종합농장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창광원물놀이장에는 눈오는 겨울에도 무엇이 출렁입니까? 왜 그럴가요? 자기 생각을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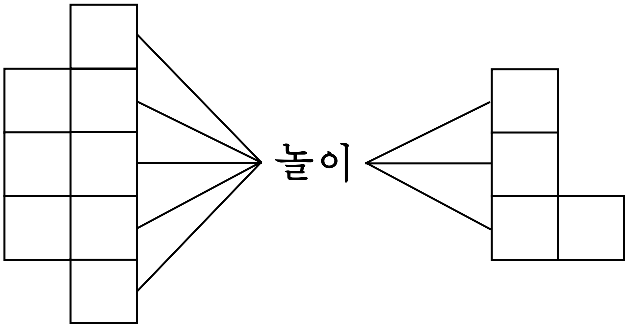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안에 모음 《ㅕ》가 들어간 글자를 찾아 쓰세요.

미□하다, 배□주다, 날이 어두□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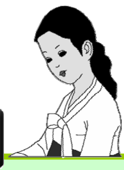
책을 □라, □주필, 나□먹다

❖ 《놀이》의 앞에, 뒤에 어떤 말을 쓸수 있을가요?



❖ 받아쓰세요.

창광원수영장에서 헤염을 배워요
겨울 여름 모르는 창광원
무산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아저씨
화물렬차
동물원구경 재미나요
망원경으로 먼산을 봐요
총을 쏴요
물이 콸콸 나와요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속에 훌륭히 꾸려진 창광원물놀이장은 눈오는 겨울에도 더운물 출렁이며 우리들을 반겨줍니다.

자음에 모음 《ㅘ, ㅝ》가 결합된 글자들을 잘 읽고 써야 합니다.

제 15 과
홰 불 행 진

로동당의 생일날인 10월 10일 명절의 밤입니다. 텔레비죤에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김일성**광장에서 있은 홰불행진장면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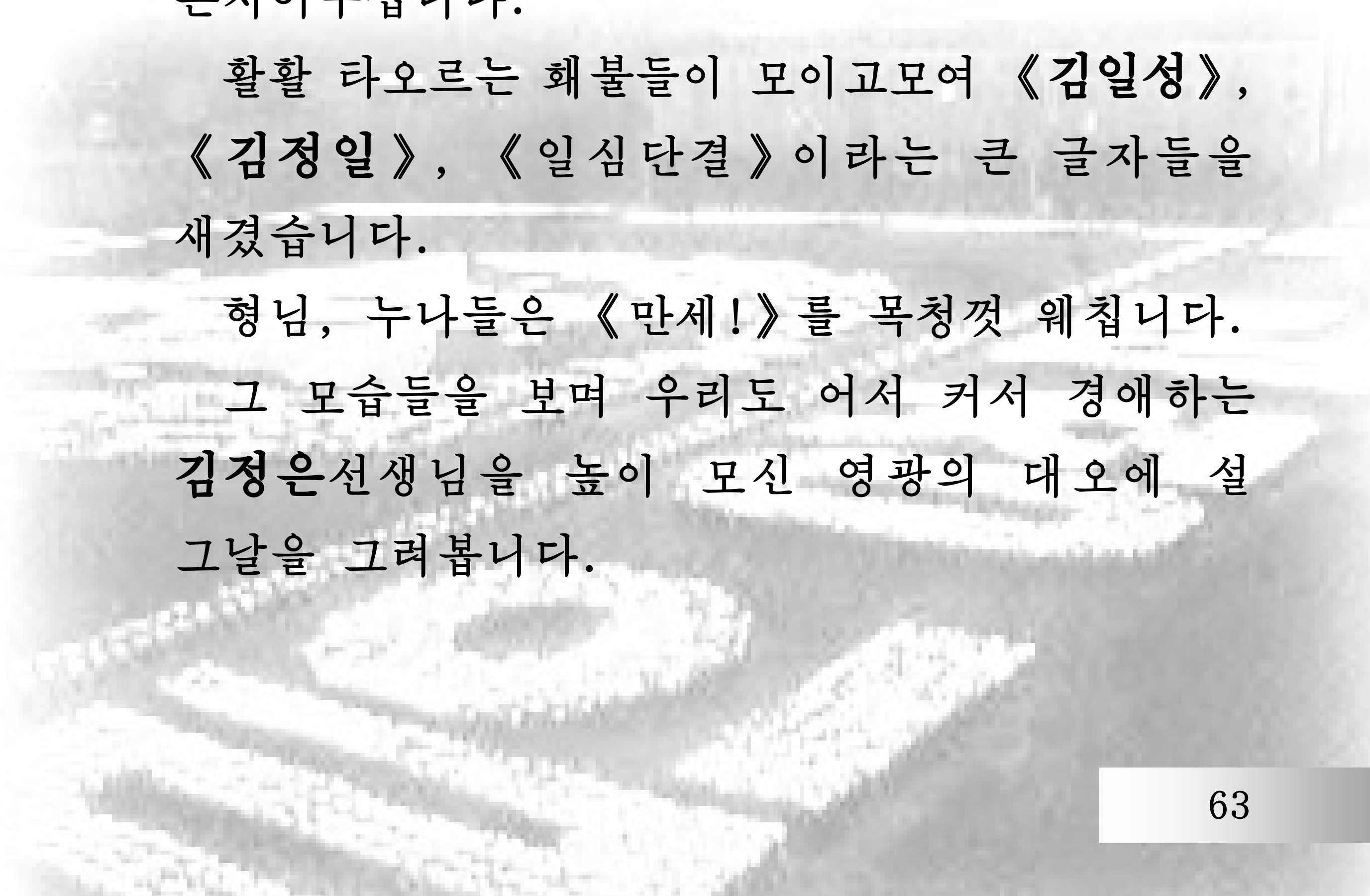
형님, 누나들이 손에손에 홰불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주석단에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손저어주십니다.

활활 타오르는 홰불들이 모이고모여 《**김일성**》, 《**김정일**》, 《일심단결》이라는 큰 글자들을 새겼습니다.

형님, 누나들은 《만세!》를 목청껏 웨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어서 커서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높이 모신 영광의 대오에 설 그날을 그려봅니다.



새 글자를 배워요

❖ 《홰불행진》에서 새 글자를 찾아보세요.

❖ 모음 《ㅙ, ㅞ》를 읽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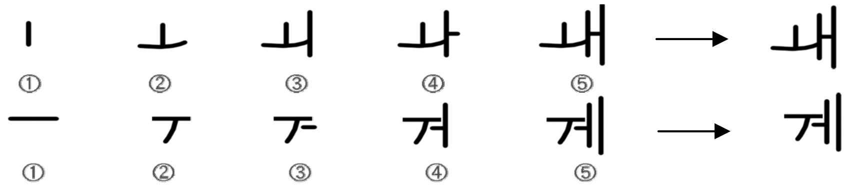
▶ 읽어보세요.

《ㅙ》소리는 입술을 둥그렇게 내밀었다가 크게 벌립니다.

《ㅞ》소리는 입술을 둥그렇게 모았다가 옆으로 벌립니다.

▶ 곱게 쓰세요.

쓰기순서를 지켜 써야 합니다.



❖ 자음이 모음《ㅙ, ㅞ》와 결합된 글자를 읽고 쓰세요.

괘	돼	쇄	왜	쾌	홰	꽤	뙈
궤	뒈		웨	췌	훼	꿰	

단어에서 시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홰	불	행	진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으세요.









곡		이

	가	리

❖ 그림을 보면서 말꼬리를 이어보세요.

□□ → □□□ → □□□□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를 따라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를 바르게 읽고 쓰세요.

하늘높이, 활활, 타오르는, 웨칩니다, 환히

❖ 본문을 다시한번 읽으면서 써보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불행진장면이 나옵니다.

형님, 누나들은 만세를 목청껏 □쳤습니다

❖ 어울리는 말끼리 줄을 그으세요.

돼지	**홰불**
보천보의	**목장**
궤기	**득점장면**
통쾌한	**밥**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텔레비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온다고 하였습니까?

❖ 주석단에는 어느분께서 서계십니까?

❖ 홰불이 모여 어떤 글자를 새겼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모음《ㅞ》가 들어간 말 5개이상 찾아 쓰세요.

ㅞ— 웨치다

②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고 읽으세요.

학교복도에서 뛰면 안□

보천보전투는 정말 통□하였다

□ 일일가요?

지주놈은 금□짝만 안고 달아났어요

③ 받아쓰세요.

창광원수영장에서 겨울 여름 모르는, 총을 쏴요, 헤염을 배워요, 무산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아저씨, 망원경으로 먼산을 봐요, 동물원구경 재미나요, 물이 콸콸 나와요, 화물렬차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높이 모신 홰불행진대오에 어서 커서 따라서고싶은것이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모음《ㅙ, ㅞ》와 결합된 글자들을 잘 읽고 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1과 — 15과)

① 지금까지 배운 모음글자들을 소리내여 불러보면서 쓰세요.

② 《ㅏ-ㅐ》《ㅑ-ㅒ》는 읽을 때 입모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③ 다음의 글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ㄱ) **홰, 타, 르, 불, 오, 다, 이**

ㄴ) **우, 생, 최, 등, 자, 이, 되, 요**

④ 어울리는 말에 줄을 그어보세요.

왜놈들이	**소리**
모내기	**뒈지다**
괴상한	**잡다**
통돼지를	**전투**

⑤ 받아쓰세요.

최우등생의 영예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갈매기가 날아옙니다

나라의 왕은 우리 어린이들이예요

광산에서 쇠돌을 캐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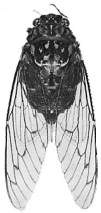
재간둥이 어린이들의 무대

샘물을 가지고 쇠물을 뽑아내는 용해공들한테 가지요

⑥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제	기	차	기	놀	이		새	해

⑦ 그림을 보면서 단어를 찾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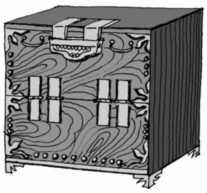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제 16 과
누가누가 닦았나

김일성대원수님
다녀가신 교시터
동글동글 조약돌
누가누가 닦았나

대원수님 따르는
우리 마음 담아서
알른알른 닦았지
우리모두 닦았지





교시터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하신 교시를 큰 화강석에 새겨 세운 사적비입니다.

새 글자를 배워요

❖ 제목을 읽어보고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본문에서 새 받침글자를 찾아 읽고 쓰세요.

받침 《ㄲ, ㅆ》의 이름이 무엇일가요?

ㄲ (된기윽)　　　**ㅆ** (된시읏)

❖ 새 받침이 있는 글자 《닦》, 《았》을 읽고 쓰세요.

▶ 읽어보세요.

닦 — 아 / 으니 / 아서

닦 — 고 / 다 / 지

닦(았) — 어 / 으니 / 다

▶ 곱게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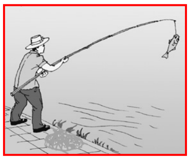
	닦		았		낚	
	묶		었		깎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곱게 쓰세요.

닦	았	나

❖ 그림을 보면서 새 받침글자가 들어간 단어글자를 찾아 쓰세요.



	았	



열		다



	다







□다　　잡□다　　□다

❖ 《ㄲ》, 《ㅆ》받침이 들어간 말을 찾아보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어보세요.

□
묶　　었다
□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어보세요.

❖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동글동글, 조약돌, 따르는, 닦았나, 담아서, 알른알른

❖ 밑줄 그은 단어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읽어보세요.

동<u>글</u>동<u>글</u>　조약<u>돌</u>

누가누가 <u>닦았</u>나

알<u>른</u>알<u>른</u>　<u>닦았지</u>

❖ 크게 읽으면서 본문을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김일성대원수님□서 다녀가신 우리 마을

교시터□ 조약돌□ 누가 □□을가

우리모두가 알른알른 □□단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우리 마을 교시터》는 어떤 곳입니까?
- 동글동글 조약돌은 어떤 돌일가요?
- 아이들은 왜 조약돌을 닦습니까?
- 본문을 배우고 생각하고있는것을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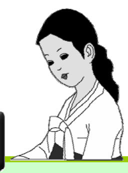
① 본문을 소리내여 읽어보세요.

② 《까, 꼬, 닦》을 곱게 쓰고 《ㄲ》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보세요.

③ 《동글동글》처럼 같은 말이 두번 반복되는 단어 10개를 찾아보세요.

④ 받아쓰세요.

우리모두 닦았어요 **나무단을 꽁꽁 묶었다**
책들을 끈으로 묶었다 **고기를 맛있게 볶아요**
꽃을 꺾으면 안돼요 **큰 고기를 낚았다**



꼭 새겨두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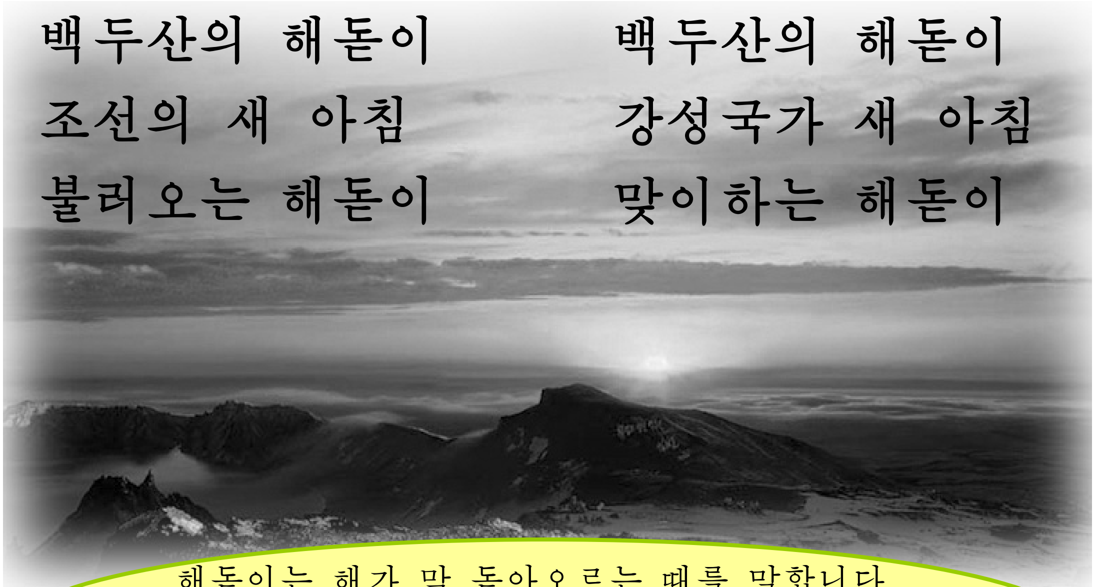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받드는 우리의 마음은 아침마다 알른알른 닦아가는 교시터의 조약돌마다에 비껴있습니다.

새 받침《ㄲ, ㅆ》이 들어간 글자들을 잘 읽고 써야 합니다.

제 17 과
해 돋 이

해돋이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
조선의 새 아침
불러오는 해돋이

해돋이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
강성국가 새 아침
맞이하는 해돋이



해돋이는 해가 막 돋아오르는 때를 말합니다.
조선의 아침은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의 해돋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새 받침글자 《ㄷ, ㅈ》을 읽고 쓰세요.

ㄷ	ㅈ
(디읃)	(지읒)

▶ 받침 《ㄷ》이 오는 글자를 읽어보세요.

돋 — 아 / 으니 / 았습니다 / 으려고

돋 — 고 / 다 / 지

▶ 받침 《ㅈ》이 오는 글자를 읽어보세요.

맞 — 아 / 으니 / 았습니다 / 으려고

맞 — 고 / 다 / 지

《ㄷ》받침뒤에 모 음《이》가 오면 《ㄷ》소리가 《ㅈ》소리로 달라집니다.

해돋이-[해도지] [해도디]　　맏이-[마지] [마디]

○　×　○　×

▶ 곱게 쓰세요.

돋		맞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곱게 쓰세요.

해	돋	이

❖ 그림을 보면서 새 받침글자가 들어가게 말을 만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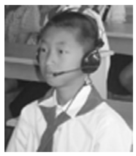
(모를) □다



가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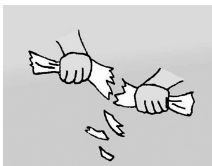
□은 나무



(록음을) □다



(짐을) □다



(종이를) □다



(비를) □다



(물을) □다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에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해돋이, 백두산의, 불러오는, 맞이하는, 조선의

❖ 새 받침글자를 주의하면서 이 과를 두줄씩 따라읊어보세요.

❖ 본문을 크게 읊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백두산의 해□□는 조선의 새 아침을 불러오고 강성국가의 새 아침을 □이하는 □□□입니다.

대동강의 해□이 가자.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백두산의 해돋이는 어떤 아침을 불러오는 해돋이라고 하였습니까?

❖ 백두산의 해돋이는 어떤 아침을 맞이하는 해돋이라고 하였습니까?

알아둡시다

첫날 → 이튿날 → 사흘날 → 나흘날 → 닷새

그제 ← 어제 ← 오늘 ← 래일 ← 모레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ㄷ, ㅈ》받침이 있는 말을 각각 10개씩 찾아 쓰고 읽으세요.

ㄷ— 받다　　　　ㅈ— 빚다

② 다음말들에 줄을 그어 문장이 되게 하세요.

해돋이를	**먹어요**
새 아침을	**바라보다**
곶감을	**맞이하다**
보물을	**뻗어있다**
수삼나무가	**맞다들다**
원쑤와	**곧바르지요**
철길이	**찾습니다**

③ 받아쓰세요.

백두산의 해돋이는 강성국가 새 아침을 맞이하는 해돋이입니다

모내기철에는 벼모를 논에 꽂아요

보물찾기놀이

가을걷이 신나요

뽈을 머리로 받아넘기는 형님

설겆이를 돕다

지주놈에게 빚진 콩

엊그제부터 계속 비가 온다



꼭 새겨두자요

백두산의 해돋이는 조선의 새 아침을 불러오는 해돋이입니다.
새로운 받침《ㄷ, ㅈ》이 있는 단어를 잘 알고 써야 합니다.

동요

제 18 과
나는야 꽃봉오리

김 승 길

나는야 꽃봉오리 꽃망울 꽃망울
봄바람 불어와 날 피워줄가
꿀벌나비 날아와 날 피워줄가
아니예요 아니 원수님사랑
나를 방긋방긋 피워주어요
아 나는야 조선의 꽃봉오리

꽃망울 그속에 감춰둔 꽃향기
꽃필 때 그 향기 누구를 줄가
꿀벌나비 너에게 안기여줄가
아니예요 아니 원수님께
향기 가득가득 안겨드릴래
아 나는야 조선의 꽃봉오리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을 읽고 처음 배우는 받침글자를 찾아보세요.

❖ 새 받침글자 《ㅊ, ㅋ》을 읽고 쓰세요.

ㅊ (치읓) **ㅋ** (키읔)

❖ 읽어보세요.

받침 《ㅊ》이 오는 글자

꽃 — 을 / 으로 / 이 / 에

받침 《ㅋ》이 오는 글자

부엌 — 을 / 으로 / 이 / 에

❖ 곱게 쓰세요.

꽃		엌

단어에서 서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나	는	야		꽃	봉	오	리

❖ 그림에서 《ㅊ, ㅋ》받침글자가 들어간 말을 찾아보세요.





돛



	놀	이



□□쪼이기



부□

❖ 그림에서 꽃봉오리를 찾아보세요.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꽃봉오리, 꽃망울, 피워줄가, 불어와, 방긋방긋, 안기여줄가, 감춰둔, 아니예요

❖ 본문을 자체로 소리내여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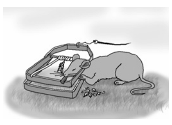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며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고 문장을 읽어보세요.



목란□이 활짝 피였다



어머니가 부□일을 하신다



쥐가 □에 걸렸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봄바람, 꿀벌나비는 어떤 일을 할가요?
❖ 어느분이 꽃망울을 피워준다고 하였습니까?
❖ 꽃망울속에 감추었던 꽃향기를 어느분께 드리겠다고 하였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ㅊ, ㅋ》받침이 있는 단어를 5개씩 찾아 쓰세요.

② 본문에서 모음 《ㅐ, ㅔ, ㅖ, ㅘ, ㅝ》가 들어간 말을 찾아 쓰세요.

③ 다음글자들에서 《ㅊ》의 쓰기자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 쓰세요.

처	음		총		꽃		해	빛

④ 다음의 말들을 문장으로 이어보세요.

나는, 심고, 가꿉니다, 많이, 고운 꽃

⑤ 받아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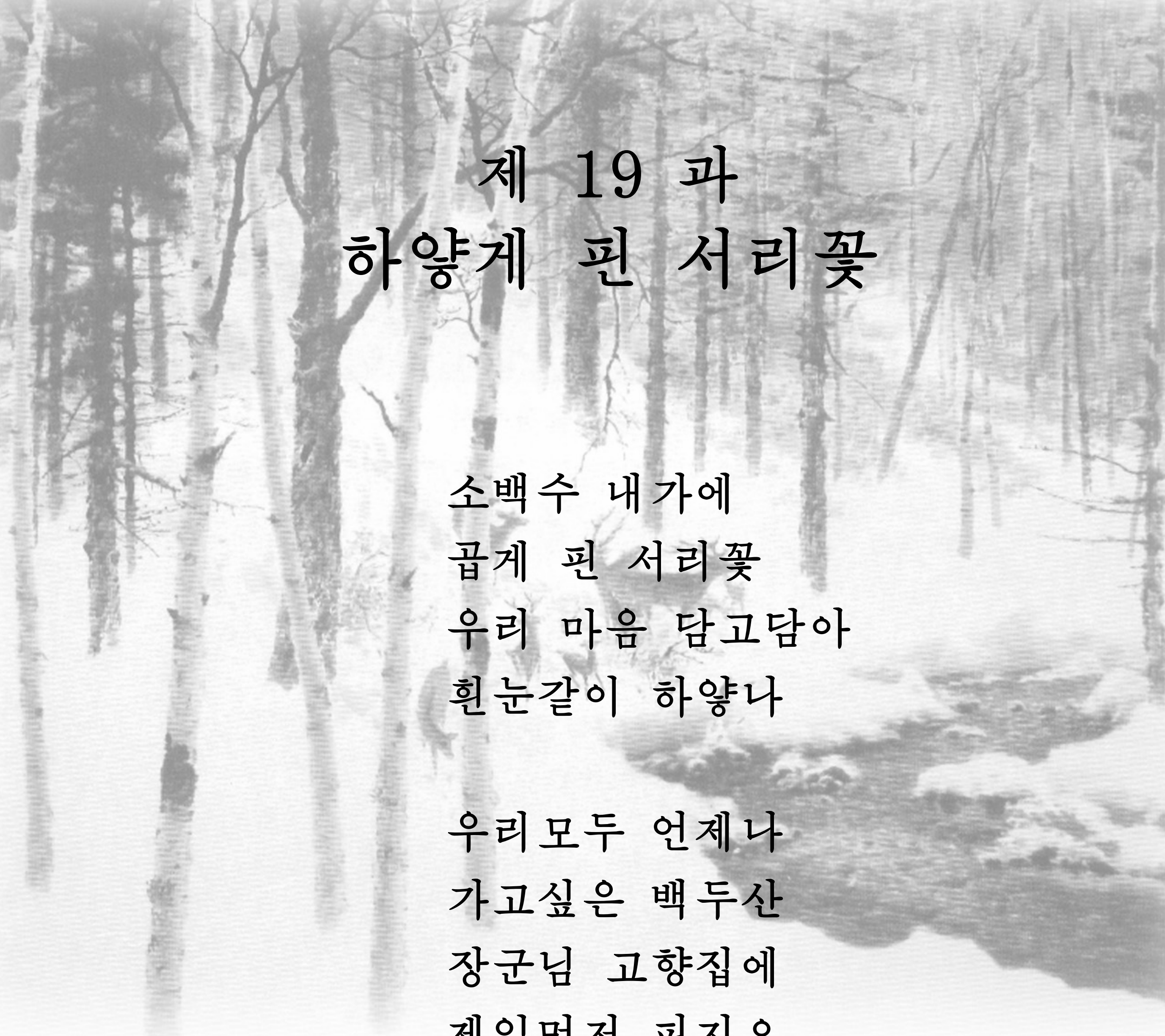
꽃망울속에 감춰둔 꽃향기예요
아니예요 방긋 피워주어요
윷놀이가 재미납니다
부엌에서 나오다
닻을 올린 배



꼭 새겨두자요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향기만을 가득가득 안겨드릴 조선의 꽃봉오리입니다.

새로운 받침《ㅊ, ㅋ》이 들어간 글자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19 과
하얗게 핀 서리꽃

소백수 내가에
곱게 핀 서리꽃
우리 마음 담고담아
흰눈같이 하얗나

우리모두 언제나
가고싶은 백두산
장군님 고향집에
제일먼저 피지요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받침글자를 찾아보세요.
❖ 새 받침글자 《ㅌ, ㅍ, ㅎ》을 읽고 쓰세요.

ㅌ	ㅍ	ㅎ
(티읕)	(피읖)	(히읗)

▶ 어떻게 읽는가 보세요.

흰눈같 < 아 / 으니 / 아서 / 아요

좋 < 다 / 고 / 지

가고싶 < 어 / 으니 / 어서 / 어요

흰눈같 < 다 / 고 / 지

좋 < 아 / 으니 / 아서 / 아요

가고싶 < 다 / 고 / 지

▶ 곱게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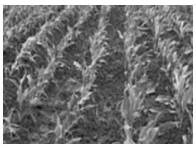
얗		밭		싶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하	얗	게		흰		서	리	꽃

❖ 그림에서 《ㅌ, ㅍ, ㅎ》받침글자가 들어간 말을 찾아보세요.



□

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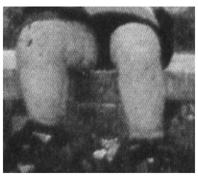
□기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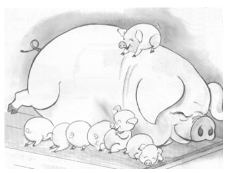
무□



□은 하늘



□다



(새끼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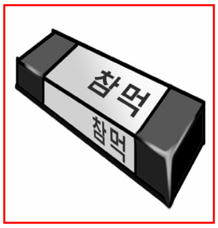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말들인가 생각하세요.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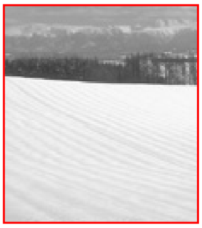

얕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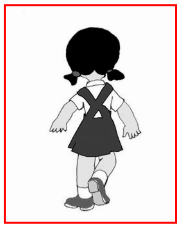

낮다



까맣다


하얗다


앞


뒤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서리꽃, 내가에, 흰눈같이, 담고담아, 백두산,
하얗나, 가고싶은, 고향집에

◈ 밑줄을 친 글자발음에 주의하면서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 담고담아 **우리모두 언제나**
흰눈같이 하얗나 **가고싶은 백두산**

◈ 본문을 자체로 읽어보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고 읽어보세요.

련□이 피여났다
나무□이 떨어지다
나무가지에 서리꽃이 하□게 폈다
바□에서 놀아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소백수 내가에 피여난 서리꽃은 왜 하얀가요?
- 우리모두가 언제나 가고싶은 곳은 어디일가요?
- 서리꽃이 제일먼저 피는 곳은 어디일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받침 《ㅌ, ㅍ, ㅎ》이 들어간 말을 5개씩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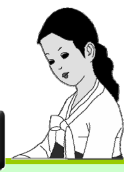
② 백두산3대장군들의 고향집이름들을 쓰고 불러보세요.

③ 받아쓰세요.

눈이 하얗습니다
소백수 내가에 하얗게 서리꽃이 폈어요
늪에 나가 고기를 낚아요
밭곡식의 왕은 강냉이랍니다
머리카락은 까맣다
내 옆동무와 같이 공부합니다

④ 어울리는 말끼리 줄을 긋고 쓰세요.

물을	**깃을 펴다**
새가	**길다**
밥을 먹다가	**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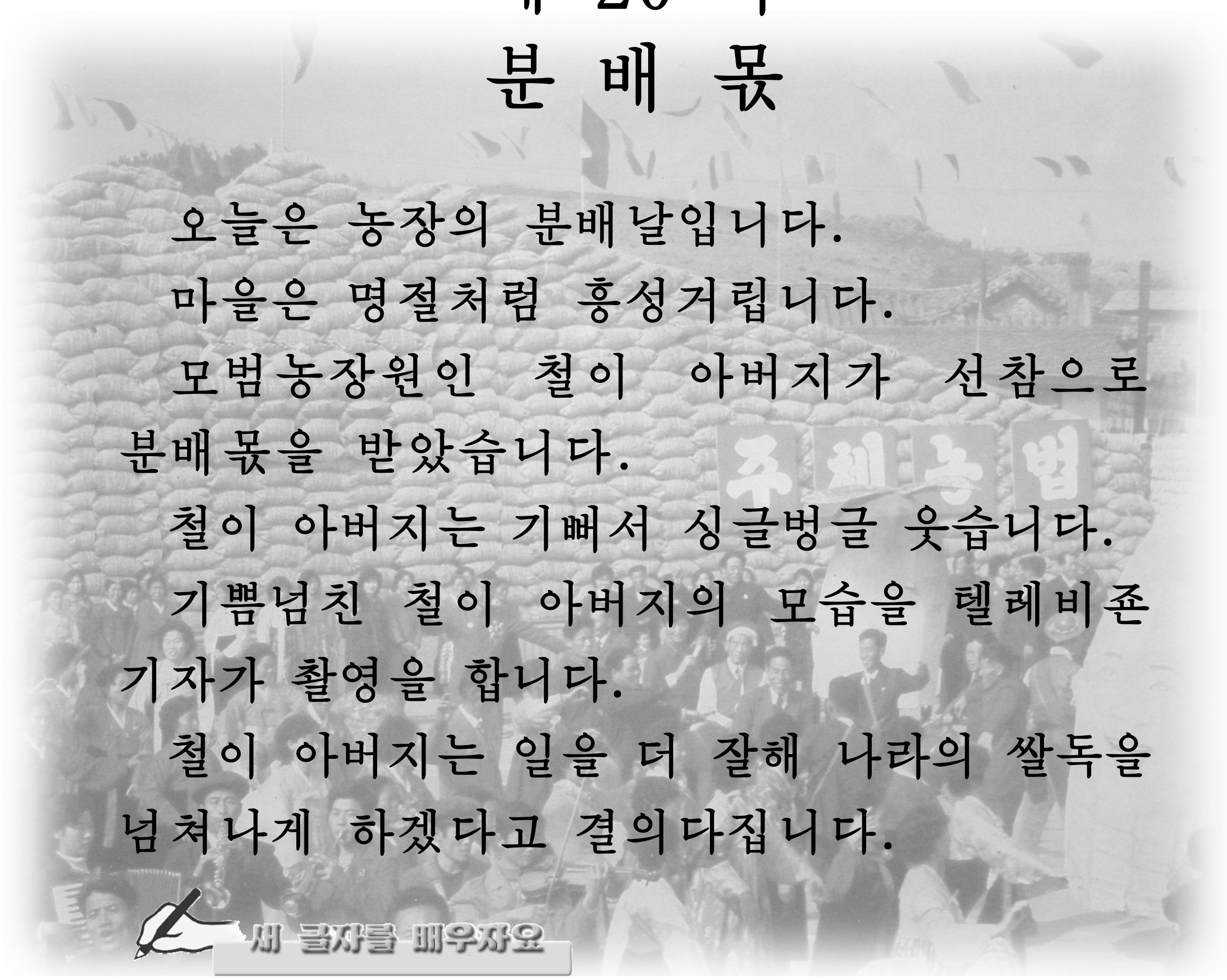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정일봉고향집에 제일 먼저 피여난 서리꽃은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드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받침《ㅌ, ㅍ, ㅎ》이 들어간 글자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0 과

분 배 몫



오늘은 농장의 분배날입니다.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거립니다.

모범농장원인 철이 아버지가 선참으로 분배몫을 받았습니다.

철이 아버지는 기뻐서 싱글벙글 웃습니다.

기쁨넘친 철이 아버지의 모습을 텔레비죤기자가 촬영을 합니다.

철이 아버지는 일을 더 잘해 나라의 쌀독을 넘쳐나게 하겠다고 결의다집니다.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받침글자를 짚어보세요.

❖ 새 받침글자 《ㄳ》을 읽고 쓰세요.

ㄳ

(기윽시읏)

《ㄳ》처럼 두개의 자음이 모인 받침을 둘받침이라고 합니다.

❖ 둘받침 《ㄳ》이 오는 글자를 읽어보세요.

몫 — 에 / 을 / 과 / 도

❖ 곱게 쓰세요.

몫		넋		삯

《삯》은 남의 일을 해주고 받는 값이란 말입니다.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분	배	몫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둘받침글자를 찾아 쓰세요.



아동단원들의 □이
깃든 붉은 넥타이



꼭 같은 세□

《넋》이란 말은 정신이란 말과 같습니다.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며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분배몫을, 흥성거립니다, 선참으로, 받았습니다, 결의다졌습니다, 한해,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쌀독

❖ 본문을 자체로 읽어보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세요.

학습장을 네□으로 꼭같이 나누어요

영웅들의 □은 살아있어요

머슴아이는 일한 품□도 받지 못해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철이 아버지는 왜 싱글벙글 웃었습니까?

❖ 텔레비죤기자앞에서 철이 아버지는 어떤 결의를 다졌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ㄳ》받침이 있는 단어들을 찾아 쓰세요.

② 아래의 받침글자에서 《ㄱ》을 쓰는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살펴보고 설명하세요.

곡	갉	아	먹	다	몫

③ 《싱글벙글》처럼 웃는 모양을 나타낸 말을 3개 찾아 쓰세요.

④ 어울리는 말끼리 줄을 긋고 쓰세요.

분배몫을	
삯바느질을	**하다**
품삯을	**받다**
삯빨래를	

⑤ 받아쓰세요.

우리 집은 제일 선참으로 분배몫을 받았어요
지난날 할머니들은 삯빨래를 하였어요
네몫까지 우리가 할테야
영웅들의 넋을 따라배워요



꼭 새겨두자요

새로운 둘받침 《ㄳ》이 있는 글자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6과 — 20과)

① 받침《ㄷ, ㅈ, ㅊ, ㅎ, ㅌ, ㅍ, ㅋ》이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쓰세요.

ㄷ—　　　　　　ㅌ—

ㅈ—　　　　　　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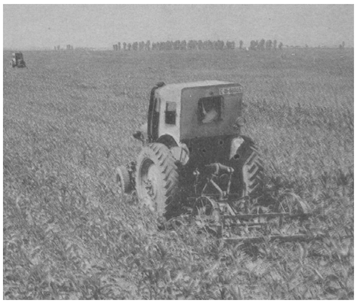
ㅊ—　　　　　　ㅋ—

ㅎ—

② 다음의 말들을 가지고 간단한 문장을 만드세요.

숟가락　　　　**쫓다**

③ 그림을 보고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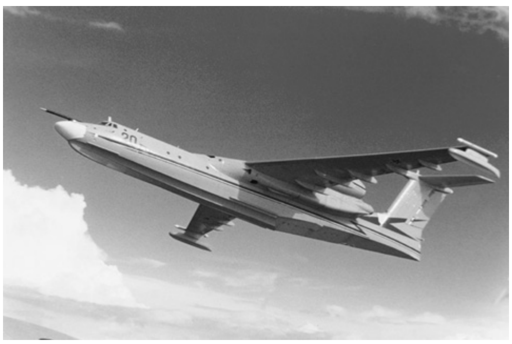
□을 갑니다



□가락을 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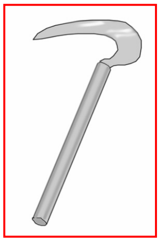


웃음□이 핍니다



비행기가 하늘□이 날아갑니다

⑤ 그림을 보고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으면서 쓸 때와 읽을 때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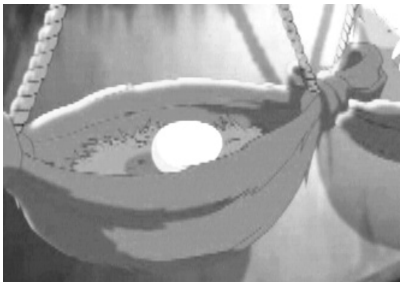
□



□



□알



알을 □다

⑥ 받아쓰세요.

동생의 몫까지 내가 하겠어요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어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가을에는 나무잎이 떨어져요
남녘땅동무들은 북녘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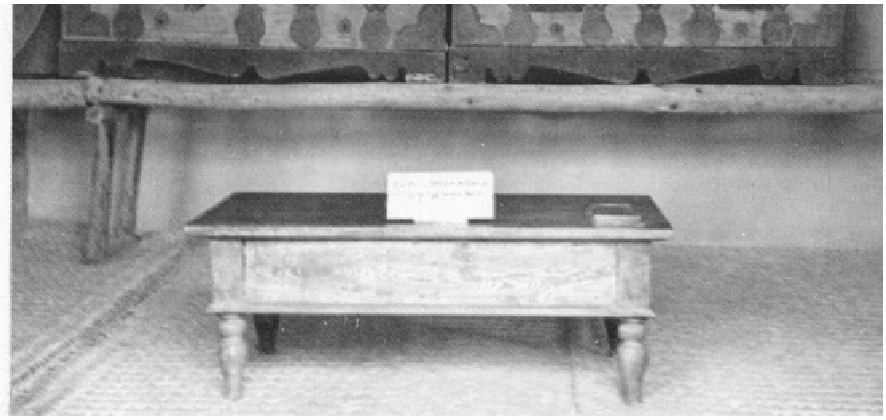
제 21 과
고향집의 앉은책상



만경대고향집
앉은책상에서
김형직선생님 쓰시였지요
《지원》의 글발

만경대고향집
앉은책상에서
김일성대원수님 쓰시였지요
《조선독립》 글발

만경대고향집
앉은책상에서
김정일대원수님 쓰시였지요
《**김일성**장군 만세!》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 《ㄵ》을 읽고 쓰세요.

ㄵ
니은지읒

▶ 읽어보세요.

앉 ─ 아 / 았다 / 으니 / 아서 / 아라

앉 ─ 다 / 고 / 지 / 게

▶ 곱게 쓰세요.

앉		앉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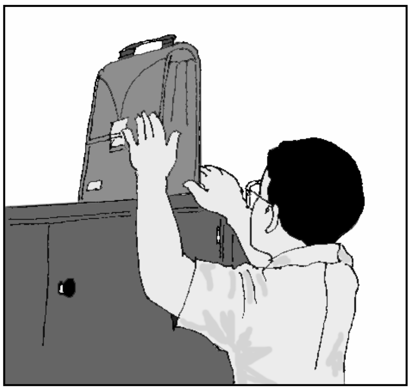
❖ 단어를 읽고 쓰세요.

고	향	집	의		앉	은	책	상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둘받침글자를 찾아 쓰세요.



(의자에) □다



(가방을) □다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고향집, 앉은책상에서,
쓰셨지요, 글발, 큰뜻

❖ 밑줄을 친 글자의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읽어보세요.

만경대고향집
앉은책상에서
김정일대원수님 쓰시였지요

❖ 본문을 자체로 읽어보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의자에 □아 공부 해요
책장에 책을 □어 넣었다
이불을 곱게 개서 □자요
제비들이 전선줄에 □아있어요
손을 허리에 □고 서있다
□은책상에 앉아 숙제를 해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앉은책상에서 어떤 글을 쓰셨습니까?

❖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앉은책상에 앉아 쓰신 글을 말해보세요.

❖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앉은책상에 앉아 쓰신 글을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 만경대고향집 앉은책상은 어떤 책상이라고 말할수 있을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만경대고향집의 앉은책상에서 쓰신 글발은 어떤 글자들로 되여있습니까?

② □안에 《ㄵ》받침이 있는 말들을 넣어쓰세요.

당반우에 가방을 □□□

공원의자에 □□ 책을 읽어요

수영하기 전에는 먼저 물을 몸에 끼□□야 합니다

③ 받아쓰세요.

만경대고향집의 앉은책상

지원의 글발

이불장에 이불을 개여얹었다

④ 다음 2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ㄱ) **걸상, 앉다**

실례: **나는 걸상에 앉아 책을 봅니다.**

ㄴ) **얹다, 가방**



꼭 새겨두자요

만경대고향집 앉은책상은 대대로 애국의 큰뜻어린 책상입니다. 새로운 둘받침《ㄵ》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2 과
복 많 은 나 라



해빛밝은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
재미나는 글공부
배워주고요

병날세라 똑똑똑
의사선생님
왕진가방 들고서
찾아오지요



무료교육 무상치료
복이 넘치는
우리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장군님 꽃피워주신
복많은 나라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보지요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을 읽고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 《ㄶ》을 읽고 쓰세요.

ㄶ
니은히읗

무료교육, 무상치료는 나라에서 돈을 받지 않고 거저 공부시키고 또 거저 치료해준다는 말이예요.

▶ 읽어보세요.

많	아 / 으니 / 아서
많	다 / 고 / 지

▶ 곱게 쓰세요.

많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복 많 은 나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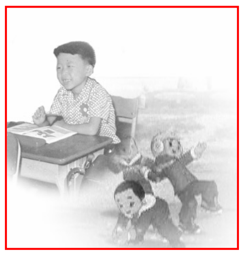
❖ 그림에서 □안에 알맞는 새 받침글자를 쓰세요.



(사람들이) □다



(철쇄를) □다



(놀지) □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복많은, 글공부, 배워주고요, 병날세라,
찾아와요, 살기 좋은, 부러워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따라읽고 쓰세요.

재미나는 글공부 **복많은 나라**
배워주고요 **온 세상이 부러워**
왕진가방 들고서 **집을 찾아와요**

❖ 본문을 자체로 읽어보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새 받침글자를 쓰세요.

□은 복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
숙제를 하지 □는 학생은 모범학생이 아니예요
영수가 그린 그림이 제일 괜□아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오래 사는것,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것, 자식을 공부시켜 훌륭하게 키우는것, 살림이 넉넉한것을 복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 우리 나라를 왜 복많은 나라라고 하는지 생각하여 말해보세요.

❖ 물음에 따라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 해 잘 드는 교실에서는 누가 공부를 배워줍니까?
▶ 왕진가방을 들고 의사선생님이 왜 오셨을가요?
▶ 우리 나라를 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가요?
▶ 학생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있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읽을 때 둘받침뒤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생각해보세요.

앉다, 않다, 얹다, 끊다, 많다

② 《ㄶ》받침이 들어간 단어를 5개 찾아보세요.

③ 바로 읽고 곱게 쓰세요.

전화줄이 끊어졌어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다

④ 문장이 되게 줄을 긋고 쓰자요.

먹지	
놀이감이	
바줄을	**많다**
사람들이	**끊다**
실을	**않다**
쇠줄을	
책이	
놀지	

⑤ 받아쓰세요.

재간둥이들이 많아요,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실이 끊어져 다시 이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는 참으로 복이 많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나라입니다.
새로운 둘받침 《ㄶ》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3 과
붉은 흙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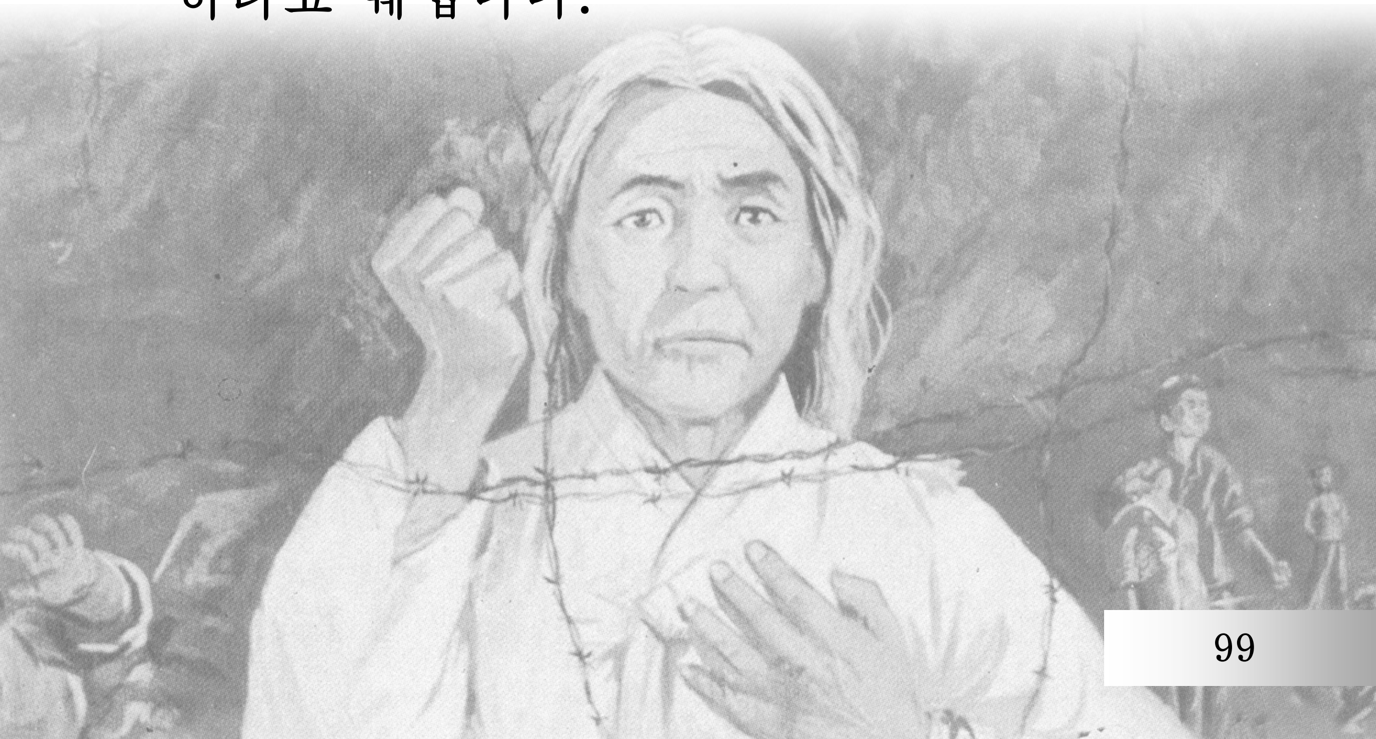
신천땅에 미국놈들이 기여들어왔습니다.

미국놈들은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 마구 총으로 쏘고 강물에 처넣어 죽였습니다.

집짐승들을 몽땅 빼앗아가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이 흘리는 피에 흙도 강물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신천땅은 오늘도 미국놈들을 기어이 복수하라고 웨칩니다.



새 글자를 배우자요

❖ 본문에서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ㄺ》을 읽고 쓰세요.

ㄺ

(리을기윽)

▶ 읽어보세요.

흙 — 에 / 이 / 은 / 으로

흙 — 도 / 까지

▶ 곱게 쓰세요.

붉		흙		맑		슭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자요.

붉	은		흙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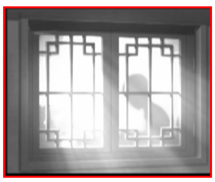

(물이) □다


(책을) □어요


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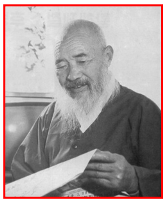

(나무가) □다


□


(방안이) □구나



□은기가 (휘날려요)



□으신 (할아버지)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자요.

붉은 흙, 늙은이, 처넣어죽이다, 빼앗아가고
흙도 붉게 물들다, 웨쳤습니다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읽으세요.

미국놈들은 늙은이와 어린이까지 마구
총으로 쏘고 강물에 처넣어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흘리는 피에 흙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 본문을 한 문장씩 따라읽어보세요.

❖ 본문을 자체로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고 푸른 조국의 하늘
오빠는 책을 □고 있어요
신천땅의 □은 피로 □게 물들었어요
□고 □은 넥타이
□이 모이를 쫏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이 이야기는 어느때 있은 일입니까?

❖ 신천땅의 흙은 왜 붉어졌을가요?

❖ 학생은 본문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다지였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ㄺ》받침이 있는 말을 10개 찾아보세요.

②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쓰세요.

□□이 ＼ 　　 ／ 은□□
　　　　　 맑
　 □이 ／ 　　 ＼ 은□□□

③ 받아쓰세요.

텔레비죤련속극 《붉은 흙》　한줌의 흙
강기슭을 따라 걷습니다　나무밑둥이 굵다
칡은 토끼가 잘 먹어요　소잔등을 긁어주다

④ □안에 알맞는 새 받침글자를 넣어 읽고 쓰세요.

공부는 □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웃물이 □아야 아래물도 맑다

⑤ 글자쓰기에서 무엇이 다른가 찾아 보세요.

굵은 나무　　머리를 긁다

《긁다》와 《굵다》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머리를
□□을
손등을　　> **긁다**
□을

나무가
□이　　> **굵다**
팔이



꼭 새겨두자요

미국놈들은 우리 나라의 신천땅을 사람들의 붉은 피로 물들인 철천지원쑤입니다.

새로운 둘받침 《ㄺ》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4 과

젊 어 진 대 요



비전향장기수
할아버지들
소년궁전 우리들을
찾아오신 날



당실당실 노래춤
보여드리니
덩실덩실 너무 기뻐
춤을 추겠지

김정일장군님
품에 안겨 젊어진다며
아이되여 우리 함께
춤을 추었지요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을 읽고 새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를 읽고 쓰세요.

ㄻ

리을미음

▶ 읽어보세요.

젊 — 어 / 으니 / 어서 / 었다

젊 — 다 / 고 / 지 / 게

▶ 곱게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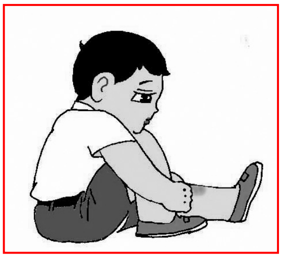
젊		닮		곪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젊	어	진	대	요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고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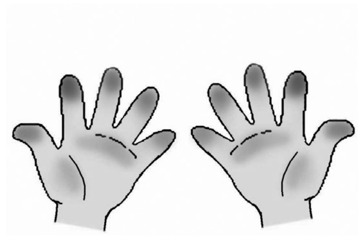
(상처가) □다



(어머니를) □다



(고구마를) □다



(손이) □었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소년궁전, 찾아오신, 당실당실, 추겠지,
젊어진다며, 아이되여, 덩실덩실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읽고 쓰세요.

장군님 품에 안겨
젊어진다며
아이되여 우리 함께
춤을 추었지요

❖ 자체로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ㄹㅁ》받침이 있는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김정일장군님 품에 안겨 □어졌대요,
곰은 며칠동안 □었어요, 행복한 우리 □,
강냉이 □는 냄새, 물건을 다른 자리로 □기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비전향장기수할아버지들이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 누구들이 춤출 때 하는 말일가요?

당실당실—　　　덩실덩실—

❖ 왜 비전향장기수할아버지들이 젊어진다고 하였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ㄻ》받침이 있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②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쓰고 읽으세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품에 안겨 □어진대요

다른 자리로 □기다

아이□여 □을 추□지요

③ 받아쓰세요.

소년궁전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우리 할머니는 더 젊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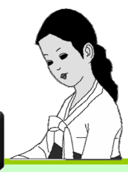
덞어진 옷은 빨아입어야 해요

철이는 꼭 아버지를 닮았어요

고구마를 삶아먹자요

④ 어울리는 말끼리 줄을 긋고 쓰세요.

물건을	덞었다
옷이	옮기다
고기를	삶다
아버지는	젊었다



꼭 새겨두자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할아버지들은 날마다 젊어집니다.

새로운 둘받침《ㄻ》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5 과
열 여 덟 살

불뿜는 적화구
가슴으로 막은
리수복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살

어제도 오늘도
열여덟 그 나이로
리수복영웅은
살아있어요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 《ㄼ》을 읽고 쓰세요.

ㄼ

(리을비읍)

▶ 읽어보세요.

밟 ＜ 아 / 으니 / 아서 / 았다

밟 ＜ 다 / 고 / 지 / 게

▶ 곱게 쓰세요.

덟		넓		짧		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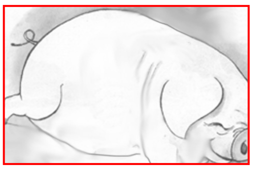
수자를 나타내는 《여덟》은 언제나 [여덜]로 읽고 [여덟]으로 써야 해요.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곱게 쓰세요.

열	여	덟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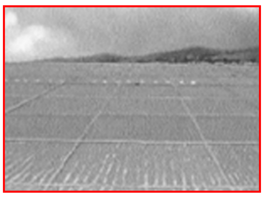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안에 《ㄼ》받침이 있는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돼지꼬리는) □다



□고□은 바다



(발이) □다



(흙을) □아주다



(사과가) 여□알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불뿜는, 적화구, 가슴으로, 열여덟살, 살아있어요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한줄씩 따라읽고 쓰세요.

불뿜는 적화구
가슴으로 막은
리수복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살

❖ 자체로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리수복영웅의 나이는 □□□살입니다
불뿜는 적의 □구를 가슴으로 막□어요
천이 □다
땅을 □고 일어서다
머리를 □게 깎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본문의 내용은 언제 있은 일입니까?

❖ 리수복영웅은 어떤 위훈을 세웠을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다음의 단어들을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넓다, 밟다, 짧다, 여덟, 얇은 천

② 어울리는 말끼리 줄을 긋고 쓰세요.

방안이	**얇다**
천이	**넓다**
흙을	**짧다**
운동장이	**밟다**
바지가	

③ 받아쓰세요.

열여덟살 영웅아저씨
최우등생 열여덟명
잔디를 밟지 마세요
나무가지가 짧다



꼭 새겨두자요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리수복영웅은 오늘도 열여덟나이로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둘받침 《ㄼ》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21과 — 25과)

① 배운 둘받침들을 모두 쓰고 읽어보세요.

② 《삶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읽고 쓰세요.

실례: **할머니가 고구마를 삶아요**

③ 《안, 않, 앉》가운데서 □안에 알맞는 글자를 쓰고 읽어보세요.

국철이는 의자에 □아 텔레비죤도 □ 보고 놀 생각도 하지 □고 □심히 숙제를 합니다

④ 우리 나라를 왜 복많은 나라라고 합니까?

⑤ 받아쓰세요.

넓은 벌에서 흩어진 벼이삭을 주어요
만경대고향집의 앉은책상
우리는 복을 많이 받는 행복동이예요
신천땅의 흙은 다 붉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젊어진다고 합니다
꼭 나를 닮았단다
여덟살 내 동무들은 괜찮은 친구들이예요

제 26 과
백 돐 생 일

오늘은 우리 할머니의 백돐생일날입니다.

할머니는 좋은 세월을 만나 이렇게 백돐생일을 맞는다고 기뻐하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백돐생일을 맞는 할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사랑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온 마을이 떨쳐나 백돐생일을 맞는 할머니를 축하하여주었습니다.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 《ㄺ》을 읽고 쓰세요.

ㄽ

(리을시읏)

▶ 읽어보세요.

돐 — 이 / 을 / 에

곬 — 으로 / 을 / 이

알아둡시다

둘받침 《ㄽ》은 읽을 때 언제나 《ㄹ》소리만 내야 합니다.

▶ 곱게 쓰세요.

돐		곬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백	돐	생	일

《ㄽ》받침단어들입니다.

돐　　곬　　외곬길

(산곬으로, 한곬으로)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백돐생일상, 좋은 세월, 이렇게, 맞는다고,

꿈만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절을 올렸습니다

◈ 밑줄을 그은 글자발음에 주의를 돌리면서 따라 읽고 쓰세요.

오늘은 우리 할머니 백돐생일날입니다.

온 마을이 떨쳐나 백돐생일을 맞는

할머니를 축하해주었습니다.

◈ 자체로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ㄺ》받침이 있는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백□생일을 맞는 할머니

외 □길을 따라 달려요

□을 따라 물이 흘러요

알아둡시다

◈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나 기념일, 생일날이 몇해째인가를 나타낼 때 **돐**이라고 합니다.

례: 공화국창건 65돐, 할머니생일 백돐

◈ **돌**은 어린이가 태여난 날부터 한해가 되는 날입니다.
한살부터 세살까지는 **돐**이라고 쓰지 않고 **돌**이라고 씁니다.

례: 첫돌, 두돌, 세돌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백돐생일을 맞는 할머니에게 어떤 사랑을 돌려주셨습니까?

❖ 할머니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 할머니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올린 인사말을 말해 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ㄹㅅ》받침이 있는 단어들을 찾아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쓰세요.

내 동생 첫□사진

6월 1일 국제아동절 60□기념

영철동무의 생일 7□

❖ 받아쓰세요.

백돐생일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도 꿈만 같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외곬으로 뛰여가는 영철이

조선소년단창립 65돐을 맞이하다

첫돌생일을 맞는 내 동생

산곬을 따라 오르는 등산운동은 재미납니다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건강하여 백살이 넘도록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생일상을 보내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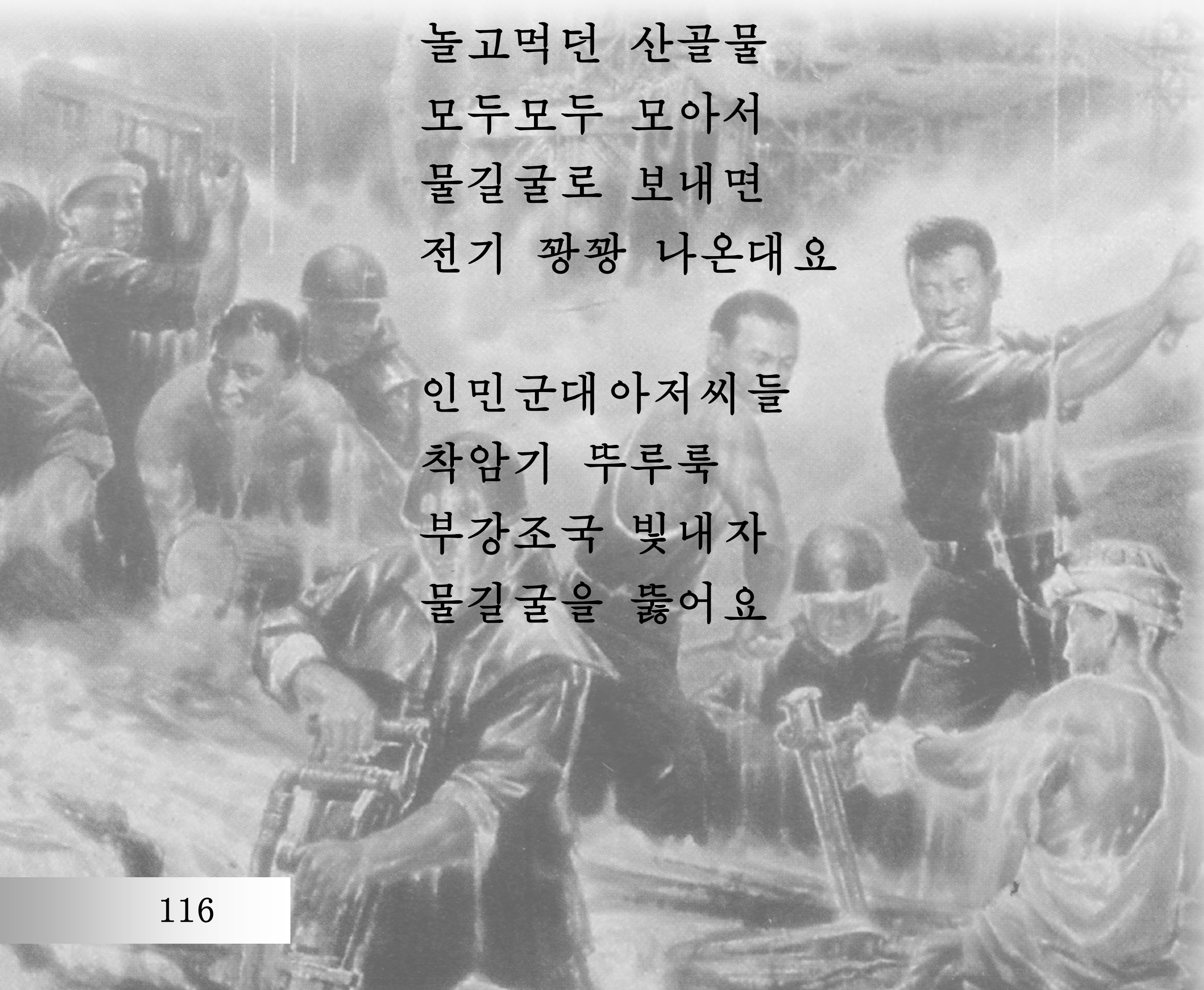
새로운 둘받침 《ㄹㅅ》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7 과
물길굴을 뚫어요

인민군대아저씨들
착암기 뚜루룩
큰 바위도 까내며
물길굴을 뚫어요

놀고먹던 산골물
모두모두 모아서
물길굴로 보내면
전기 팡팡 나온대요

인민군대아저씨들
착암기 뚜루룩
부강조국 빛내자
물길굴을 뚫어요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 《ㅀ》을 읽고 쓰세요.

ㅀ

리을히읗

▶ 읽어보세요.

뚫 — 어서 / 어 / 으 / 었습니다

뚫 — 다 / 고 / 지

▶ 곱게 쓰세요.

뚫		잃		끓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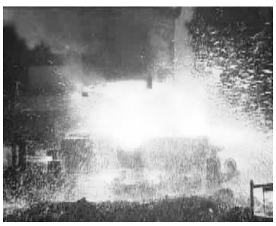
❖ 단어를 읽고 쓰세요.

물	길	굴	을		뚫	어	요

❖ 그림을 보면서 □안에 알맞는 새 받침글자를 찾아쓰세요.



(바위를) □ 다



(쇠물이) □ 다



의사선생님이 □는 사람을 찾아오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물길굴, 뚫어요, 뚜루룩, 착암기, 쾅쾅, 빛내자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따라읽고 쓰세요.

인민군대아저씨들　　큰 바위도 까내며
착암기 뚜루룩　　물길굴을 뚫어요

❖ 자체로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 《ㄶ》받침이 있는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착암기로 물길굴을 □습니다
□는 동무를 찾아가지요
쇠물이 부글부글 □다
지난날 할머니는 손이 □도록 일하였지만 지주놈 때문에 굶었답니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무엇으로 물길굴을 뚫습니까?

❖ 산골물을 물길굴로 보내서 무엇을 얻어낼가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ㄹㅎ》받침이 있는 말들을 찾아 보세요.

ㄹㅎ —

② 이어지는 말끼리 줄을 긋고 쓰세요.

내 말이	**앓다**
나라를	**뚫다**
굴을	**잃다**
동무가	**끓다**
물이	**닳다**
신발이	**옳다**

③ 받아쓰세요.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굴을 뚫습니다
부강조국 빛내이기 위해 물길굴을 뚫어요
물을 끓여서 먹어요
지난날 나라 잃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앓는 동무를 위하는 마음

④ 《뚫다, 꿇다》를 □안에 알맞게 쓰세요.

물이 □다
무릎을 □다



꼭 새겨두자요

인민군대아저씨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아합니다.
새로운 둘받침 《ㄹㅎ》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8 과
시 읊 기

일요일 저녁이였습니다. 혁철이네 집에서는 가족오락회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혁철이를 보고 시를 읊으라고 하였습니다.

혁철이는 벙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혁철이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몸소 지으신 《광명성찬가》를 읊었습니다.

혁철이가 읊는 《광명성찬가》가 랑랑하게 울려퍼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모두가 혁철이의 시읊기가 끝나자 박수를 크게 쳐주었습니다.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새로 배우는 글자를 제목에서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 《ㄿ》을 읽고 쓰세요.

ㄿ

(리을피읖)

▶ 읽어보세요.

읊 — 어 / 으니 / 어서 / 었다

읊 — 다 / 고 / 지

▶ 곱게 쓰세요. 읊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시읊기

《ㄿ》받침글자

읊다 애닯다

《애닯다》라는 말은
애가 탈 정도로 몹시 슬프다는
말입니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일요일 저녁, 가족오락회, 시를 읊으라고,
벙싯 웃으며, 시읊기가 끝나자, 쳐주었습니다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따라읽고 쓰세요.

할아버지는 혁철이를 보고 시를 읊으라고 하였습니다

혁철이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몸소 지으신 《광명성찬가》를 읊었습니다

❖ 본문을 크게 소리내여 읽고 한번 쓰세요.

❖ □안에 《ㄿ》받침이 있는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혁철이에게 시를 □으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앞에서 시 한수를 □었습니다
혁철이의 시□기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할아버지가 시를 읊으라고 하자 혁철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혁철이는 무슨 시를 읊었습니까?

❖ 학생도 혁철이처럼 시를 잘 읊어 칭찬을 받아보았습니까?

▶ 그때 학생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 《광명성찬가》를 읊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읊다》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② 《읽다》와 《읊다》를 □안에 알맞게 찾아 써넣으세요.

영희는 시를 잘 □고 철이는 신문을 거침없이 잘 □었습니다

③ 받아쓰세요.

시읊기

《광명성찬가》를 읊었다

가족오락회를 가지다

옷매무시를 바로 하다

랑랑하게 울려퍼지다

꽃분이와 순희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목놓아찾으며 애닯게 울었어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몸소 지으신 《광명성찬가》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리모두가 즐겨읊습니다.

새로운 둘받침《ㄿ》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제 29 과
곰은 왜 발바닥을 핥을가요



숙제를 마친 철이가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재미나게 책을 읽어가던 철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큰 곰이 왜 발바닥을 핥나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곰은 온 여름, 가을동안 실컷 먹은 다음 추운 겨울이 되면 동굴속이나 구새먹은 나무속에 들어가 잠을 잔단다. 그러다가 잠이 깨여 배가 고프면 발바닥을 핥는단다.》

철이가 두눈을 깜박이며 또 물었습니다.

《발바닥을 핥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그럼, 곰발바닥에서는 기름이 나온단다.

그래 겨울이 지나면 두꺼웠던 곰발바닥이 얇아진단다.》라고 하시였습니다.

철이는 글자공부를 잘하여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으리라고 마음다졌습니다.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새로 배우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 둘받침글자 《ㄾ》을 읽고 쓰세요.

ㄾ
(리을티읕)

▶ 《ㄾ》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어떻게 읽는가 보세요.

핥	아	핥	다
	으니		고
	아서		지
	았습니다		게

▶ 곱게 쓰세요.

핥		흝

단어에서 세겨보자요

❖ 읽고 쓰세요.

곰	이		왜		발	바	닥	을		핥	을	가	요

❖ 그림을 보며 □안에《ㄾ》받침있는 단어를 찾아 읽고 쓰세요.



(혀로) □다



(산발을) □어보다

문장에서 세겨보자요

❖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발바닥을 핥지, 구새먹은 나무, 발바닥을 핥는단다, 실컷 먹은 다음, 더 많은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크게 읽어보세요.

《할아버지, 큰 곰이 왜 발바닥을 핥나요?》

《발바닥을 핥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 본문을 자체로 읽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ㄾ》받침이 있는 글자를 찾아 쓰고 읽으세요.

야웅이는 앞발을 □아요

기계로 벼를 □습니다

신문을 □어보고 한 대목을 크게 읽었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철이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철이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해보세요.

◆ 학생은 철이처럼 재미나는 책을 많이 보았겠지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제목을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ㄾ》받침이 들어간 말들을 찾아쓰세요.

② 《훑다》라는 말을 넣어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례: **나는 연필을 찾으려고 교실바닥을 훑어보았습니다.**

③ 곰은 왜 발바닥을 핥습니까? 동생에게 말해주는것처럼 자기 말로 해보세요.

④ 받아쓰세요.

큰 곰이 왜 발바닥을 핥을가요

벼알을 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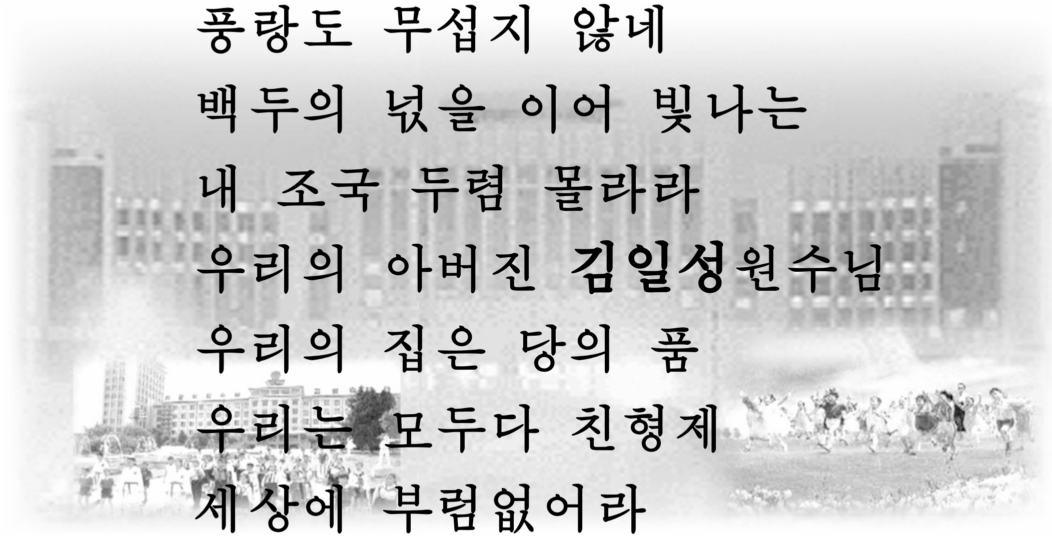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새로운 둘받침 《ㄾ》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가사

제 30 과
세상에 부럼없어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 몰라라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새 글자를 배우자요

❖ 제목에서 새로 배우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 둘받침글자 《ㅄ》을 읽고 쓰세요.

ㅄ
(비읍시읏)

▶ 《ㅄ》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어떻게 읽는가 보세요.

없 — 어, 으니, 어서, 었습니다, 어라

없 — 다, 고, 지, 게

▶ 곱게 쓰세요.

없		값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읽고 쓰세요.

세	상	에		부	럽	없	어	라

❖ ☐ 안의 글을 읽고 쓰면서 《ㅄ》받침글자를 새겨보세요.

부럽없다 | 물건값 | 걱정없이

약값을 모르다 | 끝없다 | 한없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 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똑바로 읽고 정확히 쓰세요.

하늘은 푸르고, 그 어데 있으랴,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두렴 몰라라

❖ 밑줄을 친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한줄씩 따라읽어보세요.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우리의 집은 당의 품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 몰라라

세상에 부럼없어라

❖ 본문을 자체로 읊으면서 한번 쓰세요.

❖ □안에《ㅂㅅ》받침이 있는 알맞는 글을 써넣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부럼□습니다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나라는 한□이 좋아요

하늘은 끝□이 푸르다

약□을 모르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내 조국은 왜 한없이 좋다고 하였습니까?

❖ 우리의 집은 어디라고 하였습니까?

❖ 당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는 모두가 왜 친형제라고 할가요? 생각하여 말해보세요.

❖ 내 조국은 왜 두렴 모른다고 하였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ㅄ》받침이 있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② 어울리는 말끼리 줄을 긋고 쓰세요.

사람이   **없다**

책   **값**

연필 한자루

아무도

③ 어디에 《ㅄ》받침을 써넣어야 할가요?

잘 생각해 쓰세요.

학교에 □니다

원쑤를 □아요

약□을 몰라요

감옥에 □히다

연필 한자루 □도 몰라

세상에 부럼□어라

④ 받아쓰세요.

우리는 약값을 모르며 세상에 부럼없이 삽니다

한없이 좋아라

풍랑도 무섭지 않아요

가없이 넓은 들판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우러러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에 부럼없습니다.

새로운 둘받침 《ㅄ》이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26과 — 30과)

① 받침 《ㄳ, ㅀ, ㄿ, ㄾ, ㅄ》이 들어간 말을 각각 찾으세요. 누가 더 많이 찾는가 내기하자요.

②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쓰세요.

할머니 백□상

굴□는 착암공

시를 잘 □는 내 동생

풍랑도 두렴□어요

운동장을 쭉 □었다

멍멍이가 그릇을 □아요

③ 다음말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읊다, 나, 칭찬

④ 《없다》가 붙은 말을 5개이상 찾으세요.

실례: **부럼없다**

⑤ 배운 둘받침글자들을 잘 새기며 받아쓰세요.

신문을 훑어보고는 소리내여 읽습니다

옥이는 어머니를 꼭 닮았습니다

땅을 꼭꼭 밟아요

혀로 말끔히 핥아요

백돐생일을 맞는 할머니예요

앓는 동무를 위해주는 마음

곬을 따라 흐르는 물

철조망을 뚫고나가다

송시를 잘 읊어요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꽃분이

⑥ 우리 나라 글자(자음, 모음, 받침)들의 이름을 외우고 글자차례에 맞게 써보자요.

⑦ □안에《없다, 업다, 엎다》가운데서 알맞는 말을 찾아쓰세요.

애기를 등에 □□

땅을 갈아□□

세상에 부러운것이 □□

제 31 과
개 학 날



어느해 9월 1일 뜻깊은 개학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평양창전소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철이가 공부하는 1학년 2반 교실에 들어오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기뻐 샛별눈을 반짝이며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는 혁철이네의 어깨를

쓸어주시며 어서 앉으라고 하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맨 앞줄에 앉은 혁철이의 국어교과서를 손수 펼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글자를 짚으시며 《이것이 뭐예요?》라고 물으시였습니다.

혁철이는 큰소리로 《아이》, 《오이》 하고 시읊듯이 챙챙한 목소리로 읽어나갔습니다.

《괜찮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철이의 두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며 《참, 똑똑하구나.》라고 거듭거듭 칭찬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ㅆ》(된시읏)받침이 있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 읽기, 쓰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새기며 따라읽자요.

뜻깊다	앞줄
들어오시다	짚으시다
환하게	읽어나가시다
앉으라	괜찮다
샛별눈	쓸어주시다

❖ 둘받침글자를 찾아쓰고 받침이름을 맞춰보세요.

❖ 《ㅍ》받침이 있는 글자를 누가 더 많이 찾을가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에서 쓴 글자대로 읽는 단어와 다르게 읽는 단어를 찾아 읽고 쓰세요.

❖ 《시》가 들어있는 말을 찾고 뜻을 새기며 쓰세요.

례: **찾아주시였습니다**

❖ 《ㄵ, ㄶ, ㄺ》받침이 있는 단어를 찾아 다음말과 합쳐 읽고 쓰세요

— 아, — 으라, — 고, — 다, — 지

❖ 본문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세요. 반대말이 있을가요?

례: **들어오다 나가다**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 읽으세요.

❖ 물음에 대답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쓰세요.

▶ 어떤 개학날이라고 하였습니까?

▶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개학날에 어느 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까?

▶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학교에 오시자 학생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안에 글자를 써넣고 읽고 쓰세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맨 □줄에 □은 혁철이의 국어교과서를 □수 펼치시였습니다.

혁철이는 큰소리로 《아이》, 《오이》 하고 시□듯이 챙챙한 □소리로 □어나갔습니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학날에 학교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 개학날 학교문에 들어설 때의 학생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 교실에 들어와 첫 수업을 받을 때 학생은 어떤 결의를 다졌습니까? 생각하여 말해보세요.

❖ 그림을 보며 말하세요



어머니가 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의 손목을 ____________________



교실에 들어가 ____________________



공부시간이 되자 ____________________

고운 글씨 쓰자요

세운 글자를 쓸 때는 글자의 우와 아래를 맞추어 써야 합니다.

개학날 괜찮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다음 문장을 받아쓰세요.

뜻깊은 개학날이다
환하게 웃으시다
맨 앞줄에 앉은 학생
챙챙하게 읽어나가다
다정히 쓸어주시다
거듭거듭 칭찬해주시다
샛별눈을 반짝이다
어깨를 쓸어주시다
글자를 짚으시다
시읊듯
괜찮다

② 개학날은 언제이며 어떤 날이예요?

③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글자를 잘 읽는 학생을 어떻게 칭찬해주시였습니까?

④ 학생은 《개학날》을 배우면서 어떤 마음을 다지였습니까? 자기 생각을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개학날에 학교에 찾아오시여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둘받침 《ㄶ, ㄺ, ㄿ》글자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동요

제 32 과
빛나는 백두산

윤 동 향



백두산 백두산
구름우에 솟은 산
백두산 백두산은
누굴 모셨나

왜놈 치고 우리 나라
찾아주신
김일성대원수님
높이 모셨지



백두산 백두산
하늘끝에 솟은 산
백두산 백두산은
누굴 모셨나

정일봉에 솟아오른
조선의 해님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셨지

백두산 백두산
우리 나라 백두산
온 세상에 자랑높이
솟아 빛나라

대원수님 꼭같으신
우리 장군님
천년만년 모시고
길이 빛나라

글자를 익혀보자요

❖ 본문을 잘 읊으면서 읽고 쓰기가 다른 글자들이 어떤것인지 새겨보세요.

왜놈치고, 하늘끝, 자랑높이, 솟다, 꼭같다, 길이 빛나라

❖ 소리내여 읊을 때 《ㄷ》소리가 나는 받침은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밑줄을 그은 글자들을 읽으며 새겨보세요.

솟다, 모셨지, 찾다, 하늘끝, 빛나라, 꼭같다

❖ 모음 《ㅐ, ㅔ, ㅕ, ㅙ》가 들어간 글자를 본문에서 찾아 읽고 쓰세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어려운 단어글자들을 새겨보세요.

▶ 읽기와 쓰기는 꼭같지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읽고 쓰면서 깊이 새겨보세요.

왜놈치고, 온 세상, 천년만년

▶ 읽기와 쓰기가 다른 단어들입니다. 정확히 발음하고 바로 쓰세요.

백두산, 구름우에, 솟은 산, 찾아주다, 영원히, 꼭같으신, 높이 모셨지, 하늘끝에, 솟아 빛나라, 조선의 해님, 자랑높이

❖ 받침《ㅈ, ㅌ》이 들어간 말찾기를 하세요. 10개씩 찾아보세요.

❖ 《～끝》과 함께 쓰이는 말을 찾아보세요.

례: **하늘끝**

❖ 《구름우》에서 《～우》의 뜻을 새기고 《～우》가 들어간 말을 10개씩 찾아보세요.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으세요.

❖ 자체로 읊으면서 본문을 한번 곱게 쓰세요.

❖ 다음물음에 대답말을 본문에서 찾아 곱게 쓰세요.

▶ 백두산은 어느분들을 모셨다고 노래하였나요?

▶ 우리 나라 백두산은 어떻게 빛난다고 하였나요?

❖ 다음의 시줄을 읽고 쓰면서 뜻을 새겨보세요.

구름우에 솟은 백두산
하늘끝에 솟은 백두산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쓰고 읽으세요.

□□□은 누굴 모셨나
김일성대원수님 □□ 모셨지
□□□에 솟아오른 조선의 해님
대원수님 □□□□ 우리 장군님
천년만년 모시고 길이 □나라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본문에서는 백두산이 높다는것을 어떤 말로 나타냈습니까? 찾아서 말해보세요.

❖ 5, 6련을 읊고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동요 《빛나라 백두산》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되였습니까?

알아둡시다

우리 글자에는 두개의 자음이 합쳐진 받침글자가 있답니다. 이것을 둘받침이라고 합니다. 둘받침글자는 11개가 있답니다.

둘받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ㄳ— 삯, 넋

ㄵ— 앉다, 얹다

ㄶ— 많다, 끊다, 괜찮다, 하찮다, 점잖다, 않다

ㄺ— 맑다, 밝다, 갉아먹다, 낡다, 늙다, 닭, 기슭, 삵, 긁다, 굵다, 붉다, 칡

ㄻ— 굶다, 곪다, 닮다, 옮다, 삶다, 젊어지다, 젊다,

ㄼ— 넓다, 밟다, 짧다, 여덟, 섧다, 얇다

ㄽ— 돐, 곬

ㅀ— 앓다, 곯다, 잃다, 끓다, 뚫다

ㄿ— 읊다, 애닲다

ㅄ— 값, 없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읽고 쓰기가 다른 단어를 본문에서 10개 찾아 쓰세요.

② 《구름우에 솟은 산》, 《하늘끝에 솟은 산》을 쓰고 어떤 뜻인가를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 높은 산입니다.

받침 《ㅅ, ㅈ, ㅊ, ㅌ》이 있는 글자들을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동요

제 33 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윤 복 진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는

원수님이 세워주신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일하고
글 잘 배우고

오각별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원수님 이끄시는
참 좋은 나라

글자를 익혀보자요

❖ 읊는것을 듣고 다음단어를 정확하게 소리내여 읽어보세요.

참 좋다,　　넓고 푸른,　　하늘높이

❖ 둘받침 《ㄼ》이 있는 글자를 찾아쓰세요. 《ㄼ》받침이 또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쓰면서 새기세요.

단이에서 새겨보자요

❖ 다음 단어들은 발음대로 쓰면 틀립니다. 뜻을 새겨보며 바로 쓰세요.

좋은, 금은보화, 넓고넓은, 오곡이,
물결치는, 하늘높이

❖ 《ㄴ》받침이 있는 단어들을 찾아 뜻을 새기며 쓰세요.

❖ 《ㅎ》받침은 《좋다》라는 말에서만 쓰일가요?
《ㅎ》받침이 있는 단어들을 10개 찾아 쓰세요.
《아름다운》, 《참 좋은》, 《금은보화》, 《넓고 푸른》, 《누구나》, 《오각별공화국기》를 쓰면서 무슨 받침글자인가 생각하여보세요.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으세요.

❖ 자체로 읊으면서 한번 곱게 쓰세요.

❖ 다음문장을 쓰고 따라읊으세요.
《ㅎ》받침글자발음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오각별공화국기
참 좋은 나라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원수님 세워주신　　　　　　원수님 이끄시는
참 좋은 나라　　　　　　　참 좋은 나라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참 □은 나라　　　　글 잘 □우고
□에는 금은보□　　　바다□ 고기
□고 푸른 □에는

❖ 물음에 대답할 말을 본문에서 찾아쓰면서 새겨보세요.

▶ 아름다운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 우리 나라는 왜 참 좋은 나라라고 합니까?
▶ 산과 바다에는 무엇이 많다고 하였습니까?
▶ 누구나 다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 푸른 하늘 높이 무엇이 휘날립니까?

▶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어느분께서 이끌어주고계신다고 하였습니까?

❖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학생은 어떤 좋은 일을 할수 있을가요? 생각하여 간단히 쓰세요.

❖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한련씩 이어 읊어보세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우리 나라가 왜 참 좋은 나라인가를 말해보세요.
❖ 오늘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로 되였습니까?
❖ 어느분이 우리 나라를 이끄십니까?
❖ 온 세상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가요?
❖ 아름다운 우리 나라에서 사는 자기 생각과 느낌을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글자를 새기면서 받아쓰세요.

원수님 세워주신, 아름다운 우리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는,
참 좋은, 우리 나라

② 다음 단어들을 알맞게 련결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 **원수님, 아름다운, 세워주신, 나라**

▶ **원수님, 참 좋은, 이끄시는, 우리 나라**

③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는 왜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가요?

배운것을 생각하면서 차례차례 말해보세요.

④ 시를 외우고 잘 읊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시고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아름다운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일하고 배우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받침 《ㅍ, ㅎ, ㄼ》이 있는 글자를 더 잘 배워야 합니다.

동요

제 34 과
연아연아 올라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동요)

연아연아 올라라
바람타고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높이높이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어느만큼 보이니
장군님 싸우시던
백두산이 보인다

연아연아 올라라
구름타고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하늘높이 올라라

연아연아 올라라
어디까지 보이니
장군님 계시는
우리 평양 보인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동요를 읊으면서 밑줄이 있는 글자를 잘 새겨두세요.

높이높이, 하늘높이, 계시는

❖ 본문에서 받침이 있는 글자를 찾으세요. 어느 받침이 제일 많습니까? 쓰면서 익히세요.

❖ 본문에 있는 《올라라》, 《하늘》처럼 《ㄹ》받침이 있는 글자를 누가 더 많이 찾을가요?

《별》처럼 한 글자로 된것을 찾아 쓰세요.

《물길》처럼 두 글자에 《ㄹ》받침이 다 있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 모음《ㅔ》는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본문에서 찾아쓰세요. 그리고 모음 《ㅔ》가 들어간 말을 찾아보세요.

알아둡시다

❖ 우리 글자를 바르고 곱게 쓰자면 차례를 지켜 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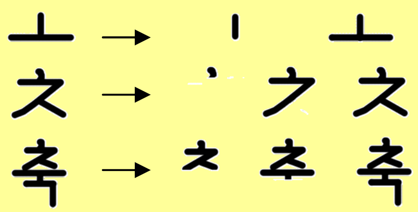
- 우리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씁니다.

ㅏ → ㅣ ㅏ

ㅁ → ㅣ ㄱ ㅁ

마 → ㅁ 마

- 우리 글자는 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씁니다.



• 우리 글자는 자음을 먼저 쓰고 모음자를 쓴 다음 받침을 씁니다.

학 → ㅎ 하 학
문 → ㅁ 무 문
닭 → ㄷ 다 달 닭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다음 단어들을 따라읽고 쓰세요.

연아연아, 바람타고, 높이높이, 어느만큼, 보인다, 싸우시던, 구름타고, 하늘높이, 계시는

《높이높이》와 《하늘높이》단어글자를 쓰면서 나타내는 뜻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해보세요.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자체로 읊으면서 한번씩 쓰세요.

❖ 바람타고 오른 연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 구름타고 오른 연은 어디가 보인다고 하였습니까?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왜 연을 보고 높이높이 오르라고 하였을가요?

❖ 《연아연아》, 《올라라》를 왜 여러번 썼을가요?

❖ 《연아연아 올라라》를 읊으면서 느껴지는 마음을 말해보세요.

▶ 학생은 연띄우기를 해보았습니까?

▶ 연을 띄우며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두 문장으로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받아쓰세요

연아연아, 높이높이, 올라라, 싸우시던,
백두산, 구름타고, 하늘높이, 계시는

❖ 동요《연아연아 올라라》를 외워서 잘 읊어보세요.

❖ 하늘높이 오른 연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 학생은 연띄우기를 할 때 연에 어떤 글자를 새겼댔습니까?



꼭 새겨두자요

백두산에서 일제와 싸워 이긴것처럼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여 미제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마음을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연에 실어 노래하였습니다.

받침 《ㅍ》과 모음 《ㅖ》글자를 더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제 35 과
사 철



따뜻한 봄입니다.

나무잎은 파릇파릇 움트고 진달래꽃이 방긋 피여납니다.

바다건너 멀리 날아갔던 제비들도 돌아와 지지배배 노래합니다.

들에는 뜨락또르가 우르릉 밭을 갈고 농장원들은 풍년씨앗을 뿌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나무잎은 무성하고 숲속에선 매미가 《맴-맴-맴-》 웁니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재미나게 헤염을 칩니다.

넓은 벌에서는 곡식이 싱싱 자랍니다.

기계로 김매는 농장원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시원한 가을입니다.

나무잎들은 붉게붉게 단풍이 듭니다.

푸른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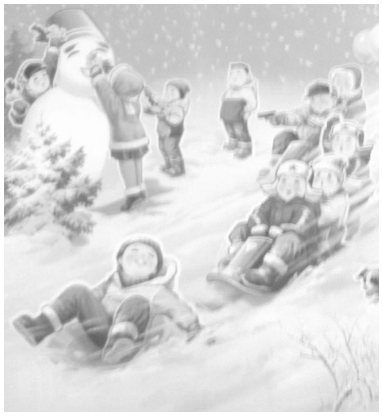
논밭의 곡식은 누렇게 익고 과수원엔 사과, 배 주렁집니다.

농장원들은 기계로 가을을 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산과 들은 온통 눈에 덮여 하얀 옷을 입은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강물은 꽁꽁 얼니다.



아이들은 스케트타기, 썰매타기에 신이 났습니다.

농장원들은 거름을 나르며 농사차비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찾고 정확히 읽어보세요.

▶ 받침 《ㅅ, ㅊ, ㅆ》은 무슨 글자에 있을가요?

▶ 받침 《ㅌ, ㅍ》이 들어있는 글자를 찾아쓰세요.

▶ 둘받침글자를 찾아보세요. 또 어떤 글자에 있는지 찾아 쓰세요.

❖ 모음 《ㅔ, ㅖ》는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다음단어를 따라읽고 쓰세요

나무잎, 날아갔던, 밭을 갈다, 풍년씨앗, 움트고, 재미나게, 붉게붉게, 구름 한점없이, 맑다, 누렇게, 덮이다, 살기 좋은

❖ 사철을 알려주는 단어를 찾고 뜻을 새겨보세요.

▶ 봄을 알려주는 단어들-

▶ 여름을 알려주는 단어들-

▶ 가을을 알려주는 단어들-

▶ 겨울을 알려주는 단어들-

❖ 같은 말이나 글자가 겹쳐 쓰인 단어들이 어떤 말일가요? 뜻을 새기며 쓰세요.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세요.

파릇파릇	**싱싱**
지지배배	**붉게붉게**
우릉우릉	**쨍쨍**
꽁꽁	

❖ 받침 《ㅊ, ㅌ》이 있는 단어를 찾아 보세요.

ㅊ— **꽃** ㅌ— **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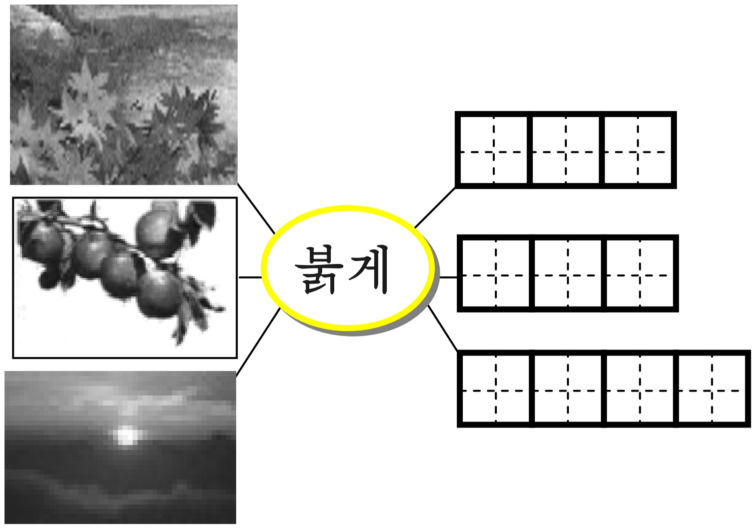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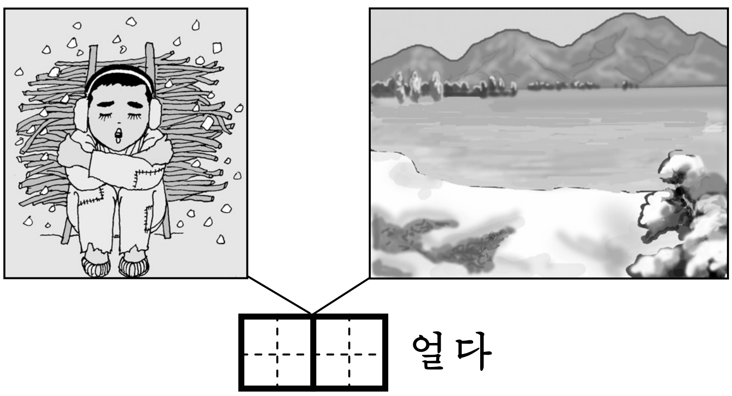
❖ 본문을 따라읽으세요.

❖ 다음문장을 읽으면서 밑줄 그은 글자를 다져보세요.

나무잎은 파릇파릇 움트고 진달래꽃이 방긋 피여납니다.
넓은 벌에서는 곡식이 싱싱 자랍니다.
나무잎들은 붉게붉게 단풍이 듭니다.
산과 들은 온통 눈에 덮여 하얀 옷을 입은것 같습니다.

❖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말을 찾아쓰세요.





(물들다, 익었다, 피여나다, 꽁꽁)

고운 글씨 쓰자요

눕힌글자를 쓸 때는 첫 자음과 받침에서 쓰인 자음글자의 크기가 같게 써야 합니다.

숲	속		봄		꽁	꽁

❖ □안에 어울리는 말을 써넣으세요.

나무잎이	□□□□	돋아나다
진달래꽃이	□□	피여나다
곡식들이	□□	자랍니다
나무잎은	□□	단풍이 듭니다
찬바람이	□□	불어오다

❖ 물음에 대답을 하고 대답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 봄에 농장원들은 어떤 일을 할가요?

▶ 여름에 농장원들은 어떤 일을 할가요?

▶ 아이들은 무엇을 할가요?

▶ 가을에 농장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가요?

▶ 겨울에 농장원들은 어떤 일을 할가요?

▶ 아이들은 무엇을 할가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하여 학생들이 서로 한 계절씩 맡아 말해보세요.

❖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어느 계절인지,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생각하여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사철의 이름과 사철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써보세요.

② 받아쓰세요.

파릇파릇, 움트다, 진달래꽃, 밭을 갈다, 나무잎, 숲속, 넓은 벌, 헤엄치다, 시원하다, 붉게붉게, 구름한점없이, 맑다, 누렇다, 덮이다, 하얀 옷, 거름, 살기좋다

③ 본문에 있는 받침글자들을 다 찾아쓰세요. 어느 받침이 많은지 차례로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둘받침 《ㄻ, ㅄ》, 받침 《ㅊ, ㅌ》이 들어있는 글자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31과 — 35과)

① 둘받침《ㄶ, ㄺ, ㄼ, ㄿ, ㅄ》이 있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② 《ㅅ, ㅈ, ㅊ, ㅌ, ㅍ, ㅎ》받침은 어떤 단어글자에 있을가요?

③ 모음《ㅖ》가 들어간 단어를 찾아보세요.

④ 우에서 찾은 받침글자에 다음 말과 합쳐 읽어보세요.

～ 아

～ 고

～ 어

～ 다

～ 어라

～ 지

⑤ 《연아연아 올라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잘 읊어보세요.

⑥ 우리 나라의 사철이름과 그 특징에 대하여 자기생각을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⑦ 학생은 개학날에 다지였던 결의를 어떻게 지켜가고있는가를 말해보세요.

우화

제 36 과
욕심 많은 개



어느 한 집에 욕심 많은 개 한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욕심 많은 개는 주인집 부엌에서 큰 고기덩이를 훔쳐물고 달아났습니다.

고기덩이를 입에 문 욕심 많은 개는 멀리 가서 자기 혼자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참 가다가 개는 고기덩이를 문채 다리를 건느게 되였습니다.



다리밑으로는 푸른 물이 출렁출렁 흘러가고있었습니다.

개는 다리를 건느다가 다리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것을 보았어요.

물밑에는 고기덩이를 입에 문 개 한마리가

있었습니다.

(하, 저놈봐라.)

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고기덩이는 내것보다 더 크구나. 저 고기를 몽땅 다 빼앗아먹어야지.)



욕심 많은 개는 물속의 개를 혼내우려고 먼저 《왕!》하고 입을 벌리고 짖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였겠어요.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 물었던 고기덩이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 개는 자기를 꼭 닮은 그림자였던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개는 물속에 비치는 개가 바로 자기라는것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욕심 많은 개는 남의것까지 빼앗아먹으려다가 자기 입에 물었던 고기덩이까지 놓쳐버리고말았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찾으세요.

❖ 어떻게 읽을가요? 바로 쓰자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밑줄이 있는 글자에 주의를 돌리세요.

부엌, 맛있게, 다리밑, 봐라, 빼앗아먹다,
욕심 많은, 물속, 짖었다, 물었던, 놓쳐버리다

❖ 《ㅈ, ㅋ》받침은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 《ㅈ》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5개 찾아보세요.

▶ 《ㅋ》받침이 있는 글자를 5개 찾아보세요.

알아둡시다

❖ 우리 글자는 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우리 글자가 어떤 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아야 글을 곱게 쓸수 있답니다.

내려긋기: 곧추 내려긋다 멈춥니다.

건너긋기: 옆으로 건너긋다 힘을 주어 멈춥니다.

비껴긋기: 오른쪽 우에서 왼쪽 아래로 비껴긋다가 뗍니다.

벌려긋기: 왼쪽 우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껴내려긋다가 멈춥니다.

건너내려긋기: 옆으로 건너긋다 아래로 곧추 긋다가 멈춥니다.

내려건너긋기: 아래로 곧추 내려긋고 옆으로 건너긋다가 멈춥니다.

동그라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시작한 자리에서 맞물리게 동그랗게 긋습니다.

점: 왼쪽으로 눕혀 비껴찍으면서 긋다가 뗍니다.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읽기와 쓰기가 같으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따라읽어보세요.

훔쳐물고, 멀리 가서 문채, 건느게, 출렁출렁, 봐라, 중얼거리다, 몽땅, 혼내우려고, 철썩, 이상한것

❖ 읽기와 쓰기가 다른 단어들을 따라읽자요. 그리고 단어의 뜻을 새기며 글자들을 쓰자요.

욕심 많은, 부엌에서, 맛있게, 고기덩이, 물밑에는, 다리밑으로, 그랬더니, 짖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빼앗아먹어야지, 물었던, 꼭 닮은

❖ 욕심많은 개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 쓰세요.

❖ 《왕!》과 《철썩!》은 어떻게 다른 말일가요?

쓰면서 생각해보세요.

❖ 《～밑》은 어떤 말과 어울릴가요?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쓰면서 받침글자를 꼭 새기세요.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어보세요.

❖ 본문을 자체로 읽으면서 욕심 많은 개가 한 행동을 생각해보세요.

❖ 다음문장을 따라읽어보세요.

욕심 많은 개는 주인집부엌에서 큰 고기덩이를 훔쳐물고 달아났습니다.

물밑에는 고기덩이를 입에 문 개 한마리가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개는 물속의 개를 혼내우려고 먼저

《왕！》 하고 입을 벌리고 짖었습니다.

그 개는 자기를 꼭 닮은 그림자였습니다.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쓰세요.

쓰면서 뜻을 생각해보세요.

욕심 □은 개

물□에는 고기덩이를 입에 □ 개 한마리가 있었습니다.

저 고기□□는 내□보다 더 크구나.

욕□ □은 개는 물□의 개를 혼내우려고 먼저 《왕!》 하고 □을 벌리고 □었습니다.

욕심 □은 개는 물□에 비치는 개가 바로 자기라는□을 몰랐습니다.

❖ 욕심 많은 개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 《몽땅》, 《다》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울리는 말을 찾아 쓰세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물음에 대답하여보세요.

▶ 어느날 욕심 많은 개가 무엇을 훔쳐물고 달아났습니까?

▶ 고기덩이를 물고나온 욕심 많은 개는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 다리를 건너가던 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 욕심 많은 개가 물속의 개를 혼내우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 욕심 많은 개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 욕심을 부리던 개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 개가 속으로 중얼거린 말을 읽으면서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욕심 많은 개에 대하여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학생은 욕심을 부린적이 없습니까? 어떤 욕심을 부렸는지요? 곰곰히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욕심은 자기만 많이 가지고싶어하는 마음이나 자기에게만 좋게 하는것입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안에 맞는 받침글자를 써넣으세요.

부□에서, 물□에, 욕심 □은, □있게, 빼□아, □다

② 받아쓰세요.

《왕!》 하고 짖었습니다　　욕심 많다

개울을 건느다　　물밑에서 보았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빼앗아먹어야지

떨어졌답니다　　부엌에서 달아나다

어떻게 되였겠어요　　저것봐라

③ 《욕심》과 《욕》은 어떻게 다릅니까?

④ 《욕심 많은 개》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두가지로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저 혼자 먹고 잘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제 입에 물었던 고기덩이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둘받침 《ㄶ, ㄻ》과 《ㅋ》받침, 모음 《ㅘ》가 있는 글자를 더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가사

제 37 과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피바다》에 나오는 노래)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구름속의 해님도 방긋 웃고요
우리 엄마 즐겁게 한번 웃으면
아름다운 꽃들도 피여납니다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 집안에 꽃이 핍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가시여지고
들판에는 꽃들이 피여나는 날
자유기발 날리는 독립의 아침
우리 엄마 노래를 부르겠대요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 집안에 꽃이 핍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읊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찾아 쓰세요.

▶ 《ㅅ》받침이 있는 글자

▶ 《ㅊ》받침이 있는 글자

▶ 모음 《ㅐ, ㅔ》가 있는 글자

❖ 《ㅂ》받침은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받아쓰면서 뜻을 새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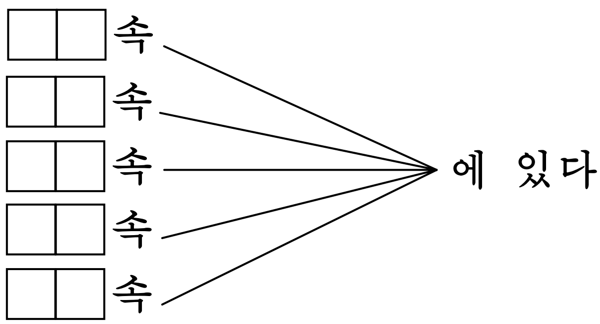
기쁘게, 구름속, 해님, 방긋, 즐겁게, 피여납니다, 아름다운, 구름이, 부르겠대요, 살아오신, 고생속, 온 집안, 가시여지다, 자유기발, 독립, 날리다

❖ 《방긋》과 같이 《ㅇ, ㅅ》받침이 들어가면서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세요.

❖ 《들판》으로 시작하여 10개의 단어로 말꼬리를 이어가자요. 이어지는 말은 꼭 《ㄹ, ㄴ》받침이 들어가야 해요.

례: **들판— 판결— 결산—**

❖ □안에 들어간 말을 찾아 쓰면서 읽어보세요.



알아둡시다

❖ 우리 글자를 곱게 쓰자면 글자모양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 글자는 내려긋기앞에 자음이 올 때도 있고 건너긋기우에 자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 자음이 모음의 내려긋기앞에 오는 글자는 세운글자예요.

세운글자쓰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지켜 써야 곱게 쓸수 있어요.

가

자음《ㄱ》과 모음《ㅏ》사이는 《ㄱ》의 건너긋기 길이보다 조금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음글자의 높이는 모음글자의 내려긋기 길이보다 작아야 합니다.

감

세운글자의 받침은 첫소리자음의 절반점에서 시작하여 모음의 내려긋기끌점에서 아래로 내려그어야 합니다.

▶ 자음이 모음의 건너긋기우에 오는 글자는 눕힌글자예요.

부

눕힌글자는 자음글자를 건너점선우에 쓰고 모음의 건너긋기는 건너점선에서 조금 내려다 그어야 합니다.

불

눕힌글자의 받침은 첫소리자음글자의 크기와 같이 써야 합니다.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으세요.

❖ 어려운 단어들의 발음에 주의를 돌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곱게 쓰세요.

❖ 다음문장을 따라읽고 쓰면서 뜻을 생각해보세요.

저 하늘에 구름이 가시여지고
들판에는 꽃들이 피여나는 날
자유기발 날리는 독립의 아침

❖ 물음에 대답하세요. 그리고 대답말을 쓰세요.

▶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 우리 엄마 즐겁게 한번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우리 □마 기쁘게 한번 □으면
구□속의 해□도 방□ □고요
저 하□에 구□이 가시여지고

❖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 집안에 꽃이 핍니다》는 몇번 쓰이였나요? 쓰면서 깊이 생각해보세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1절, 2절의 시줄을 따라내려가며 이야기하는 식으로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노래에 나오는 우리 어머니는 왜 고생속에 살아왔을가요? 곰곰히 생각하여 말해보세요.

❖ 학생들은 노래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을 알고있습니까? 다같이 불러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본문의 1, 2절을 읊으면서 써보세요.

② 함께 어울리는 말을 찾으세요.

피여나다

살아오다

③ 받아쓰세요.

한번 웃다	**구름속의 해님**
방긋 웃어요	**즐겁게 웃다**
아름다운 꽃	**고생속에 살아오다**
온집안에 꽃이 피다	**구름이 가시여지다**
들판에 꽃	**자유기발 날리다**
독립의 아침	**노래를 부르겠대요**

④ 노래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느낀 점을 차례차례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받침 《ㅅ, ㅊ》, 모음 《ㅐ, ㅔ》가 있는 글자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동요

제 38 과
고 향 의 봄

리 원 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리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리 새 동리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리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알아둡시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노래 《**고향의 봄**》을 들으면 누구나 나서 자란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들게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고향의 봄**》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세월 조국과 짓밟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어린이들의 마음에 담아 노래하였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를 찾아 읽고 쓰세요.

❖ 밑줄을 그은 글자를 정확히 발음하고 쓰세요.

내가, 진달래, 동리, 꽃동리, 새 동리

내가의, 꽃대궐, 옛 고향

❖ 본문에서 받침 《ㅊ》이 있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ㅊ》받침글자를 아는껏 찾아보세요.

❖ 《꽃대궐》, 《옛 고향》은 어떤 자음, 모음, 받침으로 이루어졌을가요? 밑줄 그은 글자를 새기며 다시한번 써보세요.

❖ 본문에서 받침이 있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어떤 받침들입니까?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다음단어를 따라읽고 받아쓰세요.

꽃피는	**꽃대궐**	**옛 고향**	**아기진달래**
복숭아꽃	**차리다**	**내가의**	**파란들**

살구꽃　　놀던 때　　수양버들　　춤추는
울긋불긋　꽃동리　　그립습니다　　산골

❖ 《ㄴ, ㄹ》받침이 있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읽고 쓰세요.

산골

❖ 《울긋불긋》처럼 받침 《ㄹ, ㅅ》이 함께 쓰이면서 반복되여 쓰인 말을 찾아 바로 읽고 쓰세요. 그리고 어떤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 봄에 피는 꽃이름과 꽃의 색갈을 써보세요.

번호	꽃이름	꽃색갈
1	진달래	분홍색

❖ 《파랗다》와 뜻이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검푸르다

▶ 《붉다》, 《노랗다》와 비슷한 말은 어떤 말일가요. 생각하여 쓰세요.

❖ 다음의 단어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있을가요? 함께 알아보세요.

고향: ① 나서 자란 곳.
② 언제나 잊을수없이 그립고 마음깊이 간직되는 정다운 곳./ 만경대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산골: 산이 많고 구석진 곳.

동리: 동네와 마을.

동네: 거리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져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 《놀던 때<u>가</u>》, 《내<u>가</u>의 수양버들》에서 밑줄이 있는 《～가》의 뜻을 새겨보고 《가》와 어울리는 말을 찾아 쓰세요.

문장에서 다져보자요

❖ 절별로 따라읊으세요.

❖ 한번 다시 읊어보면서 1, 2절을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의 살던 고□은 □피는 산골
울□불□ □대□ 차리인 동리
□동□ □동리 나□ □ 고향
그□에서 □던 때가 그□습니다

❖ 나의 살던 고향은 어떤 동리라고 하였습니까?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에서 《그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을가요? 1, 2절의 첫째, 둘째, 셋째줄을 가지고 자기 말로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 학생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에 대한 자랑을 말해보세요.

❖ 동요 《고향의 봄》을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알아둡시다

물건을 하나, 둘 하고 세여나갈 때에는 수자뒤에 맞는 말을 붙여써야 합니다.

그런데 물건에 따라 수자뒤에 붙는 말을 다르게 씁니다. 어떻게 다를가요?

두부 10모, 사과 9알, 나무 5그루, 벼짚 7단, 땅크 5대, 신발 4컬레

삽 1자루, 마늘 100개(마늘 한첩), 밤송이 1개(밤 한톨)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옛고향》처럼 《옛》이 들어간 말을 10개씩 찾아 쓰세요.

② 받아쓰세요.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궐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내가의 수양버들
그속에서
그립습니다

③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에서 자랑하고싶은것을 생각하여 동무들앞에서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④ 동요 《고향의 봄》을 외우고 읊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누구나 나서 자란 고향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곧 조국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받침 《ㅅ, ㅊ》과 모음 《ㅢ, ㅝ》가 있는 글자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동요

제 39 과
공 화 국 기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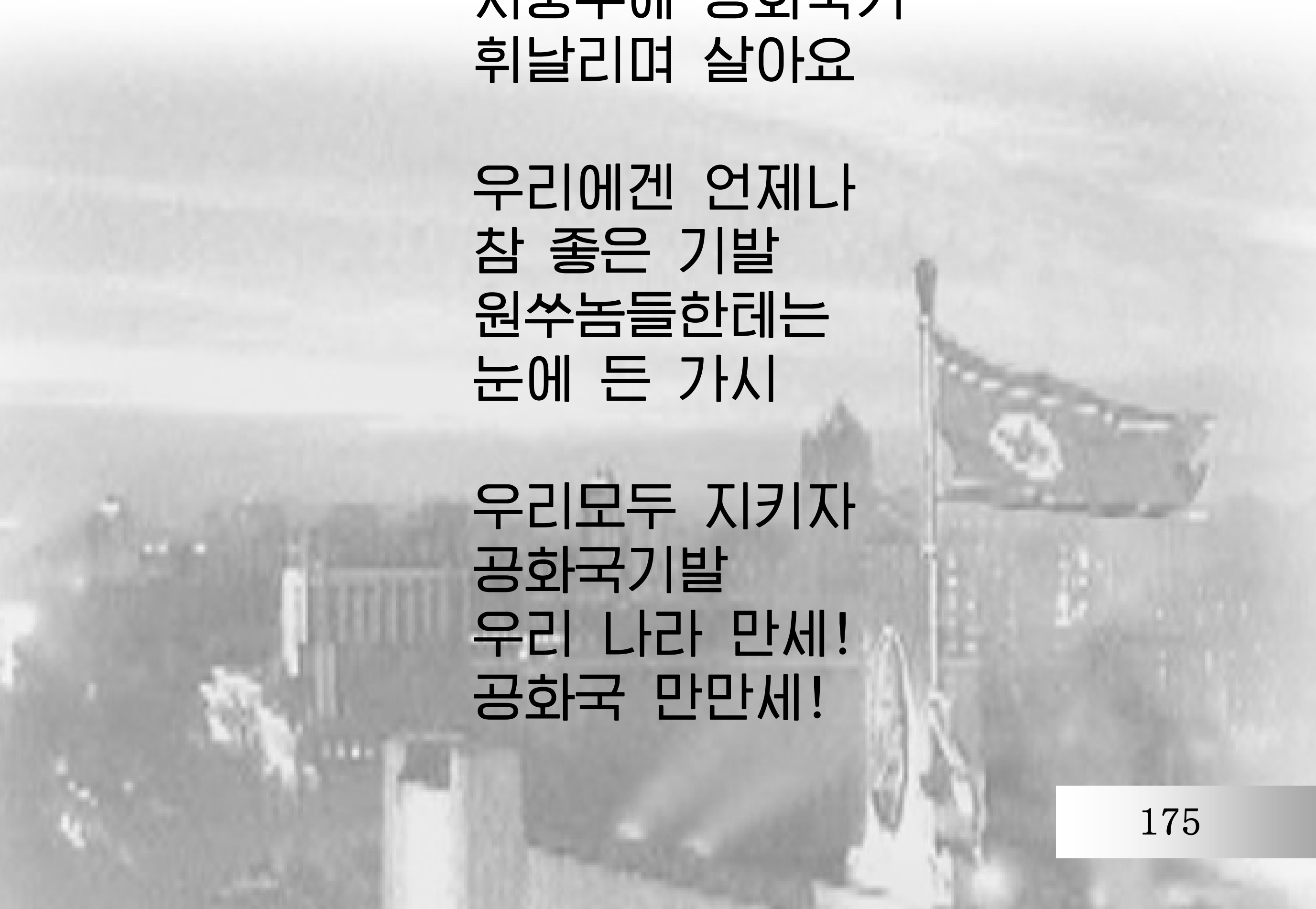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동요)

우리 나라 기발
공화국기발
푸른 하늘 높이
펄펄 날려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가는 곳마다
지붕우에 공화국기
휘날리며 살아요

우리에겐 언제나
참 좋은 기발
원쑤놈들한테는
눈에 든 가시

우리모두 지키자
공화국기발
우리 나라 만세!
공화국 만만세!



글자를 익혀보자요

❖ 다음단어들을 따라읽고 받아쓰세요.

공화국기발, 하늘높이, 펄펄, 가는 곳마다

지붕우에, 휘날리며, 언제나, 원쑤놈들, 만만세

❖ 어떤 글자들이 모였을가요? 모음글자의 획이 몇개인가 찾아보고 차례로 써보세요.

공화국기발, 휘날리며, 참 좋은, 원쑤놈

❖ 모음 《ㅟ, ㅘ, ㅝ》가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10개씩 찾아쓰세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읽기와 쓰기가 다른 단어에 주의를 돌리면서 읽고쓰세요.

하늘높이, 펄펄, 가는 곳마다

참 좋은 기발, 눈에 든 가시

❖ 《휘》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아는껏 찾아 쓰세요.

누가 더 많이 찾아보겠어요?

례: **휘파람**

❖ 《펄펄》과 같이 글자가 두개 겹치면서 《ㄹ》받침이 다 들어있는 단어찾기입니다. 누가 더 빨리 정확히 찾을가요?

❖ 우에서 찾은 단어들이 다음의 말들과 어울릴가요?

～ 뛰다

～ 끓다

～ 날리다

～ 일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읊으세요.
- 자체로 읊어보면서 동요를 한번 쓰세요.

  읽기와 쓰기가 다른 글자들에 주의를 돌리며 써야 합니다.
- 물음의 대답을 본문에서 찾아 곱게 쓰세요.
  - ▶ 공화국기발이 어디서, 어떻게 휘날릴가요?
  - ▶ 공화국기발은 어떤 기발일가요?
  - ▶ 공화국기발을 누가 지켜야 할가요?
- 다음의 단어를 넣고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참 좋은

  눈에 든 가시

속담

눈에 든 가시

몹시 미워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우리 나라 기발은 어떤 기발일가요? 동요의 련을 따라 차례로 말해보세요.
- 본문을 읊으면서 자기 느낌과 결의를 말하여보세요.
- 학생은 우리 나라 기발을 빛내이기 위하여 어떤 훌륭한 일을 하겠는지 자기 생각을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고운 글씨 쓰자요

▶ 모음 《ㅟ》는 건너긋고 내려긋기를 할 때 약간 비껴긋습니다.

▶ 모음 《ㅘ》는 내려긋고 건너긋기를 할 때 마지막을 약간 올려비껴긋습니다.

공화국기발 휘날리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받아쓰세요.

가는곳마다, 펄펄, 휘날리며 살아요, 푸른 하늘 높이, 원쑤놈들한테는 눈에 든 가시, 우리 공화국기발, 참 좋은, 공화국 만만세

② 동요를 외워 읊어보세요.

③ 공화국기발에는 어떤 색갈들이 있을가요?

곰곰히 생각하면서 공화국기발을 멋지게 그려보세요.

④ 공화국기발을 빛내여갈 자기 결의를 간단히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공화국기발을 잘 지키는것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것입니다.

모음 《ㅟ, ㅘ, ㅝ》가 들어있는 글자들을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야기

제 40 과
설 명 절



설명절이 왔습니다.

밖에서는 퐁퐁 설눈이 내립니다.

봄향이는 쌍태머리를 곱게 땋고 어머니가 내놓은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봄향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에도 몸건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설인사를 받으세요.》

봄향이는 식구들과 함께 어머니가 차린 설명절음식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찰떡, 설기떡, 송편도 있고 녹두지짐, 고기구이, 사과, 곶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이 문문 나는 떡국을 들여왔습니다.

《모두 설명절음식이구나. 옛날부터 설날 아침엔 떡국을 먹었단다.

봄향아, 어서 많이 먹고 새해에도 공부를

잘하거라.》

할머니가 말씀하시였습니다.

봄향이네는 설명절음식을 맛있게 먹은 다음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존에서 나오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면서 설명절을 즐겁게 쇠였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글을 읽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 받침글자가 어느것인지 찾아보세요.

땋다	옛날
넣다	많이
마주앉다	맛있게
곶감	윷놀이

❖ 봄향이네가 먹는 설음식에서 받침이 있는 음식이름을 찾아 쓰세요.

❖ 설명절아침에 봄향이가 한 인사말에는 어떤 글자들이 있을가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다음단어들을 따라읽고 쓰세요.

▶ 읽고 쓰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설명절, 퐁퐁, 설눈, 봄향이, 쌍태머리, 세배, 몸건강하세요, 문문 나다, 텔레비존

▶ 읽고 쓰기가 다른 단어들입니다. 밑줄 그은 글자읽기에 주의를 돌리세요.

땋고, 내놓은, 색동옷, 윷놀이, 녹두지짐, 설날, 설인사, 받으세요, 마주앉아, 곶감, 떡국, 옛날, 많이, 맛있게,

❖ 그림을 보며 설명절날 봄향이가 먹은 음식이름을 찾아 쓰세요.



❖ 받침글자를 찾아보세요.

▶ 받침 《ㅈ, ㅊ, ㅎ》이 있는 말을 5개 찾아 쓰세요.

▶ 둘받침 《ㄶ, ㄵ》이 들어있는 말을 찾아 쓰고 반대말을 생각해보세요.

▶ 받침 《ㄲ》은 어떤 말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세요.

❖ 받침 《ㅎ》이 있는 단어발음에 주의를 돌리면서 다음 문장을 읽고 쓰세요.

봄향이는 쌍태머리를 곱게 땋고 어머니가 내놓은 색동저고리를 입었습니다.

❖ 봄향이는 설인사를 어떻게 하였을가요?

❖ 다음 문장을 읽고 쓰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에도 몸건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설인사를 받으세요.》

❖ 설음식을 맛있게 먹은 다음 봄향이네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문에서 찾아 읽고 쓰세요.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고 읽어보세요.

□에서는 퐁퐁 설□이 내립니다.
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세배를 드리□습니다.
가족들과 함□ 설□식상에 마주□았습니다.
어머니는 김이 문문 나는 떡국을 들여왔습니다.
봄향이□는 설□□□식을 맛□게 먹은 다음 □놀이를 하였습니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설명절에 봄향이가 한 일을 차례로 말해보세요.

❖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맞는 설명절 다음으로 이어오는 명절들을 부모들에게 알아서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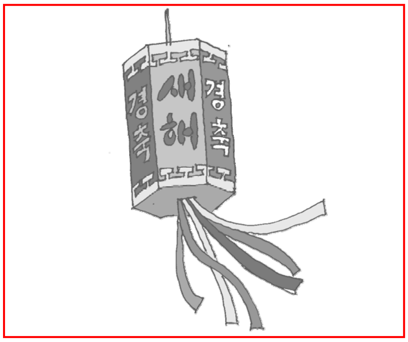
❖ 학생은 올해 설명절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냈어요? 생각해 말해보세요.

❖ 설명절에 학생의 어머니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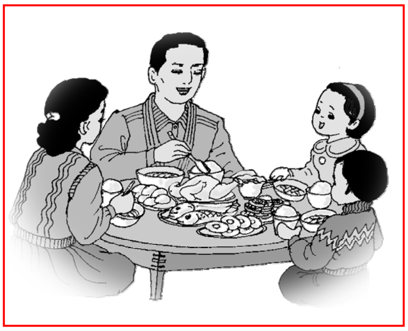
❖ 학생은 설명절아침에 봄향이처럼 인사를 하였는지요? 학생이 한 인사말을 곱게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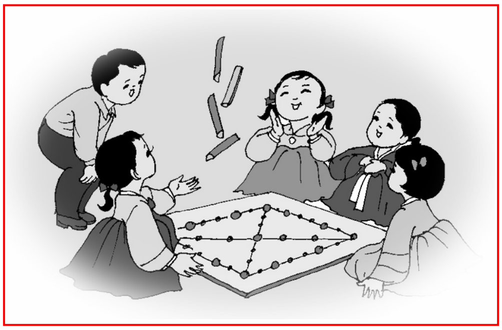
설명절은 민속명절입니다.
민속명절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쇠오는 명절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속명절에는 설명절(음력 1월1일), 정월대보름 (음력 1월15일) 추석(음력 8월15일)이 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 그림을 보고 말해보세요. 언제 있은 일일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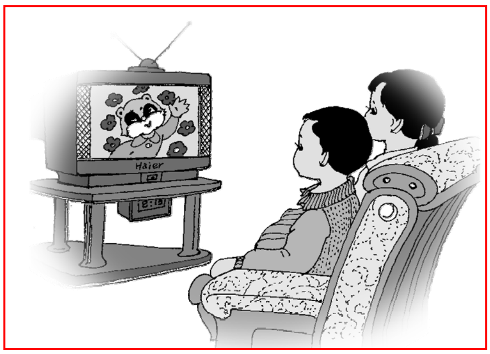












고운 글씨 쓰자요

세운글자와 눕힌글자가 함께 있는 단어를 쓸 때에 글자의 우 아래를 잘 맞추어 써야 합니다.

설명절 새동옷 윷놀이

알아둡시다

❖ 1년은 열두달입니다. 열두달이름을 어떻게 부를가요?

▶ 첫째 달은 일월 또는 정월이라고 합니다.

▶ 둘째 달은 이월

▶ 셋째 달은 삼월

▶ 넷째 달은 사월

▶ 다섯째 달은 오월

▶ 여섯째 달은 류월

▶ 일곱째 달은 칠월

▶ 여덟째 달은 팔월

▶ 아홉째 달은 구월

▶ 열번째 달은 시월

▶ 열한번째 달은 십일월 또는 동지달

▶ 열두번째 달은 십이월 또는 섣달이라고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윷놀이》, 《곶감》처럼 《ㅊ, ㅈ》받침이 들어간 말을 5개이상 찾아쓰세요.

② 받아쓰세요.

등을 두드리다, 고기국을 들여오다, 윷놀이하다, 텔레비죤을 보았다, 김이 문문 나다, 녹두지짐, 곶감을 먹다, 먹을것이 많다, 맛있게 먹다

③ 설명절날에 웃어른들에게 하는 인사말을 3가지이상 써보세요.

④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것을 쓰세요. 또박또박 순서대로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받침 《ㅈ, ㅊ, ㄲ, ㄵ, ㄶ》이 있는 글자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36과 — 40과)

① 어려운 글자들을 익혀보세요.

▶ 둘받침 《ㄵ, ㄶ, ㄻ》이 있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 받침 《ㅅ, ㅊ, ㅋ, ㄲ》이 있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 모음 《ㅟ, ㅘ, ㅝ》가 있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② 받침《ㅋ, ㅌ, ㅍ, ㅊ》이 있는 단어에《∼아, ∼에, ∼이》, 《∼다, ∼지, ∼고》를 붙여 읽어보세요.

③ 받침《ㄴ》이 3개 들어있는 세 글자단어를 찾아보세요.

④ 공화국기발은 어떤 기발입니까? 공화국기발을 빛내이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⑤ 해마다 맞이하는 민속명절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매 명절풍습에서 다른 점을 생각하여 말하여보세요.

⑥《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을 노래불러보세요.

이야기

제 41 과
철이와 옥이



흰 위생복을 입은 담당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들어 오셨습니다.

이발을 검사하러 왔대요.

옥이는 이발이 깨끗하다고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이의 이발은 말이 아니예요.

시꺼멓게 썩은 이발이 글쎄 두대나 되였습니다.

《철이학생, 이발이 쏘지 않나요?》

《선생님, 철이는 어제 이발이 쏘아서 울었습니다.》

옥이의 말을 듣고 의사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철이는 매일 아침 치솔질을 하나요? 그리고 밤에

사탕을 입에 물고 잘 때도 있지요?》

철이는 머리를 긁으며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보세요. 철이처럼 아침에 일어나 치솔질을 하지 않으면 이발짬에 병균들이 좋다고 찾아와요. 그리고 사탕이나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나쁜 병균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 이발을 갉아먹어요.

그러니 이발들이 이렇게 못쓰게 되지요. 이발이 든든해야 몸도 튼튼해져요.》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꼭꼭 치솔질을 하고 사탕을 먹은 다음엔 꼭 양치질을 할테야.) 하고 철이는 마음다졌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다음의 밑줄그은 글자들을 바로 읽고 쓰세요.

의사, 흰 위생복, 시꺼멓게, 앓나요,

긁으며, 찾아와요, 갉아먹다

❖ 아래의 글자에서 읽기와 쓰기가 다른것을 찾아보세요. 읽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새겨듣고 바로 읽고 쓰세요.

이발, 시꺼멓다, 갉아먹다, 하지 않다, 좋다

❖ 본문에서 《ㅅ, ㄷ, ㅎ, ㅈ, ㅆ, ㄶ, ㄺ》받침이 있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상식

이발닦기와 치솔소독법

▶ 치솔은 쓰기 전에 물에 담그지 말고 그냥 치약을 바른 다음 이발을 닦아야 합니다.

▶ 이발을 닦을 때에는 이발의 좌우, 앞뒤, 우아래를 골고루 닦아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닦거나 굵은 소금으로 닦으면 이발이 인차 못쓰게 될수 있습니다.

▶ 치솔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치솔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빛에 소독하는것이 좋습니다.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읽기와 쓰기가 다른 단어에 주의를 돌리면서 읽고 쓰세요.

흰 위생복, 담당의사선생님, 시꺼멓게, 않으면, 쏘지 않나요, 갉아먹어요, 긁으며, 못하였습니다, 좋다고, 찾아와요, 칭찬받았습니다

❖ 《ㅎ》받침이 있으면서 색갈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례: **시꺼멓다**

❖ 다음단어들의 뜻을 새겨보세요.

시 <
- **꺼멓다**
- **퍼렇다**
- **뻘겋다**
- **누렇다**

❖ 《치솔질》처럼 단어의 끝에 《~질》이 오는 말을 찾아보세요. 누가 더 많이 찾을가요?

❖ 다음단어와 어울리는 말을 찾아 쓰고 그 뜻을 새겨보세요.

《든든하다》와 **《튼튼하다》**

《갉다》와 **《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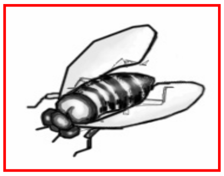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며 《쏘다》와 어울리는 말을 찾아 쓰고 뜻을 새겨보세요. 다른점이 있을가요?



이발이



총을



꿀벌이

쏘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세요.

❖ 다음문장을 따라읽고 곱게 쓰세요. 읽을 때 밑줄 그은 글자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치솔질을 하지 않으면 이발짬에 병균들이 좋다고 찾아와요.

병균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 이발을 갉아먹어요.

❖ 의사선생님이 한 말을 찾아 읽고 정확히 써보세요.

❖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사□이나 음□을 먹고 □□질을 하지 않으면 나□ 병□들이 더 □이 모여들어 이□을 갉아먹어요.

❖ 다음물음의 대답말을 본문에서 찾아 곱게 쓰세요.

▶ 철이의 이발은 왜 썩었을가요?

▶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가요?

▶ 이발을 깨끗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 이발은 왜 든든해야 할가요?

❖ 다음의 말을 정확히 쓰세요. 누가 한 생각일가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꼭꼭 치솔질을 하고 사탕을 먹은 담엔 꼭 양치질을 할테야.)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의사선생님은 옥이를 왜 칭찬하였을가요? 의사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 철이학생의 이발은 왜 시꺼멓게 되였을가요? 학생의 이발은 시꺼멓게 된것이 없는가요?

❖ 학생은 이발이 쏘는 아픔을 당해본적이 없습니까? 철이 학생처럼 엉엉 울지 않았어요? 이발이 쏘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할가요?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 학생은 옥이와 철이중에서 누구를 본받고싶습니까? 자기 마음을 말해보세요. 더 자랑하고싶은 이야기도 함께 말해보세요.

고운 글씨 쓰자요

《ㄲ》을 쓸 때는 첫 자리에 오는 《ㄱ》보다 뒤에 쓰는 《ㄱ》을 좀 크게 써야 합니다.

깨끗하다 시꺼멓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받아쓰세요.

썩은 이발, 시꺼멓게, 쏘지 않나요, 치솔질을 하다, 머리를 긁었다, 양치질을 하지 않다, 갉아먹다, 못쓰게 되다, 이발이 쏘아서 울다

② 다음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안돼, 양치질을, 음식물, 하지 않으면, 먹은 후, 몸도, 든든해야, 튼튼해진다, 이발이

③ 이발을 든든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세가지로 말해보세요.

④ 눕힌글자를 찾아 ◯를 치고 문장을 고운 글씨로 한번 쓰세요.

옥이는 이발이 깨끗하다고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병균들이 모여들어요.

꼭 양치질을 할테야.



꼭 새겨두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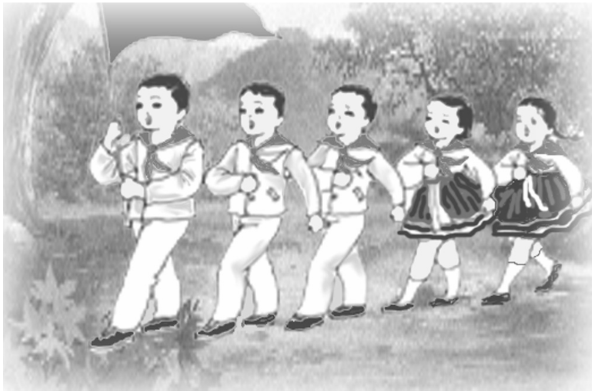
이발을 든든하게 하려면 음식물을 먹은 다음 이발을 치솔로 잘 닦아야 합니다.

받침 《ㅆ, ㄶ, ㄺ》, 모음 《ㅓ, ㅘ》가 있는 글자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혁명가요

제 42 과
어데까지 왔니

어데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공부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어데까지 왔니
개울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뒤산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훈련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어데까지 왔니
숲속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고개너머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왜놈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어떤 어려운 글자들이 있는가 따라읽어보세요.

어데까지, 뒤산까지, 왔다, 왜놈치러

❖ 읽기와 쓰기가 다른 단어에 주의를 돌리면서 읽고 쓰세요.

어데까지	누구하고
왔니	우리모두
마을까지	뒤산까지
가려니	훈련하러
간다	숲속까지
무엇하러	고개너머
공부하러	왜놈치러

❖ 받침글자들을 찾아보세요. 어느 글자에 있을가요? 쓰면서 글자를 새기세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단어 《어데》, 《무엇》, 《누구》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가요? 따라읽으면서 생각하세요.

❖ 물어보는 말에는 또 어떤 말이 있을가요? 쓰면서 익히세요.
《어데》는 《어디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 《가려니》와 《간다》를 쓰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 받아쓰면서 뜻을 새겨보세요.

학교까지　　왜놈치러　　고개너머　　숲속까지
공부하러　　개울까지　　훈련하러　　뒤산까지

❖ □안에 알맞는 말을 넣어 쓰세요.

	□		□		□		□		□
□	**련**	□	**산**	□	**놈**	□	**속**	□	**을**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에서 어느것이 물어보는 말이고 대답하는 말인가를 알아보자요. 둘이서 서로 엇바꾸어 잘 읽어보세요.

❖ 본문을 혼자 읽으면서 곱게 쓰세요.

❖ 다음물음에 맞는 대답말을 찾아 써보세요.

어데까지 왔니　　　어데까지 가려니
무엇하려 가려니　　누구하고 가려니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넣고 읽어보세요.

어□까지 □니　　　□엇하려 □려□
마□까지 □다　　　□련하□ □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마을까지 온 아동단원들이 어데 가서 무엇을 할가요?

▶ 개울까지 온 아동단원들은 무엇하러 어디로 갈가요?

▶ 숲속까지 온 아동단원들이 어데 가서 무엇을 할가요?

❖ 학생은 아동단원들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절별로 읊으면서 어떤 받침글자들이 있는가 새겨두세요.

② 받아쓰세요.

고개너머, 숲속까지, 왜놈치는, 훈련하러, 학교뒤산, 공부한단다, 무엇하러, 개울까지

③ 《넘어》와 《너머》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 다음 □안에 알맞는 말을 골라 써넣으세요.

고개□□ 학교까지 가려면 령을 □□가야 합니다.

④ 혁명가요 《어데까지 왔니》를 외우고 느낀 점을 간단히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아동단원들은 학습도 군사훈련도 열심히 하여 훌륭한 혁명투사로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모음 《ㅔ, ㅟ, ㅘ, ㅙ》가 있는 글자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야기

제 43 과
동물원구경



우리들은 오늘 동물원구경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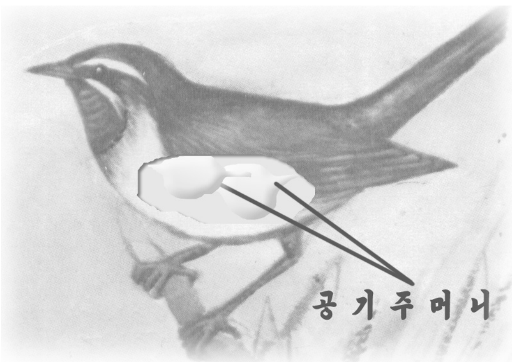
먼저 범, 코끼리, 노루, 사슴동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동산도 보았습니다. 철남이가 그네에 앉아 혀로 입술을 핥으며 말똥말똥 쳐다보던 원숭이의 흉내를

내여 우리들은 허리까지 꼬부리며 웃고 떠들면서 새동산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동산에서는 갖가지 고운 새들이 제가끔 지저귀였습니다. 포르릉 날며 재롱을 부리는 새들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에게 관리원누나가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있느냐?》

정말 우리들이 알고싶은것이였습니다. 관리원누나는 호기심에 두눈을 깜빡거리는 우리들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며 말하였습니다.



《새는 뼈속이 비여있어 가볍습니다. 그리고 몸안에 여러개의 공기주머니가 있답니다.

새가 날려고 날개를 펴면 공기주머니가 불룩하게 불어납니다. 그러면 새의 몸이 가벼워지면서 난답니다.》

우리는 까만눈을 반짝이며 관리원누나의 말을 귀담아들었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한곬으로만 하지 말고 동물원에 와서도 배워야 한다면서 새의 비밀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새들은 서로 위험신호도 하며 알려준대요. 새들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날개를 세차게 푸드덕거리거나 꼬리를 흔들어 알린다는것입니다.

꾀꼬리는《갸악》하고 큰소리로 웨쳐 신호한대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들은 동물원에서 많은것을 새로 알게 되였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따라읽으면서 밑줄 그은 글자의 소리를 새겨보세요.

동물원, 많았다, 갖가지, 물었다, 핥으며, 옮겼다, 얘들아, 날가요, 한곬으로, 웨치다

◆ 본문에서 《ㄻ, ㄽ, ㄾ》받침글자를 찾아 쓰세요.

◆ 모음《ㅒ, ㅚ, ㅟ, ㅝ, ㅞ》가 있는 글자를 찾아 읽고 쓰세요.

◆ 《ㅈ》받침은 《갖가지》에만 있을가요?

어떤 글자에 있는지 찾아 읽고 쓰세요.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다음단어들을 따라 읽고 쓰자요. 읽기와 쓰기가 다른 단어를 찾아 다시한번 더 쓰세요.

동물원구경	**재롱을 부리다**	**귀담아듣다**
꾀꼬리	**가벼워지다**	**한값으로**
핥으며	**알고싶은**	**위험신호**
옮겼다	**깜빡거리다**	**많은것**
갖가지	**불룩하게**	**지저귀다**

❖ 《포르릉》하고 나는 새의 이름을 아는껏 써보세요.

❖ 동물원에서 본 짐승들의 이름을 아는껏 써보세요.

❖ 《갖가지》, 《깜빡거리다》와 비슷한 단어를 찾아 읽고 쓰세요.

❖ □안에 맞는 글자를 넣어 읽고 쓰세요.

	식	
동	□	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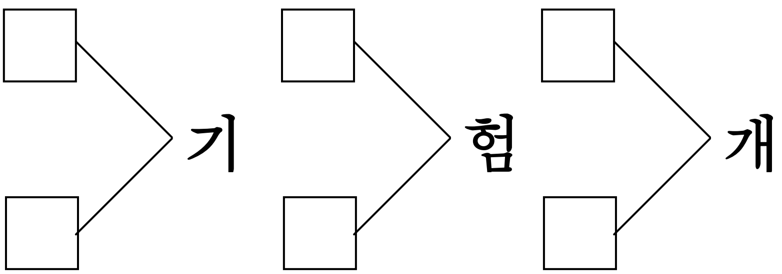
	복	
원	□	이
	아	

	□	
코	□	리
	풀	

	사	
포	□	릉
	릉	

	경	
관	□	원
	원	

	시	
호	□	심
	심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자체로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들을 다시한번 새기세요.

❖ 다음문장을 따라읽고 쓰세요. 밑줄을 그은 단어발음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철남이는 원숭이가 그네에 앉아 혀로 입술을 핥으며 말똥말똥 쳐다보던 흉내를 냅니다.

관리원누나는 공부를 한곬으로만 하지 말고 동물원에 와서도 배워야 한다면서 새의 비밀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 관리원누나가 알려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 물음에 대답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 곱게 쓰면서 다져보세요.

▶ 갖가지 고운 새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 관리원누나는 무엇을 물었습니까?

▶ 새가 왜 가볍게 날가요?

▶ 새가 날 때 무엇이 불어난다고 하였습니까?

▶ 새는 위험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 □안에 알맞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는 뼈□이 □여있어 가□습니다.

새가 날□고 □개를 펴면 □기주머니가 □룩하게 □어납니다.

새들은 □험한 일이 생기면 날□를 세□게 푸드덕거리거나 □리를 흔□어 □립니다.

❖ 《깜빡거리다》, 《반짝이다》와 비슷한 말을 찾고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동물원에서 학생들은 어떤 짐승들을 보았습니까? 이름과 특징을 말해보세요.

❖ 동물원에 가서 학생들은 무엇을 알게 되였습니까?

❖ 동물원구경이 재미있었다는것을 무엇을 가지고 말할수 있을가요?

❖ 새들의 위험신호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가요?

❖ 동물원에 다시 가면 학생은 무엇을 꼭 알고 올 결심입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받아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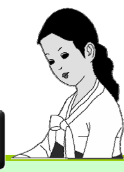
동물원구경, 원숭이, 많았다, 옮겼다, 앞발을, 핥다, 갖가지, 지저귀다, 알고싶은것, 깜빡거리다, 까만눈, 위험신호, 푸드덕거리다, 한곬으로

❖ 다음단어들을 어떤 차례로 련결하면 문장이 될가요?

▶ **제가끔, 갖가지, 지저귀다, 곱다, 새**

▶ **공기주머니, 새, 붙어있다, 몸안에**

❖ 학생이 알고있는 짐승의 이름을 쓰고 특징을 아는대로 간단히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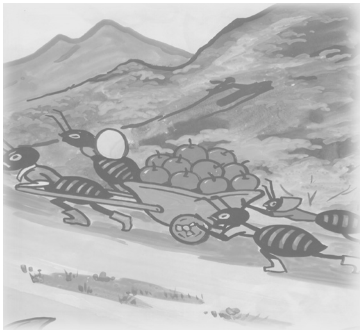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둘받침 《ㄻ, ㄽ, ㄾ》과 모음 《ㅚ, ㅖ》글자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야기

제 44 과
개미와 매미

(이 작품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였습니다. 해별이 쨍쨍 내리쬡니다.

개미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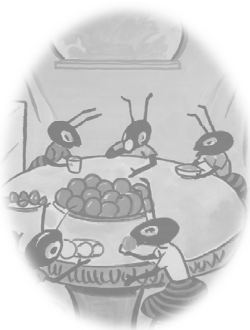
그러나 매미는 서늘한 그늘에서 《맴-맴》노래만 불렀습니다.



《매미야, 넌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오면 뭘 먹고 살겠니?》

개미가 걱정해주었습니다.

《일없어, 산에도 들에도 먹을것이 가득한데 뭐.》



어느덧 가을도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눈이 하얗게 덮이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살았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집도 없고 먹을것도 없었습니다.

매미들은 춥고 배가 고파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매미는 개미를 찾아가 먹을것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너 여름내내 놀기만 하던 매미로구나. 일하기 싫어하는 너에게 줄건 하나도 없어.》

개미가 말하였습니다.



매미는 눈물만 뚝뚝 흘리였습니다.

매미는 그때에야 여름내내 노래만 부르며 놀기만 한것이 후회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다음단어들을 따라읽고 글자를 새겨두세요.

해별, 쨍쨍, 부지런히, 서늘하다, 걱정해주다, 일없다, 어느덧, 하얗게, 덜덜덜, 먹을것, 빌다, 싫어하다, 흘리다, 줄건

❖ 소리가 달라지는 받침글자들을 찾아보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쓰세요.

ㅈ: 찾다

ㄷ: 해볕

ㅍ: 덮이다

ㅎ: 하얗게

ㅆ: 일하였다, 불렀다, 걱정해주었다, 왔다, 살았다, 없었다, 떨었다, 빌었다, 말하였다, 흘리였다

ㄳ: 몫은

ㅀ: 싫어하다

ㅄ: 일없어, 없다

❖ 받침《ㄷ》, 《ㅍ》이 있는 글자를 찾아 쓰세요. 누가 많이 알고있을가요?

상식

개미: 꿀벌처럼 무리생활을 합니다.
사탕 같은 단것을 좋아합니다.
허리가 잘룩하고 긴 마디로 된 촉각과 발달된 웃턱이 있습니다.
개미무리에는 왕개미와 수개미, 로동개미가 있습니다.

매미: 촉각은 털처럼 가늘고 짧으며 투명하고 앞날개가 크고 뒤날개는 작습니다.
수컷만 울음소리를 냅니다.
수컷이 암컷을 부르거나 적을 놀래울 때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여럿이 합창하기도 합니다.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 다음단어들은 어떤 뜻을 나타낼가요? 쓰면서 새겨보세요.

쨍쨍, 맴-맴, 덜덜덜, 뚝뚝

❖ 《해별》과 《해빛》은 무엇이 다를가요?

▶ 《해별》은 해에서 비치는 빛과 그것이 내는 뜨거운 기운이라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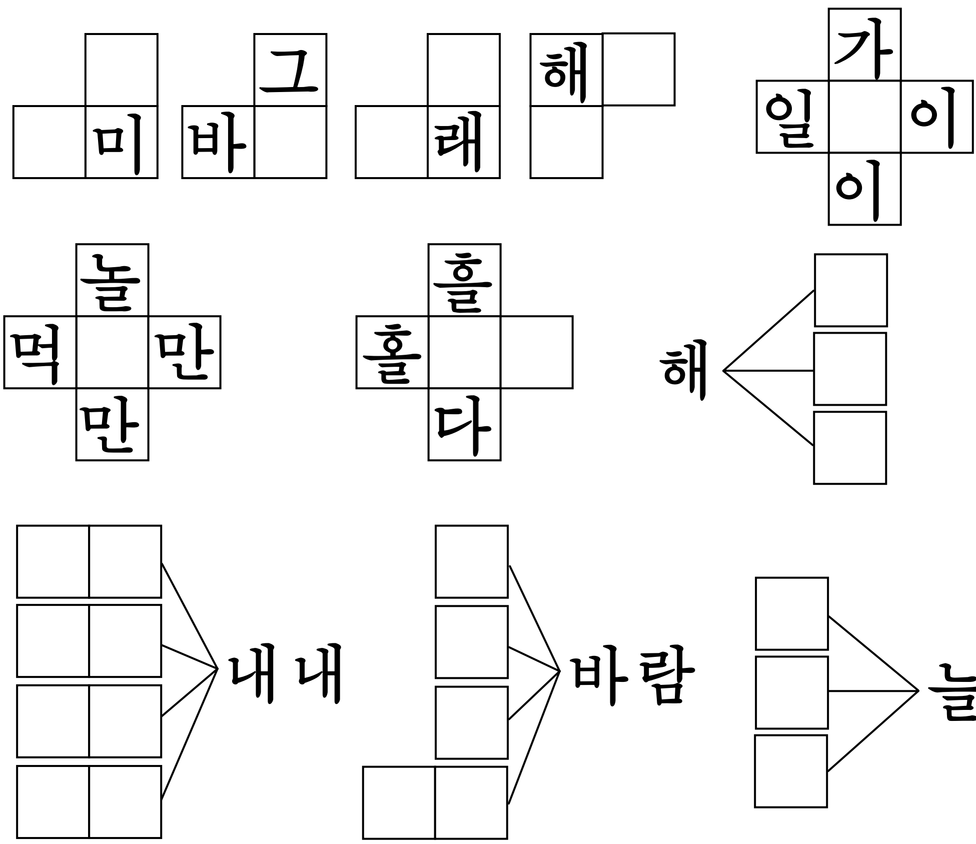
▶ 《해빛》은 해에서 내비치는 빛이나 빛살이라는것입니다.

❖ 《일없어》와 《없어》를 쓰면서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보세요.

❖ 다음단어를 쓰고 반대말과 비슷한 말을 찾아보세요.

부지런하다, 서늘하다, 걱정하다, 가득하다, 떨다, 따뜻하다, 잘 먹다, 빌다, 싫어하다, 없다

❖ □안에 맞는 글자를 써넣고 그 뜻을 새겨보세요.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세요.

❖ 한번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들을 다시한번 새겨보세요.

❖ 다음문장을 따라읽으면서 개미와 매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세요.

▶ 개미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 매미는 서늘한 그늘에서 《맴-맴》노래만 불렀습니다.

▶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살았습니다.

▶ 매미는 집도 없고 먹을것도 없었습니다.

❖ 물음에 대답할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 어떤 여름이였습니까?

▶ 개미는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 매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개미는 겨울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 매미는 겨울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 개미와 매미가 한 말을 새기며 곱게 쓰세요.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넣으세요.

무더운 □□날이였습니다.

□별이 □□ 내리쬡니다.

개미들은 □□□□ 일하였습니다.

매미는 □□□ 그늘에서 □□만 불렀습니다.

□□도 지나가고 추운 □□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이 □□□ 덮이고 □□□이 불어왔습니다.

□□는 따뜻한 □에서 잘 □고 잘살았습니다.

□□는 □도 □고 먹을것도 □었습니다.

매미는 □□를 □아가 □을□을 □ 달라고 빌었습니다.

□□기 □어하는 너에게 □건 하나도 □어.

□□는 □□만 뚝뚝 □리였습니다.

❖ 《놀기만 하다》, 《일하기 싫어하다》는 어떻게 다를가요? 문장을 만들어 써보세요.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개미와 매미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 매미는 왜 눈물만 뚝뚝 흘렸을가요? 매미가 흘리는 눈물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을가요?

❖ 이 과를 배우면서 느끼게 된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누구의 생각이 더 훌륭할가요?

▶ 개미한테서 느끼고 생각한것을 말해보자요.

▶ 매미한테서 느끼고 생각한것을 말해보자요.

알아둡시다

❖ 학습장의 □안에 글자를 곱게 쓰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 □안에 글자나 부호, 수자를 쓸 때에는 □의 가운데에 쓰면서 우, 아래, 량옆의 간격을 꼭같이 보장하고 써야 합니다.

개	미		9

▶ □안에 글을 쓸 때 획모양이 정확히 나타나게 써야 합니다.

서	늘	한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① 받아쓰세요.

해별이, 내리쬡니다, 서늘한, 그늘에서, 놀기만 하다, 걱정해주다, 일없어, 가득하다, 어느덧, 하얗게, 덮이다, 따뜻한, 덜덜덜 떨다, 찾아가다, 싫어하다, 여름내내, 줄건, 흘리다

② 다음말은 어떻게 다를가요?

여름 / **여름내내**

놀기만 하다 / **일하기 싫어하다**

③ 개미와 매미는 곤충일가요, 새일가요? 아래에 《○》으로 표시하세요.

	곤충	새
개미		
매미		

④ 《개미와 매미》이야기를 재미나게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ㄷ, ㅎ, ㄳ, ㅀ, ㅄ》받침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꼭 새겨야 합니다.

동화

제 45 과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동화에 기초한것입니다.)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이였습니다.



어느날 동산에서는 짐승들이 모여 힘겨루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이때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힘내기는 해보나마나 내가 일등이야, 자 누가 나와 맞설텐가, 응?》

몸집이 큰 곰도 메돼지도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고 슬금슬금 뒤걸음을 쳤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가만, 이기고지는건 해보아야 알지 말만 가지고서는 알수 없어.》



고슴도치가 야무진 소리로 내쏘았습니다.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쪼꼬만게 나와 맞서겠다구.》

호랑이는 앞발을 번쩍들어 고슴도치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아이쿠!》 하는 호랑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에 발바닥이 찔리웠던것입니다.

성이 독같이 난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고슴도치는 고무공처럼 통 튀여올라 호랑이의 제일 만문한 코등을 콱 찔렀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아파 정신없이 이 산, 저 산 마구 뛰여다녔습니다.

호랑이가 헐떡거리며 밤나무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네 힘이 세다고 나쁜짓을 하며 돌아치겠니?》

《다신 안 그러겠소. 제발 한번만 용서해 주시오.》

호랑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습니다.

《좋다. 앞으로 다시 약한 짐승들을 깔보았다가는 용서치 않을테다.》

고슴도치는 호랑이의 코등에서 뛰여내렸습니다.

혼쌀이 난 호랑이는 동산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고슴도치는 호랑이를 보기좋게 이기고 동무들과 함께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글자를 익혀보자요

❖ 밑줄을 그은 글자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읽고 쓰세요.

옛날, 뒤걸음, 찔리우다, 정신없이, 힘겨루기, 내쏘았다, 독같이, 헐떡거리다, 불쑥, 쪼끄만게, 집어삼키다, 나쁜짓, 맞서다, 앞발, 통 튀여오르다, 깔보다, 메돼지, 발바닥, 만문하다, 않을테다

❖ 다음말은 어떤 글자들이 모여 되였을가요? 자음,모음,받침 글자를 찾아 읽어보세요.

옛날: ㅇ ㅖ ㅅ, ㄴ ㅏ ㄹ

맞서다: 앞발:

독같이: 메돼지:

통 튀여오르다: 정신없이:

제발: 않을테다:

깔보다:

❖ 받침《ㅎ》,《ㄶ》은 읽을 때 어떤 소리가 날가요?

	다		으니		다		으니
좋	고	좋	아서	않	고	않	아서
	지		아라		지		아라

단어에서 새겨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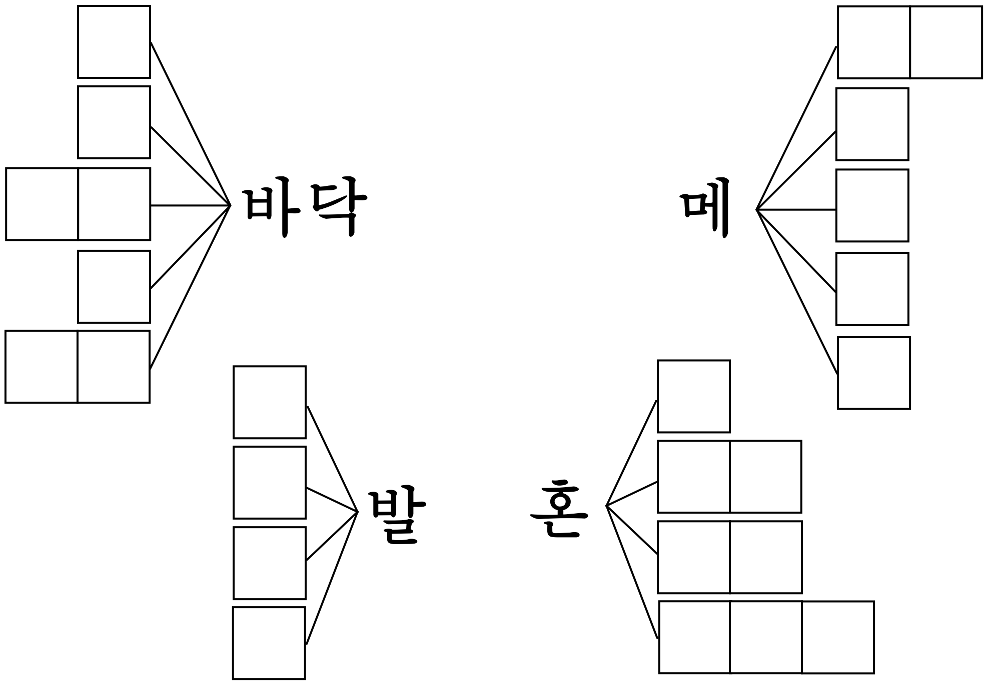
❖ 다음 단어들이 어떤 말인가를 쓰면서 새겨보세요. 그리고 어울리는 말을 찾아 쓰세요.

불쑥, 슬금슬금, 번쩍, 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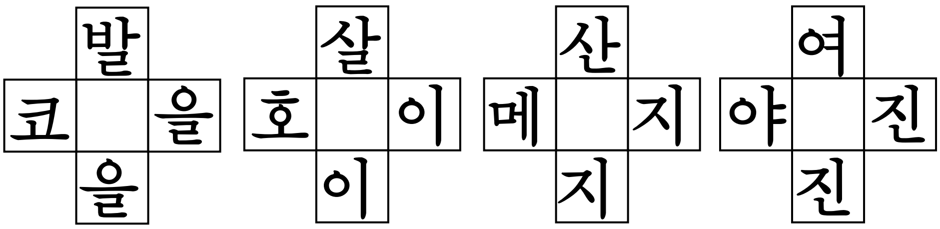
❖《힘겨루기》와《힘내기》는 어떤 말일가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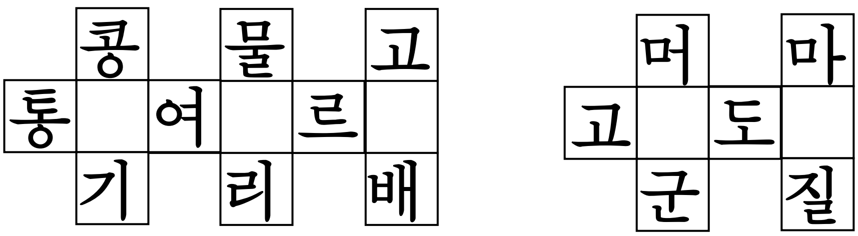
❖ 《야무진 소리》와 《비명소리》는 어떻게 쓰일가요?

❖ 어울리는 말들을 찾아보세요. □안에 알맞는 단어를 쓰고 뜻을 새겨보세요.



❖ □안에 맞는 말을 찾아 쓰세요.





❖ 다음단어와 비슷한 말을 찾아 읽고 쓰세요.

나타나다 **내쏘다**

맞서다 **집어삼키다**

통 튀여오르다 **깔보다**

문장에서 새겨보자요

❖ 본문을 따라읽으세요.

❖ 읽을 때 고슴도치와 호랑이가 하는 말을 실지처럼 따라 읽어야 합니다.

▶ 고슴도치가 하는 말은 가늘고 얇은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 호랑이가 하는 말은 굵고 깊은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 자체로 읽으면서 고슴도치와 호랑이의 흉내를 내보세요. 그리고 둘받침글자가 어느 말에 있는가 새겨보세요.

❖ 물음에 대답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 언제 있은 일입니까?

▶ 짐승들이 모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 호랑이가 나타나자 곰과 메돼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고슴도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고슴도치를 내리치던 호랑이가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 성난 호랑이가 달려들자 고슴도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코등을 찔리운 호랑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호랑이는 고슴도치에게 어떻게 빌었습니까?

❖ 호랑이가 우쭐렁거리며 하는 말을 쓰면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말일가요?

❖ 고슴도치가 야무지게 한 말을 다시 쓰면서 생각해보세요.

❖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어떻게 혼쌀냈을가요?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써넣으세요.

□내기는 해□□마나 □가 □등이야.

몸집이 큰 □도 메□□도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고 슬□□금 □걸음을 쳤습니다.

이기고 □는건 □보아야 □지 □만 가지고서는 □수 □어.

호□이는 □발을 번□ 들어 □□□□를 내리쳤습니다.

□□□치의 □□에 발□□이 찔리웠던것입니다.

□이 독□이 난 호□□는 고슴도치를 단숨□ 집어삼□려고 다시 달려들□□니다.

고슴도치는 고무□처럼 통 □□올라 호□□의 □일 만문한 □□을 콱 찔렀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아파 □□□□ 이 산 저 □ 마구 뛰여다녔습니다.

아직도 네 □이 세다고 나쁜□을 하며 돌아□□니?

호랑이는 □□까지 □리며 □었습니다.

혼□이 난 호랑이는 □□에서 도□치고말았습니다.

❖ 다음단어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보세요.

성이 독같이 나다, 슬금슬금, 야무진 소리, 쪼꼬맣다, 비명소리, 단숨에, 통 튀여오르다, 만문하다, 용서치 않다, 깔보다

재미나게 말해보자요



❖ 우쭐대던 호랑이가 하는 말을 생동하게 흉내내여 말해보세요.
❖ 고슴도치가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여 말해보세요.
❖ 본문의 이야기를 누가 더 재미나게 말해보겠어요?
자기 말로 순차를 지켜서 말해보세요.
❖ 본문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 작은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이긴 힘은 무엇입니까?
자기 결의도 함께 말해보세요.





▶ **고슴도치는** 밤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벌레, 개구리, 뱀, 들쥐를 먹고 삽니다.
▶ **범은** 밤에 다니면서 승냥이, 사슴, 메돼지, 노루, 산토끼 등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고 삽니다.

고운 글씨 쓰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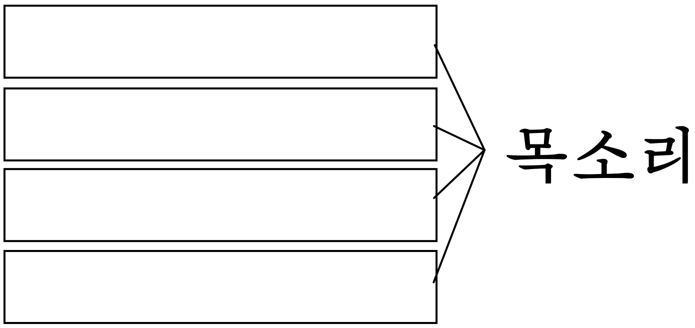
단어들은 띄여써야 합니다.
띄여쓸 때에는 네모 한칸을 건너서 써야 합니다.

호	랑	이	를		이	긴		고	슴	도	치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 《고슴도치》,《호랑이》처럼 《ㅁ》, 《ㅇ》받침이 있는 짐승이름을 누가 더 많이 알고있을가요? 곱게 써보세요.

❖ 《목소리》와 어울리는 말을 찾아 쓰세요.



❖ 《고무공처럼》과 같이 《처럼》이 어울리는 말을 10개씩 찾아쓰세요. 그리고 뜻을 새겨보세요.

❖ 본문의 내용을 아동영화를 보는것처럼 재미나게 말해보세요.

❖ 이 이야기를 배우고 느낀 점을 세가지로 써보세요. 순서를 지켜 써야 합니다.



꼭 새겨두자요

몸은 비록 작아도 제힘을 믿고 원쑤와 맞서 싸우면 어떤 원쑤놈들도 쳐이길수 있습니다.

받침 《ㅈ, ㅌ, ㅄ》과 모음 《ㅐ》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41과 — 45과)

① 우리 글자를 이루는 모음과 자음을 차례로 써보세요.

② 우리 글자에는 어떤 받침들이 있습니까? 받침이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 한 글자로 된 받침

▶ 두 글자로 된 받침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두 글자에 다 들어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④ 배운 내용을 말해보세요.

▶ 1과—2과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 3과—15과에서는 무슨 글자를 배웠습니까?

▶ 16과—19과에서는 무슨 받침글자를 배웠습니까?

▶ 20과—30과에서 배운 둘받침글자를 알고있습니까?

▶ 31과—45과에서 배운 내용을 말해보세요.

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쓰신 작품들을 읊어보세요.

《연아 연아 올라라》

《공화국기발》

⑥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와 《개미와 매미》를 영화를 보는것처럼 말해보세요.

국 어

(소학교 제1학년용)

집 필, 부교수 성순옥, 공훈기자 김승도, 김화옥,
백광명, 부교수 리수향, 교수 박사 문재홍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공훈기자 김승도 그 림 조복남, 최경락, 홍경학

편 성 박성혁, 조복남 리미옥

장 정 조복남 교 정 한순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3월 14일 발 행 주체101(2012)년 3월 24일

교—12—보—645 값 15원